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인류학석사학위논문

# 아바이 말 그리고 나의 말

## : 속초시 청호동 사람들의 언어 사용과 언어이데올로기

2015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인류학 전공

김 성 인

# 아바이 말 그리고 나의 말

## : 속초시 청호동 사람들의 언어 사용과 언어이데올로기

지도교수 강 윤 희

이 논문을 인류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인류학 전공

김 성 인


김성인의 인류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12월

위 원 장 왕 한 석 (인)

부위원장 최 진 숙 (인)

위 원 강 윤 희 (인)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속초시 청호동에서 사는 이북 출신의 청호동 1세대와 그들의 자녀인 2세대를 중심으로 그들이 밝히는 청호동 말의 사용과 그것의 문화적 의미를 분석한다. 청호동은 한국전쟁 당시 함경남도 출신 피난민들의 남하에 의해 형성된 월남인 정착촌이다. 피난민들이 모여 살며 이북 방언을 닮은 청호동 말은 청호동 사람들을 대표하는 핵심적 문화적 가치로 전해져 왔다. 하지만 정전 및 세대 변화 등에 의해 청호동 말을 둘러싼 집단 내부적 인식은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청호동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청호동 말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 그리고 청호동 말과 청호동 사람의 정체성 간의 연관 관계를 밝히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삼는다.

본 연구를 이끄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호동 사람들은 청호동 말을 어떻게 규정하며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가. 둘째, 청호동 사람들은 청호동 말에 대하여 어떠한 언어이데올로기를 지니며 그 내부의 변이는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 셋째, 청호동 사람들 사이에서 청호동 말과 청호동 사람의 정체성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1) 청호동 말의 특징은 형태론, 통사론, 어휘 및 존댓말 사용 등에서 나타난다. 그중 청호동 사람들은 청호동 말 특유의 '쎈 억양', 즉 청호동 말의 음성학적 특징을 가장 강조한다.

청호동 사람들 사이에서 청호동 말은 '청호동 말', '이북말', '북청말', '함경도 말', '아바이 말' 등과 같은 다양한 민간 명칭을 지닌다. 청호동 말에 대한 민간 명칭들은 청호동 말을 외부의 언어와 구분하고, 청호동 말에 청호동 사람들이 지니는 문화적 가치관과 경험을 투영한다. 개인이 속한 세대와 그가 겪어온 사회 경험에 따라 청호동 말을 이르는 명칭 역시 달라진다.

2) 오늘날 청호동은 청호동 말은 물론 서울말, 속초말 등이 함께 사용되는 다중방언사회이다. 이러한 언어 환경 내에서 청호동 사람들은 말 상황을 이루는 요인 중 ① 대화참여자들의 집단 정체성 ② 대화상황의 성격(공식 대 비공식) ③ 대화참여자들의 사회적 거리를 고려하여 청호동 말을 선택 · 사용한다. 청호동 사람들의 실제 말 사용은 다중방언사회에 가깝지만 청호동 사람들은 청호동 말과 서울말을 각각 적절히 상응하는 상황과 환경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양층언어 현상이 나타난다고 믿는다. 곧 서울말은 외부 사람에게 비공식적 상황에서 말할 때 혹은 사회적으로 친밀하지 않은 상대에게 주로 사용하는 말이며, 반대로 청호동 말은 비공식적 상황에서 청호동 사람들끼리 쓰는 말로 여긴다.

청호동 말의 존댓말 사용에서 세대별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청호동 1세대들은 '하대한다'고 불리는 청호동 말의 낮은 말단계를 넓은 연령차에서 허용하여 사용한다. 청호동 2세대들은 이를 상대방을 낮추는 말로 받아들이기에 서울말을 더 자주 사용한다. 결과적으로 청호동 사람들 사이에서도 청호동 말 사용은 더욱 지엽적으로 변화한다.

3) 청호동 말 사용의 변화는 청호동 말에 대한 집단 내부적 가치를 드러내는 언어이데올로기의 변화와 직결되어있다. 청호동 1세대들에게 청호동 말은 '우리' 집단의 절대적 특성이자 바뀔 수 없는 문화적 가치인 '핏줄'로 비유된다. 청호동 2세대들은 청호동 말을 특정 상황에서 사용하는 상황변이어로 받아들인다. 청호동 말이 대화의 배경, 대화참여자와의 사회적 거리 및 친밀도와 같은 상황적 조건에 맞추어 나타날 때에 대화참여자들 간의 친밀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한다. 젊은 청호동 사람들에게 청호동 말의 사용은 부정적 평가와 결합되기에, 일상적 대화 내 청호동 말의 사용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4) 연행적 말하기에서 청호동 말은 여전히 청호동 사람을 나타내는 강력한 문화적 상징으로 남아있다. 청호동 사람들은 청호동 말을 사용하여 정체성의 재현을 의도하기도 한다. 속초북청사자놀음에서 사용되는 청호동 말과 그를 통한 전통의 강조 역시 말 사용을 통한 정체성 재현의 한 예이다. 속초북청사자놀음 보존회가 주장하는 언어이데올로기를 통해 연행자인 청호동 사람에게 이북 출신 실향민 정체성이 부여되며, 그가 구사하는 말은 '진짜 함경도 말'로 평가된다. 속초북청사자놀음에서 사용되는 함경도 방언은 속초의 사자놀음을 차별화하고 민속놀이의 전통성을 드러내는 긍정적인 가치로 여겨진다.

주요어: 언어 사용, 언어이데올로기, 정체성, 세대, 언어 변이, 연행, 분단
학번: 2012-20092

# 목 차


**Ⅰ.서론 ····· 1**

1. 연구배경과 선행 연구 검토 ····· 1

2.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 6

**Ⅱ. 연구지 및 연구대상 개관 ····· 10**

1. 속초시 청호동: 역사와 현재 ····· 10

1) 청호동의 역사 ····· 10

2) 청호동의 현재 ····· 17

2. 청호동 사람들 ····· 18

1) 청호동 사람들의 문화적 정의 ····· 18

2) 청호동 사람과 세대 ····· 21

3) 청호동 사람들과 반공이데올로기 ····· 23

**Ⅲ. 청호동의 세대와 청호동 말 사용 ····· 26**

1. 청호동의 변화와 청호동 말 ····· 26

1) 청호동 말의 언어적 특징 ····· 26

2) 청호동 말의 민간명칭 ····· 35

2. 세대에 따른 청호동 말 사용: 말 선택을 중심으로 ····· 39

1) 집단 정체성 ····· 39

2) 상황 - 공식 대 비공식 ····· 43

3) 사회적 거리 ····· 45

3. 청호동 말 선택의 사회적 규칙과 세대별 변이 ····· 55

**Ⅳ. 청호동 말과 세대별 언어이데올로기 ····· 59**

1. 청호동의 세대교체와 말 사용의 특징 ····· 59

2. 청호동의 세대와 언어이데올로기 ····· 64

1) 청호동 1세대의 언어이데올로기: 핏줄로서의 청호동 말 ····· 65
2) 청호동 2세대의 언어이데올로기: 상황변이어로서의 청호동 말·· 70
3. 세대별 언어이데올로기의 변이와 청호동 말의 전망 ····· 80

**Ⅴ. 언어이데올로기와 정체성의 연행 - 속초북청사자놀음을 중심으로 ····· 83**

1.연행 내 청호동 말과 전략적 이용 ····· 84
2. 남한 내 북청사자놀음의 연행과 '속초북청사자놀음' ····· 89
3. 속초북청사자놀음의 언어이데올로기: 전통으로서의 청호동 말 ····· 91
1) 북청사자놀음의 기원과 청호동 사람 ····· 91
2) 함경도 말 사용과 속초 민속 연행의 차별화 ····· 98

**Ⅵ. 결론 ····· 102**

**참고문헌 ····· 109**
**Abstract ····· 117**

# 표 목차

<표 Ⅲ-1.> 청호동의 말단계 구분과 대표적인 종결어미 ····· 31
<표 Ⅲ-2.> 청호동 1세의 말 선택 규범 ····· 56
<표 Ⅲ-3.> 청호동 2세의 말 선택 규범 ····· 57

# 그림 목차

<그림 Ⅱ-1.> 청호동 지도 ····· 11
<그림 Ⅱ-2.> 시내 쪽에서 바라본 50년대의 청호동 ····· 14
<그림 Ⅱ-3.> 속초 난민취락의 형성과정 ····· 15
<그림 Ⅲ-1.> 서울말과 청호동 말의 억양패턴 비교 ····· 34
<그림 Ⅴ-1.> “KBS 1TV <고향극장> 58회 나의 살던 고향은”
자료화면 ····· 86
<그림 Ⅴ-2.> 청호동에 위치한 주변 상가 안내도 ····· 88
<그림 Ⅴ-3.> 청호동 안내책자 표지 ····· 89
<그림 Ⅴ-4.> 속초북청사자놀음 대본 ····· 94

# Ⅰ. 서론

## 1. 연구 배경과 선행 연구 검토

속초시 청호동은 한국전쟁 당시 남하한 이북 출신(특히 함경남도 출신) 피난민들이 모여들며 형성된 마을로 속초 방언 등과 다른 독특한 언어가 사용되는 특징을 지닌다(장정룡 · 김무림 1998, 김귀옥 1999, 최승기 2000). '청호동 말'은 청호동 사람[1]들을 대표하는 문화적 상징[2]으로 여겨져 왔는데, 남북 분단 이후의 사회적 변화와 함께 '빨갱이'부터 '실향민'까지 여러 가지 정체성과 연관되어졌다. 피난민 집단촌으로 형성된 청호동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어촌마을에서 관광지로 변화하였다. 이북 출신이자 피난을 직접 경험한 청호동 1세대들의 고령화와 이에 따른 이북출신 피난민 거주민 비율의 하락, 객지출신 전입인구의 증가와 청호동 출신 주민들의 청호동 이탈현상, 관광지화로 인한 기존 마을의 와해 등은 과거 청호동의 상징인 피난민 공동체가 퇴색된 원인으로 꼽힌다.

마을의 변화와 함께 청호동 말에 대한 청호동 사람들의 내부적 평가도 달라진다. 청호동 1세대들은 청호동 말이 이북말 특유의 '쎈' 억양과 큰 소리라는 특징이 고스란히 닮아있기에 청호동 사람이라면 당연히 청호동 말을 사용한다고 공공연히 말하지만, 청호동의 젊은 세대들은 청호동 말보다 서울말, 속초말 등의 기타 언어가 더 익숙하고 그를 더욱 자주 사용한다. 청호동의 젊은 세대에게 청호동 말은 대화 상황과 대화 참여자의 성격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계에 따라서 부정적으로도 혹은 긍정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다층성을 가지게 되었다.

---

1) 청호동 뿐만 아니라 속초 내에서 '청호동 사람'이란 행정상 청호동에 거주등록된 청호동 주민이 아닌, 청호동의 역사와 문화에 익숙하며 청호동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는 청호동의 원주민들 혹은 청호동에서 오랜 기간 거주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청호동 사람'이란 연구대상에 대한 연구자의 제한적 설정이라기보다는 연구지 내에서 통용되는 민간명칭으로 여겨져야 할 것이다. 청호동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 문화적 의미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2) 속초 아바이마을(청호동)과 전라북도 김제 용지농원의 정착촌의 1세대들을 중심으로 피난 경험과 그 후세대들이 생활 경험을 통해 형성시킨 정체성의 분석에 집중한 김귀옥의 연구는 피난민의 '정착촌 월남인' 정체성을 구성하는 문화적 요소로 언어와 음식, 관혼상제를 제시한다(김귀옥 1999: 338). 그의 설문조사에 따르며 속초 정착촌 월남인 1세대 40명 가운데 언어 면에서 고향식을 따르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는 사람은 21명(52.5%)으로 기타 음식면(13명(32.5%))이나 제사(18명(45%))보다 높은 비율을 보여준다(Ibid.: 338 참조). 2세대 역시 이상의 문화적 요소 중 언어에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음을 보이며 원주민 방언보다 1세대의 고향 방언을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Ibid.: 374).

본 연구는 속초시 청호동 사람들의 말 사용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오늘날 청호동 말 사용의 특징을 말 선택 규범을 중심으로 살핀다. 또한 언어이데올로기(language ideology) 그리고 언어와 정체성(language and identity)의 이론틀을 통해 청호동 말에서 발견되는 사회문화적 가치 및 청호동 말과 청호동 사람의 정체성 간의 연관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인류학의 하위 분과 중 하나인 언어인류학(linguistic anthropology)은 인간의 의사소통 전반에 관한 총체적인 접근을 통하여 '문화적 행위로서의 말하기'를 탐구한다. 언어인류학은 언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적 체계의 기술 및 분석만을 중시하던 구조주의 언어학의 연구 관심에서 더욱 확장하여 말하기 자체의 양식은 물론 말하기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집단 및 말하기를 둘러싼 세계에서 언어를 통해 전달되고 합의되는 사회문화적 의미를 밝히는 데 주력한다. 하임즈(Hymes)는 의사소통의 민족지학(the ethnography of communication)을 통해 사회적 · 문화적 행위로서의 말하기를 연구하기 위해서 말 행위의 발생을 둘러싼 맥락을 구성하는 다양한 성분들을 요약적인 단위로 제시하였다. 그가 설정한 분석단위인 말 상황(speech situation), 말 사례(speech event), 말 행위(speech act) 그리고 말 사례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의 집합인 SPEAKING 모델[3]은 언어인류학 연구 사례의 분석과 정리에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다.

---

3) SPEAKING모델의 구성요인들을 자세히 살피면 다음과 같다(왕한석 1996: 31).

1. Setting: setting(말하기의 자연적 배경), scene(장면에 대한 문화적 정의)
2. Participants: speaker or sender(화자),
   addressor(화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hearer or receiver, or audience(청자),
   addressee(메시지가 궁극적으로 전달되는 대상)
3. Ends: purposes-outcomes(관습적으로 인지되는 목적),
   purposes-goals(개인적인 전략)
4. Act Sequence: message form(말이 표현되는 방식),
   message content(말의 내용)
5. Keys(어조, 태도, 예의 등과 같은 표현적인 요인들)
6. Instrumentalities: channels(구두, 서면, 신호기 등에 의한 말의 전달 방식)
   forms of speech(언어, 방언, 말씨체 등의 언어표현 양식들)
7. Norms: norms of interaction(말과 관련되는 특정행위 및 자질)
   norms of interpretation(참여자에 의한 상호작용 규범의 해석)
8. Genres (시, 소설, 속담, 욕 등의 전통적 장르 범주)

화자들의 언어 형식과 언어 사용을 문화특수적인 시각에서 분석하여 온 언어인류학이 연구대상자 스스로 설명하는 그들의 말과 말 사용의 관념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근래의 일이다(Kroskrity 2004: 496 참조). 연구대상자들이 제공하는 그들의 말에 대한 가치 평가와 말 사용에 대한 설명은 연구자에 의해 관측되는 객관적이고 가시적인 언어적 현상과 동떨어진, 연구대상자의 주관적인 의견이자 비논리적 감상으로 치부되곤 했다.[4] 연구자들이 연구대상자들이 말하는 말과 말 사용에 대한 설명에 주목한 것은 그들의 설명이 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집단 내부의 문화적 가치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 현상에 대한 해석으로 매개되는 양상 및 언어를 둘러싼 사회의 거시적 현상을 하나의 작용으로 묶어 설명하며 말과 사회적 · 정치적 세계라는 두 가지 차원을 잇는다는 점이었다(Silverstein 1979, Irvine 1989, Woolard and Schieffelin 1994, Woolard 1998).

이상과 같이 특정 집단이 혹은 그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이 언어 형식과 사용에 대하여 드러내는 관념을 언어이데올로기(language ideology)라고 부른다. 언어이데올로기에 대하여 흔히 사용되는 정의는 언어이데올로기가 연구대상자가 위치한 사회적 세계 내에서 구성된 가변적인 관념임을 강조한다: “언어 사용자가 한 언어의 구조와 그것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는 일련의 믿음(Silverstein 1979: 193)”, “언어와 사회의 관계, 더 나아가 그것에 대한 도덕적 · 정치적 이해에 대한 문화적 가치체계(Irvine 1989: 255)”.

언어이데올로기는 사회적 세계에 투과된 언어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의사소통 행위라는 하나의 완결된 결과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말 사용자 그리고 그들이 위치하는 사회문화적 환경 사이에서 언어이데올로기는 그들을 매개하며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이때에 말 사용자들이 언어를 평가하고 설명하는 방식 혹은 언어 사용과 사회적 진실(또는 그러한 진실을 만들어 내는 담론)을 합리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은 말 그리고 말 사용에 대한 사용자의 의식을 보여준다.

개인 혹은 집단의 언어이데올로기를 다룰 때 유의할 점은 연구 대상 집단에 의해 제공되는 설명이 그들이 처한 사회적 위치와 그들이 상상하는 사회적 진실에 의해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언어이데올로기에서 나타나는 말에 대한 설명과 합리화된 논리는 사회적 세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언어 및 언어행위에 대한 가치

4) 연구 대상 집단이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하여 가지는 의식(linguistic consciousness)에 대하여 보아즈(Boas)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며 혼란스러운 부차적 설명(the misleading and disturbing factors of secondary explanation)”으로 일컬으며 그것이 가지는 분석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Boas 1911: 69, Kroskrity 2004: 499 재인용).

를 설명하고, 그러한 설명은 자신의 사회 · 문화 · 정치적 이해와 결부한다. 이처럼 개인 혹은 특정 집단의 언어이데올로기는 그들이 직면한 이해를 보호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말 그리고 말 사용에 부여하는 가치 및 평가를 그들이 위치한 사회적 세계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그들의 행동양식과 연계하여 설명하며 그들 자신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한다.

언어이데올로기가 집단의 이해를 반영하긴 하지만 동일 집단 내 구성원 전원에게 동일한 언어이데올로기가 공유되는 것은 아니다. 언어이데올로기는 동일 집단 내에서 모든 구성원에게서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보다는 개별 구성원들의 사회적 정체성이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동일 집단에 속해 있더라도 모두 같은 언어이데올로기를 공유하게 되는 것만은 아니며 개인의 연령, 젠더, 계급 등에 따라 동일한 언어를 다르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언어이데올로기적 변이(language ideological variation)(Kroskrity 2004: 496)가 존재한다. 언어이데올로기의 이러한 특징은 기존 연구에서 일탈적 말하기로 치부되던 비주류의 자료들을 연구 대상으로 수용한다.

이처럼 언어이데올로기는 사회적 세계의 변화에 기반을 둔 말 사용의 설명부터 그러한 말 사용에 대한 개인/집단의 연결에 이르기까지 거시적 · 미시적 차원의 변이뿐만 아니라 동일 집단 내 언어이데올로기의 변이까지 아우르며 그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틀을 제공한다. 사회적 세계와 말 사용을 연결하는 언어이데올로기의 매개성에 대하여 얼바인과 갈(Irvine and Gal)은 기호학적 논의를 통한 설명을 시도한다. 이들이 밝히는 언어이데올로기의 기호학적 과정은 언어이데올로기가 특정 언어와 그에 대한 집단 혹은 개인의 해석적 의미 사이의 연결을 어떻게 자연화하는지 주목하는데, 이는 '아이콘화(iconization)', '삭제(erasure)', '상이한 차원의 순환성(fractal recursivity)'으로 분류되어 제시된다(Irvine and Gal 2000: 37-39).

언어이데올로기는 언어인류학 내의 다양한 주제와 연구대상을 포괄하며 그 모습을 드러낸다. 소수 종족 집단 내 언어의 고수와 언어의 사용을 통한 정체성의 유지(Kroskrity 2000, Choi 2002)와 같은 종족성과 정체성은 언어이데올로기의 중요한 관심 분야 중 하나이다. 언어이데올로기는 국가 내 공식 언어의 변화와 그를 조장하는 제도화를 살피며 언어 정책의 문제를 다루거나(Errington 2000) 세계화와 같은 거시적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여 개인들이 구성하여 그들의 말 사용에 적용하는 다층적 언어이데올로기(Kang 2012)에 주목하기도 한다. 언어이데올로기는 일상적 언어 사용 외에 특수한 언어 상황 내 말 사용과 그를 구성하는 관념적 가

치들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제도적 환경 내 말 사용과 그를 합리화하는 언어이데올로기(Merzt 1998) 혹은 연구 대상집단이 겪는 사회적 변화와 연행 내 말 사용, 특히 의례 언어의 변화와 언어이데올로기의 상관성(강윤희 2004)이 그 예이다. 이처럼 언어이데올로기는 면대면 상황부터 연행, 언어 사용 및 선택과 언어정책까지 언어와 사회를 다루는 연구 영역 전반에서 유용하게 활용된다.

언어이데올로기는 특정 언어공동체와 구성원들이 언어와 그것의 사용을 통해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고 그것을 '우리' 집단의 정의에 이용하는 방식들을 보여준다. 이는 언어이데올로기가 말을 통한 문화적 · 사회적 정체성의 재현 및 생성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린다(Kroskrity 2004: 509). 언어와 정체성 연구는 개인 혹은 집단과 연결되는 특정 언어 및 언어의 사용에 대하여 연구대상들이 상정하는 '우리'와 '그들' 사이의 '같음'과 '다름'을 통해 주장되는 다양한 사회적 정체성—지역 정체성(regional identity), 종족 정체성(ethnic identity), 젠더 정체성(gendered identity), 국가 정체성(national identity) 등—을 다루어왔다(Mesthrie and Tabouret-Keller 2001). 언어인류학에서 특정 개인 혹은 집단이 상정하는 언어 및 언어사용에 대한 사회 · 문화적 의미와 그에 대하여 제기되는 자신에 대한 인식—'나' 혹은 '우리'와 '그들' 사이의 차별화된 특수성—은 언어인류학이 다루는 문화적 배경 내 사회적 행위로서의 언어와 전 영역에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특정 언어 혹은 그것의 사용에 문화적 가치를 부여하고 언어적 특징을 자신의 정체성과 연관 짓는 설명은 언어이데올로기의 연구 고민과 겹쳐진다.

북홀츠와 홀(Bucholtz and Hall)은 언어의 사용을 정체성에 근본적으로 결부시키고 말 혹은 말 사용을 통해 정체성을 단정하는 정태적인 설명을 거부하며, 말 행위를 통해 특정 순간 출현(emerge)하는 정체성의 일면을 지목한다(Bucholtz and Hall 2004, 2005). 즉 개인 혹은 집단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사회적 변인과 그들의 언어 사용을 연결하여 도식화하고 그를 통해 언어사용과 집단정체성을 연결하여 연구 대상 집단의 언어적 특징은 맥락과 상황에서 분리되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들 자신 및 집단에 대한 성원권을 지표한다(Mendoza-Denton 2002 참조)고 여기기보다, 언어 사용 혹은 말을 통해 말을 설명하는 메타화용적 행위로 드러나는 정체성의 상황성과 유동성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언어를 통한 정체성의 상황성과 순간성에 주목하게 되면서 언어와 정체성은 다층적 · 유동적인 개념으로 새로이 조명된다. 정체성은 언어적 수단을 통해 개인 심리 내부의 본질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외부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해나가는 상호적인 개념인데 이러한 관계성 내에서 말 사용은 정체성의 일면을 구축한다

(Bucholtz and Hall 2005). 일상적 의사소통의 도구인 언어는 그것이 사용되는 다양한 상황적 맥락의 중첩 속에서, 그리고 의사소통을 위해 발화되는 개별 담화 그 자체의 문법적 · 의미론적 특징과 담화 간의 상호작용의 과정을 통해서 화자의 정체성을 드러낸다고 보는 것이다. 언어이데올로기는 언어와 정체성의 연구에 연구 대상 집단이 위치한 사회적 세계를 포함하는 거시적 맥락을 추가하여 살펴봄으로써 상황적 맥락과 사회적 맥락의 교차 내에서 발생하는 언어와 정체성의 연결을 더욱 광역적인 시각에서 다룬다.

지금까지 다룬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속초시 청호동의 말과 그에서 발견되는 언어이데올로기와 정체성을 다룰 것이다. 본 연구는 청호동 사람들의 청호동 말 사용을 그들의 일상적 말하기 내 말 선택 양상을 중심으로 살피고, 청호동이 겪은 시대적 · 사회적 변화와 동반되어 발생하는 청호동 말의 언어이데올로기를 다양한 말 상황에서 밝히며, 그를 통해 청호동 말과 청호동 사람의 정체성 간의 연결을 보일 것이다. 청호동의 말 사용 및 언어이데올로기를 밝히는 작업은 기존의 청호동 말을 다룬 연구가 보여주는 언어 자료의 분석을 넘어 연구 대상 집단의 언어적 특징과 그에 대한 연구 대상 집단의 인식 변화를 말 · 연구 대상 집단 · 사회 간의 연계를 통해 보여준다.

## 2.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청호동 사람들에 대하여 청호동 말에 대한 언어적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호동 말의 적합한 사용에 대한 맥락적 조건을 선별할 수 있으며, 청호동 말의 문화적 의미를 집단 내부적으로 특수하게 받아들이는 일종의 언어공동체로 상정하고, 해당 언어공동체 내부에서 발견되는 언어이데올로기 및 말과 정체성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청호동 사람들이 주장하는 청호동 말의 주요한 특징을 제시하고 청호동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말과 정체성의 관계를 분석하여 이 관계를 조정하는 현상 이면의 언어이데올로기를 제시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삼는다.

본 연구를 아우르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청호동 사람들은 청호동 말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와 가치관을 지니고 있으며 청호동 말과 청호동 사람의 사회적 정체성 사이의 연관관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는 본 연구가 탐색하는 청호동 말의 구체적 특징 및 사용양상, 청호동 말에서 발견되는 언어이데올로기, 청호동 말의 언어이데올로기와 정체성의 연계라는 세 가지 중심적 연구주제들을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이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호동 사람들은 청호동 말을 어떻게 규정하며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청호동 사람들이 사용하는 청호동 말의 언어적 특징을 기술하고 청호동 말의 사용 양상을 말 선택을 중심으로 정리할 것이며 이를 통해 청호동 사람들이 상정하는 청호동 말의 문화적 의미를 밝힐 것이다. 청호동 말의 말 선택은 청호동의 세대에 따라 구분되어 세대 경험에 따라 달라지는 청호동 말에 대한 가치와 평가를 보여준다.

둘째, 청호동 사람들은 청호동 말에 대하여 어떠한 언어이데올로기를 지니며 그 내부의 변이는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

앞서 밝힌 청호동 말의 문화적 의미는 청호동 사람들이 언어에 투영하여 자연화하는 정치적· 사회적 관념인 언어이데올로기의 일부분을 구성한다. 청호동 사람들은 그들이 직 · 간접적으로 경험한 한국사회의 근현대적 사건들에 의해 청호동에 정착하게 되었으며, 청호동의 말을 자신들의 특수성을 대변하는 문화적 가치로 내세워왔다. 하지만 청호동을 둘러싼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청호동 말에 대한 청호동 사람들의 평가도 달라진다. 본 연구는 청호동의 언어이데올로기를 유형화하고, 나아가 청호동 사람들이 겪어온 사회적 변화에 의한 언어이데올로기 내부의 변이를 세대 별로 정리하고 그로 인한 청호동 말의 문화적 의미의 재구성을 논의한다.

셋째, 청호동 사람들 사이에서 청호동 말과 청호동 사람의 정체성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청호동 사람들의 일상적 말하기에서 청호동 말은 화자가 속한 세대에 따라 이북 출신 피난민 혹은 청호동에서 나고 자란 청호동 '토백이'와 같은 다른 청호동 사람을 가리킨다. 세대에 따라 청호동 말 사용을 통해 나타나는 청호동 사람이 상반된 평가를 불러일으키는 것과 달리 민속놀이의 연행과 같은 특수한 말하기 상황에서 청호동 말은 청호동 사람으로 대표되는 이북 피난민을 지표하며 속초 내 민속 연행의 전통성을 수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다양한 말 상황에서 나타나는 언어이데올로기는 청호동 말을 각기 특수한 정체성과 연결하고 그것을 상이한 해석과 결부시키며 정체성의 상황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에서 이루어졌으며 청호동 말에 대한 문화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청호동 사람들을 주요한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연구대상지는 행정구역 재편 전 청호동 본토에 해당하는 현 청호동 1, 2, 3통과 9-16통이다. 총 넉 달에 달하는 조사기간 중 2013년 8월부터 11월까지는 본 조사기간으로 자료수집에 집중하였으며 그 후 2014년 1월 그리고 8월 보충조사를 진행했다.

본 연구는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으로 진행되었다.[5] 특히 참여관찰은 청호동 말의 특징 및 사용 양상의 파악을 위해 필수적인 연구방법이었는데, 이는 연구대상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다양한 자연발화에 연구자 스스로를 노출시키고 다양한 참여자들이 함께하는 말 상황을 직접 관찰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언어인류학 연구의 기본 연구 방법이자 가장 전통적인 방법 중 하나인 마을 연구를 수행하였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연구자의 연구의도와 목적을 장려하였고 그들이 아는 인맥을 총동원하여 적절한 면담자를 추천해주며 적극적으로 연구에 협력하였다. 청호동 사람으로서 마을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긍심과 연구를 위해 자신의 이야기를 기꺼이 들려주고자 하는 호혜성 역시 연구자를 자연스럽게 내집단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깊이 있는 조사를 이끌었다.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수행된 청호동 1세대 · 2세대 · 3세대와의 심층면담 그리고 청호동 주민들에 대한 참여관찰 중 나타난 청호동과 청호동 말에 관련된 대화들은 청호동 사람들의 언어이데올로기 분석을 위한 자료로 쓰였다.

연구대상자들의 협력을 통해 연구자는 청호동의 다양한 집단과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으며 이는 조사 초기 마을 전체에 연구자의 존재를 알리고 마을 주민들과의 라포(rapport)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연구자는 청호동 동장 및 통장, 청호동 주민들이 거쳐 간 청호초등학교의 교장, 2005년 개관 후 청호초등학교의 학생 및 속초 거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복지를 실행하고 있는 위스타트 센터의 센터장, 청호동에 위치한 3개 노인회의 노인회장과 같은 마을 유지들을 만나 연구 목적을 소개하고 통장협의회, 함경남도 청년회 정기 모임, 청호동 내 애향단체의 정기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모임에서 연구자는 청호동 1세대와 2세대들에게 동의와 허락을 구한 후 참여관찰을 실시하였고 동시에 모임 내 발화상황을 녹음하거나 비공식적 질의를 진행하였으며 청호동 말에 대한 문화적 지식이 풍부한 연구대상자의 경우 후일 개별적으로 만나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청호동에 위치한 노인회관 두 곳을 수시로 방문하여 1세대 주민들과 얼굴을 익히고 마을회관에서 알게 된 어르신들을 시작으로 고령 주민들과 청호동 정착과정 및 청호동의 역사, 청호동 말에 대한 심층면담을 주로 진행하였다. 노인회관이 파하는 저녁에는 청호초등학교 및 속초 내 기타 초등학교의 학생들이 모여 공부하는 위스타트 센터에서 방과 후 수업을 보조하였다. 이는 연구자로서 마

5)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SNUIRB)의 승인 후 연구에 착수하였다. IRB 승인을 받은 연구 기간은 2013년 8월 5일부터 2015년 8월 4일까지이다. (IRB No. 1308/001-012)

을주민들로부터 받는 협력과 관심을 마을로 환원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의도와 청호동의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연구의 중심대상이 되는 1 · 2세대 외에 추가적으로 4세대뻘인 아이들의 말 행위를 관찰함으로써 청호동 말의 변화 양태를 살피고자 하는 연구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조사 중반에 달하는 9월이 되자 마을은 명절과 다양한 가을 행사 준비로 들썩였다. 연구자는 마을에서 추석을 함께 쇠고 청호초등학교 총동문회 체육대회와 속초시 함경남도 도민회에서 마련한 함경남도 도민 한마음 큰잔치를 참여관찰하였다. 또한 속초 문화원에서 주력하고 있는 문화사업인 속초 북청사자놀음의 연습과 공연 및 제 25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출전을 지켜보았고 속초시의 가을축제인 설악문화제에 참여하는 청호동 주민들의 연습과정과 직접 참여하는 동별 퍼레이드를 함께하며 주민들 간의 상호작용을 참여관찰하였다. 9월 이후 부터는 이상의 행사에서 친분관계를 맺은 마을 내 2세대들과 언어이데올로기 및 청호동 사람에 관한 심층면담 및 단체면담을 주로 진행하였다.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북청 어르신 한마음 대회 그리고 서울에서 열린 이북오도민 체육대회와 같은 월남인 동향단체들의 모임에 동참하여 비교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조사 후반에는 수집한 자료에서 심층면담에 응해준 40명의 주민들을 중심으로 심층면담 후 남는 의문점들에 대한 답변을 듣고 연구자가 자료를 통해 도출한 연구결론을 재확인하였다.

월남인 집단촌인 청호동은 피난민들과 분단, 이산가족에 주제로 한 다양한 학술연구가 수행된 유명한 연구대상지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청호동 주민들은 '연구대상자'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그것의 사회적 의의를 탐색하는 일에 매우 익숙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청호동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불러올 사회적 · 정치적 파장을 의식하고 있었다. 특히 피난을 직접 경험한 이북출신 고령의 노인들은 여전히 자신의 고백으로 인해 북한에서 자행될 가족과 자신에 대한 보복을 두려워하며 피난에 관련된 자신의 개인사를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였으며, 개인면담에 응하더라도 자신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익명화할 것을 요구하는 이들이 대다수였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연구대상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연구의 신뢰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대상자들의 이름, 나이, 가족관계와 같은 개인정보를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연구대상자들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익명화하기로 한다. 연구대상자의 신변보호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들의 출신 고향 역시 변경하였다.

# Ⅱ. 연구지 및 연구대상 개관

본 장에서는 연구지인 속초시 청호동 그리고 연구 대상인 청호동 사람들에 대한 역사적 · 사회문화적 정보를 살펴본다.

## 1. 속초시 청호동: 역사와 현재

### 1) 청호동의 역사

청호동이 위치한 도시인 속초는 해방 이후 38선 이북지역에 속하였다. 그 당시 속초는 양양군의 중심지인 양양읍에 접한 작은 포구에 불과하였다. 일제 강점기 후기에 속초의 청초호가 항구로 개발되며 속초(당시 속초리)는 성장하기 시작하였고(속초시 · 속초시 박물관 2007b: 125 참조) 1942년에 속초읍으로 승격되었다. 속초의 또 다른 특징은 수복도시라는 점이다. 한국전쟁의 발발과 함께 1950년 10월 속초는 수복되었고 그 후 단기북한통치, 재탈환 및 국지적 미군정을 거쳐 남한의 일부로 남게 되었다(속초시 · 속초시 박물관 2007b 참조). 특히 속초는 한국전쟁 전후로 이북출신 피난민들이 모여들면서 급속한 인구성장과 도시발전을 체험하게 된다(전상인 2000: 45-46 참조).

동해바다를 접하고 있는 청호동 자리는 본래 불모지로 거주민이 없었다고 한다. 그렇기에 청호동은 한국전쟁 당시 이북 출신 피난민들이 모이며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속초 수복 이후 갈 곳 없는 피난민들은 그 당시 38선 이남 지역의 최북단이었던 속초 내 주인 없는 빈 땅인 청호동에 모여든다. 대한민국 정부로 행정권이 이양되기 전까지 청호동은 다른 38선 이북지방과 마찬가지로 군정당국의 소관이었는데, 군정은 이 지역에 피난민 정착촌 형성을 위해 주택 건설 계획을 별도로 세우지 않았다. 그래서 초기에 이곳에 유입된 피난민들은 현재의 청호동 1, 2, 3통 지역을 중심으로 좁은 공간에 움집이나 소규모 가건물, 판잣집 등을 불규칙하게 짓고 살았다(속초시 · 속초시 박물관 2007a: 14). 청호동의 형성을 지켜본 함경남도 신포출신 1세대는 다음과 같이 구술한다.

**<그림 Ⅱ-1. 청호동 지도>** ⓒ청호동 주민센터

<그림 Ⅱ-1.>은 속초시 내 청호동의 위치 및 신수로 건설 이후 현재의 청호동 행정구역을 보여준다. 연구 대상 지역은 청초호 오른쪽에 위치한 청호동 본토 지역으로 청호동 1, 2, 3통과 9 - 16통에 해당한다. 청호동 본토 내에서 북쪽이며 갯배나루가 위치한 9통 지역은 전통적으로 '아랫마을' 로 불린다. 신수로 건너 조양동과 맞닿아 있는 남쪽의 넓은 대지는 '윗마을' 로 불린다.

<사례 II- 1.>[6]

**연구자:** 처음에 오셨을 때부터 청호동 어땠는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뭐 사람들이나 집들 형태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 뭐 먹고 살았는지 분위기는 어땠는지.

**김범석 할아버지:** 글쎄 내가 속초에서 혼자 살 때에는 육군 위생병이니까 병원에 군속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공급받아서 바압~: 먹고 살았지. 그런데 여기에 정착하게 되니까 그때 여기 집들 하나도 없었을 때거든. 여기 모두 백사장인데 그 때 그…… 군보급선이 군인들 식량 보급해주는 보급선이 부두밖에 와서 정박하고 있었단 말이야. 거기서 싸알~: 퍼서 육지로 보내는데 그 싸알~: 더러 옆으로 새는 게 있었어. 그거 구해서 먹고 살고 그랬는데 그 때 당시 피난민들이 여기 많이 못 들어올 적이야 검문소가 조양동에 검문소가 있고 응. 근데 그 사람들 여기 들어오면은 피난민들 들어오면은 갈 데가 없잖아, 땅이 있나 집이 있나. 그러니 내가 여기 사니까 우선 날 아는 사람은 나알~: 찾아온단 말이야, 신포에서 온 사람은 나알~: 찾아오거든.[7] 그러고 내가 여기 집 하나 지어놓고 있었는데 날 찾아오면 내가 보급선에서 내던진 판자 같은 거 이리 부두에 마이 떠들어온 거 내가 마이 건져놨거든. 그거 한 뭉텅이 해가지고 필요하니까 그 판자 마이 주워놨는데

---

6) 본 연구가 제시하는 자료는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에서 기록한 필드노트와 녹음된 발화에 대한 전사(transcription)에서 채택된 것이다. 전사 원칙은 실제 발화에 상응하는 단위로서 최대한 연구대상자들의 발음에 충실하게 기록하여 청호동 말의 언어적 특색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사 표기는 연구자가 개발한 전사 기호를 사용하여 녹음된 발화상황을 최대한 편집 없이 보이기로 한다.

본고에서 사용한 전사기호는 다음과 같다.
~:: 장음화.
~: 말소리 연장.
[]: 이해하기 힘든 발음에 대한 연구자의 교정.
……: 말꼬리 흐림.
a-/-b: 연이은 발화.
**진한 글씨**: 큰 소리로 강조.
하하하: 웃음소리.
(): 대화 및 대화상황의 이해를 위한 연구자의 추가 설명
(()): 준언어적 표현 및 동작 관련 표현.

본 연구의 전사 표기방법은 담화분석(discourse analysis)의 표기방법을 참고하였으나 그와 동일하지 않음을 밝힌다.

7) 1951년 8월 국방군 제1군단이 속초와 양양군을 수복하며 이상의 지역은 군 당국에 의해 관리되기 시작한다. 이상의 수복지구들에 대하여 군 당국은 민간인들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했다. 월남인이 수복지구 내 거주가 허용되는 경우는 군속으로 선발되어 일하거나 군속으로 일하는 동향출신과의 연고를 가지고 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고 한다(김귀옥 1999: 130-136 참조).

그 피난민들 들어오면 나알~: 믿고 들어온 사람이니까 어떡하나?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판자로 하꼬방[8] 짓고 응? 그렇게 해서 하나 둘 내 주위로……. 그래서 신포마을[9]에 날 터줏대감이라 그래. 그래 여기 주위에는 신포사람들만 살았어, 나알~: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구자:** 그럼 그 때 보통 함경남도 신포분들이 많이 들어오셨겠네요?

**김범석 할아버지:** 그럼. 청호동이 시발(始發)이 여기부터 시작됐거든. 그니까 청호동의 시발은 함경도 신포마을부터 시작했다. 여기 신포마을이거든 여기 위로 올라가면은 호원[홍원], 신창, 여흥[영흥]이고. 근데 그래가지고 집단부락이 된 거야. 한 사람이 살면은 피난민이 '야 그 사람 아니?' 고향사람이라면 다 그렇다고 하더라. 그러면 그 사람 의지해가지고 집 짓고 살고 그러니까 집단 부락이 된 거지. -중간 생략- 피난나온 사람들은 그 때 당시에는 (이북 고향에) 어느 정도까지 정착되어 있으니까 가자고 도로 들어왔지. 가자고 도로 들어와서 집 짓고 여기서 살고. 대부분 함경남도에서 나온 피난민들이 대부분 해안가에서 왔다고. 바다 바다. 해안가에서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 생업이 어업이야 어업. 고기 잡는 어업. 그래서 여기서 배타고 배 만들어서 나가서 고기 잡고 먹고 살았지.

2013. 11. 8 심층면담 중

8) 거주공간과 부엌공간을 분리한 2실 구조 형태의 간이주택. 판자, 깡통 넓힌 것, 종이박스 등을 이용하여 건축되었다. 협소한 방과 부엌 사이에 함경도 지방 주택의 특징인 '정주간'으로 불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정재국 2000: 312-313).

9) 신포마을의 현재 위치는 청호동 9통 내 갯배 선착장 바로 앞이며, 홍원마을, 신창마을, 영흥마을은 신수로 건설로 마을 터가 사라지고 주민들이 타지로 이주하였다. 오늘날까지 9통 아랫마을 내 신포마을, 외꼬치마을, 짜꼬치 마을은 남아있지만 마을 주민들은 확연히 줄어 마을이라기 보단 소규모 부락으로 불리는 것이 마땅한 실정이다.

**<그림 Ⅱ-2.> 시내 쪽에서 바라본 50년대의 청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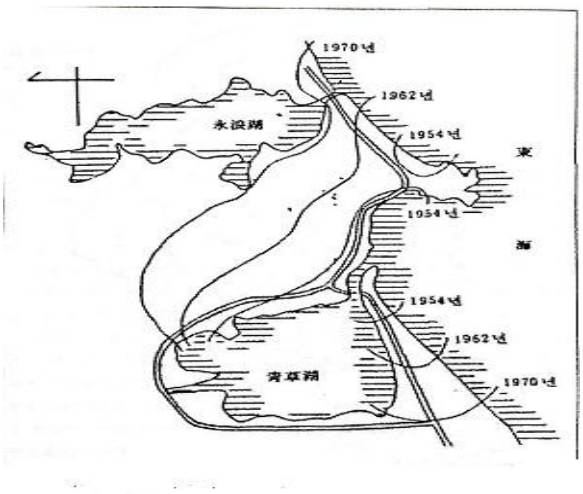
ⓒ속초시청

이상의 1세대의 구술에서 볼 수 있듯이 초기의 청호동은 온전히 이북출신 피난민들로만 이루어졌으며, 청호동에 모여든 피난민 중 90% 이상이 함경남도 북청군, 영흥군, 단천군, 홍원군, 이원군 등 함경남도 해안지역 출신이었다. 이들의 피난 시기는 1950년대 말과 1 · 4 후퇴 때가 대부분이며, 다음으로 1 · 4 후퇴 후 휴전기간 순서로 조사되었다(속초시 · 속초시 박물관 2007a: 15). 전쟁 상황에서 월남한 피난민들은 고향 사람들끼리 모여서 귀향의 기회를 엿보거나 남한사회 내 적응 방법을 모색했는데, 이와 같은 고향에 따른 소집단들은 신포마을, 신창마을, 정평마을, 홍원마을, 단천마을, 영흥마을, 이원마을 등 청호동 내 집단부락으로 성장하였다. 함경남도 해안지역의 어민들이 다수를 이루던 청호동은 바다를 접하고 있는 지형적 특징을 이용하여 어업에 집중하게 된다.[10] 월남인들이 유입되면서 속초시는 농업보다 어업의 비중이 커지게 되었고 50년대 후반 속초지역의 어업호황으로 타 지역 거주 난민들이 이곳으로 이주해오면서 난민촌의 규모는 더욱 커졌다(속초문화원 2000: 382). 그림 Ⅱ-4.는 속초 내 난민취락의 형성과정을 보여준다. 청호동의 경우 초기 북쪽의 아랫마을에서 시작하여 점차 남쪽으로 마을이 확대되었다.

이북출신 월남인들의 소부락이 모여 있던 청호동 북쪽 아랫마을은 물론 청호동

10) 1955년 속초 청호동은 전체 호수의 44.3%가 어업에 종사했고 또한 1969년 청호동의 전체 취업 인구 2,478명 가운데 어업 인구가 1,999명으로서 80.6%라는 높은 어업 집중률을 보였다(방상묵 1971: 38, 김귀옥 1999: 169 재인용).

남쪽으로 점점 더 많은 집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며 윗마을이 형성되었고,[11] 청호동 내 어업의 호황으로 이북출신 피난민들은 물론 일자리를 찾아 온 이남 출신들이 마을에 정착하며 청호동에서 이북 사람과 이남 사람이 '섞여' 살게 된다. 피난민들에게 투사되었던 '빨갱이' 담론으로부터 청호동 사람들 역시 자유로울 수 없었기에 그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와 검열이 자행되었다.[12] 하지만 청호동의 피난민들이 속초에서 경험한 사회적 차별은 기타 지역의 월남인 정착촌의 월남인들의 차별 경험에 비해 강도가 덜하다고 볼 수 있다. 속초 자체가 수복지구로서




(장정룡·김무림 1998: 13)

**<그림 II-3.> 속초 난민취락의 형성과정**

<그림 II-3.>의 오른쪽 하단부에 위치한 반도 형태의 청호동을 살펴보면 1954년 아랫마을에서부터 시작되어 시간의 경과와 함께 남쪽으로 마을 규모가 확대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

11) 수복된 후에도 청호동은 1군단 부대와 비행 활주로로 이용되어 청호동의 6통에서 10통 사이(2012년 기준 3통 방면)에는 민간인들의 출입이 통제되었다. 그러나 군정은 청호동 북단인 1통에서 3통 정도의 지역(2012년 기준 10-12통)에는 월남인이 정착하는 것을 묵인했던 것 같다. 따라서 1군단이 1954년 11월 경기도 가평으로 이동(제1군단사령부 1981: 145)하기 전까지는 청호동의 월남인들은 주로 1-3통에 자리 잡았으나, 1군단 이동 후에야 비로소 현재의 10통 방면으로 1, 2집씩 옮겨가며 오늘날의 10통 경계까지 정착촌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었다(김귀옥 1999: 139).

12) 1960-70년대 청호동 사람들은 간첩 의심 및 납북의 위험에 이중으로 시달려야 했다. 실제로 어업 중 소수의 어부들이 납북을 당했으며, 남한으로의 귀환 후에도 무력적인 조사에 시달려야 했다고 주민들은 털어놓았다.

이북출신의 원주민들로 구성되어있고, 청호동 사람들은 불모지였던 청호동을 일구어나가며 정착촌 내의 동향출신 월남인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고 경제활동을 해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김귀옥 1999 제10장 새롭게 만들어지는 사회적 관계 2. 월남인 연결망 참조).

분단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북출신 피난민들이 청호동에서 가정을 이루고 2세대를 출생하며 이들의 청호동 생활은 임시피난이 아닌 정착으로 그 성격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청호동은 속초시의 주류 사회에서 떨어진 주변적 집단으로 인식되었다. 청호동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빨갱이'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검열이 아닌 지역적 낙후성에 말미암은 차별의식으로 변화되어 간다(김귀옥 1999 제11장 2.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참조). 갯배[13] 하나에 의지하여 시내와 교류할 수밖에 없는, 마치 섬과 같은 청호동의 환경과 청호동의 경제적 낙후성은 '가난하고 억센 별종들이 모여' 사는 '청호동 하와이'라는 별칭을 만들어냈다. 그 당시의 청호동은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외부인은 어른이든 학생이든 청호동에 들어오길 꺼릴 정도로 외부인에게 적대적인 곳으로 여겨졌다고 한다.[14]

지속적인 인구 성장을 기록하던 청호동은 70년대 중반을 정점으로 인구가 점차 감소하게 된다. 수온 변화로 인한 명태 어장의 소멸 등 수산업의 침체가 찾아왔고 이에 맞물려 월남인 2세대들이 일자리를 찾아 외부로 다수 이탈해나갔기 때문이다(속초문화원 2000: 383 참조). 청호동이 '자연 녹지대'로 묶이면서 청호동에 기반을 둔 경제력 있는 피난민들이 자산을 축적하기 위해 청호동을 떠난다(김귀옥 1999: 299 참조).[15]

1990년대 청호동은 대대적인 변화를 직면하게 된다. 신수로 개발로 청호동 반도가 절단되어 신포마을, 단천마을 등의 월남인 집단 부락이 수몰되었고 해당 지역의 주민 일부는 청초호 인근에 새로 마련된 미리내마을로 이주하였다. 한국전쟁에 의해 자의로, 타의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청호동 주민들에게 제2의 고향인 청호동의 집터를 잃는다는 것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마을 주민들은 기억한다. 또한 1998년 동 통 · 폐합으로 1968년 대해일 당시 피해 입은 청호동 주민들을

---

13) 청호동의 아랫마을과 속초 시내 사이에 폭이 좁은 바닷길을 쇠줄로 연결하는 무동력선.

14) 빽빽이 들어선 골목집들과 그 사이에서 순식간에 튀어나오는 깡패들 때문에 청호동에 놀러오는 아이들이 없었다고 2세대들은 증언한다. 이 청호동 '깡패'들은 조직적인 폭력집단이라기보다는 10대 비행청소년들 무리였을 것이라고 주민들은 추측한다.

15) 1980년대부터 속초시에서는 청호동의 극심한 인구이탈을 막기 위해 청호초등학교 주변의 윗마을을 중심으로 개인 불하를 시작하였다(Ibid.: 300 참조).

이주시킨 조양동의 새마을이 청호동으로 통합되며 현재의 청호동을 이루게 된다(속초시 2013: 718 참조).

청호동을 대표하는 월남인 공동체가 점차 와해되고 신수로가 건설되며 청호동은 사라질 위기를 겪게 된다. 실제로 청호동 마을 공동체의 중심인 아랫마을의 철거 및 항만물류기지 건설이 계획되며 주민투표까지 실시하게 된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에 방영된 청호동을 배경으로 한 티비 드라마의 한류 열풍, 뒤이어 청호동을 다룬 예능프로그램의 성공으로 인해 청호동의 존폐위기는 자연스럽게 사그라지게 되었고 청호동은 속초의 유명 관광지 중 하나로 떠오르게 된다.

### 2) 청호동의 현재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청호동은 총 세대수 2,235세대, 인구 수 4219명(남자 2,109 명, 여자 2,110명)으로 속초시 전체인구의 5% 정도를 차지한다. 1998년 법정동과 행정동의 재편 이후 조양동에 속하던 새마을을 흡수한 청호동의 면적은 속초시 전체 면적의 0.67%에 해당하는 0.73㎢로, 16개 통 65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속초시 2013: 719). 청호동의 실제 인구수는 속초시가 주도한 통계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청호동이 관광지로 인기를 끌자 재개발을 기대하며 실제 청호동에 거주하지 않지만 청호동에 주민등록을 둔 2세대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비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마을 내 투표인수는 대략 1500명 안팎으로 여겨지고 있다.

오늘날의 청호동은 피난민들이 처음 집터를 잡은 갯배나루가 위치한 아랫마을과 윗 마을이 하나의 반도에 위치하던 과거와 달리 1998년 신수로 건설에 의해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을이 나누어진 모습이다. 갈라진 윗 마을과 아랫마을 사이 신수로 자리에 설악대교가 건설되어 두 마을을 연결한다. 또한 시내 중심가에서 청호동을 직통하는 금강대교가 개통되며 청호동은 예전의 지역적 낙후와 고립을 벗어났다. 청호동을 다룬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인해 관광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청호동 마을의 중심이었던 아랫마을에는 이북음식 전문점이 성황을 이룬다.[16] 아랫마을에서 진행된 방파제의 건설과 그로 인한 해변의 축소 역시 옛 모습을 떠올릴 수 없게 한다. 청호동의 관광지화는 일자리를 찾아 청호동을 이탈한 청호동 2세대 ·

16) 2009년 기준 청호동 내 전체산업종사자 중 1차 산업 종사자는 전무하며 숙박 및 음식점업이 177개 사업체 383명으로 제일 높은 비율을 나타내며 관광업의 성장을 반영하였다(속초시 2009 참조).

3세대를 다시 불러 모으며 경제활성화 효과를 불러일으키지만 동시에 청호동 사람들은 별천지로 변한 청호동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한다.

청호동의 변화는 환경뿐만 아니라 마을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청호동이 관광 상품화하는 실향민 마을을 상징하는 피난민들은 고령화로 인해 소수만이 남아있다. 2007년 5월 속초시립박물관에서 진행한 1900~1940년 출생자를 중심으로 한 속초지역의 동별 실향민 현황 분석에 의하면 청호동에 여전히 속초 전 지역에서 가장 많은 함경남도 출신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속초시 기타 동들과 비교해보면 청호동에 거주하는 1세대의 수는 속초 내 상위 세 번째에 불과하며 함경남도 원적을 가진 1세대들의 수 역시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기에[17] 청호동에 거주하던 월남인들이 기타 동으로 다수 이탈해나갔음을 알 수 있다(속초시 · 속초시 박물관 2007a 참조). 오늘날 청호동에 거주하는 1세대 남성들('아바이')은 윗마을 · 아랫마을을 통틀어 손에 꼽을 만큼 적고 '아마이'로 불리는 1세대 여성들만이 1세대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청호동의 2세대들 역시 1세대들과 함께 집터를 지키며 사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며 타지에서 생활하거나 속초에서 거주한다고 해도 속초 시내의 아파트촌에서 살며 아이들을 양육한다. 청호동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청호동의 2세대들 역시 집은 시내에 두고 청호동으로 출퇴근하는 식의 생활을 하는 이가 대부분이다. 청호동에 거주하는 젊은이들이 줄어들자 청호동의 유일한 교육기관인 청호초등학교는 전교생 60명 미만의 '작은 학교'로 남아있다.[18] 반대로 '토백이' 청호동 사람이 아닌 객지 출신 '외지인'의 전입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 2. 청호동 사람들

### 1) 청호동 사람들의 문화적 정의

청호동 사람 내부의 피난민 · 월남인 · 정착민을 구분하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 청호동 사람들은 자신을 정착민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현저히 늘어나며 정착민 정체성이 보편화되었다. 특히 청호동 2세대들에게서 이북 사람, 실향민, 피난민 정체성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직접 피난을 나온 1세대들이 다수 생존하던 과거에 청호동 사람들의 정체성은

17) 청호동 215명, 노학동 201명, 조양동 126명.
18) 청호초등학교의 입학생의 수는 2012년 7명, 2013년 8명, 2014년 5명에 불과하다.

피난민 · 월남인 · 정착민 중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달려 있었다. 정착촌 월남인을 연구주제로 삼아 속초시 청호동에서 최초로 사회과학적 연구를 진행한 김귀옥은 정착촌 월남인들에 대하여 난민(한국전쟁 중 피난과 함께 정착촌에 들어옴), 정착민(1950년대 초부터 1960년대 초 동향인을 찾아 정착촌에 유입) 그리고 2세대로 나누어 그들의 정체성의 특징을 적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 1세대 및 1.5세대로 표기되는 난민과 정착민은 난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2세대들은 정착민 정체성의 특징을 보인다고 말한다(김귀옥 1999: 441). 월남인 정체성 구성 요소를 다룬 표(Ibid.: 442)를 통해 정체성의 특성을 요약해본다면, 월남 직후 정착촌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난민은 일시적으로 피난 나온 사람이 대부분이어서 귀향 의식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초기 정착 월남인의 경우 동향인끼리 모여 살다 보니 문화적 정체성 인식이 더 커졌다. 후기 정착촌 월남인들에게는 현지 문화에 어느 정도 동화되어 초기에 비해 문화적 특성이 약화되고, 정치적 성향이나 경제 활동에서도 원주민과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경향이 보인다고 적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착민 2세대의 경우는 현지 언어나 문화생활에 동화되어 1세대에 비해 현지인과의 경계는 약해지고 있으나 아직은 정착촌의 생활 문화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들은 정착민 정체성이 강하여 정착촌 내 월남인 연결망에 대한 애착심은 아직 강한 편이지만, 동향 조직에 대한 애착심도 약하고 북한으로의 귀향 의식도 별로 없는 편이다(Ibid.: 443).

오늘날의 청호동은 세대교체와 함께 청호동 내 피난민 정체성은 약화되고 있다. 성년일 당시 피난을 경험한 1세대들이 소수화되고 있으며, 혼인 이전에 피난을 나와 이북보다 이남에서 더 오랜 세월을 살아온 1.5세대들이 마을의 고령자로 대접받으며, 청호동에서 피난민 · 월남인 · 정착민을 구분하는 일은 무의미한 일로 받아들여진다. 1세대들은 물론 1.5세대들도 속초 청호동을 제2의 고향으로 인식한다. 고령자들은 고향 방문과 가족 상봉을 소원하지만 속초를 떠나 고향으로 주거지의 이주를 목표로 하는 강력한 귀향 의지는 찾을 수 없다. 그나마 1세대들은 출생지 및 고수하는 여러 가지 생활 문화에 근거해 자신을 이북사람이라 지칭하지만 그 외 후속 세대들에게는 이북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들의 자식뻘인 2세대들은 “부모가 이북 사람일 뿐이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의심 없이 이남사람으로 여기기에, 스스로에 대하여 이북사람 혹은 이남사람으로 규정하라는 연구자의 질문을 어처구니없다는 듯이 받아들이기도 했다. 이는 김귀옥이 지적하는 정착민 2세대의 특징–정착촌 내 월남인 연결망에 대한 애착심은 아직 강한 편이지만, 동향 조직에 대한 애착심도 약하고 북한으로의 귀향 의식도 별로 없

는 편(Ibid.)-과 일치한다. 이하의 연구대상자가 진술하는 바와 같이 고향을 잃은 '실향민'으로서의 자의식은 이제 젊은 청호동 세대 사이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연구자가 본 청호동 2세대들은 청호동 내 월남인 모임을 개별적으로 가지지 않으며 사회적 연결망 역시 이남 · 이북을 구분하지 않는다. 일례로 청호동 2세대들은 친한 사이에서도 다른 청호동 사람의 가족의 출신지를 잘 알지 못한다. 이처럼 연고 중심, 지역 중심의 청호동 사람이 강조되며 청호동 사람의 모임은 동향모임으로 여겨진다.

흥미로운 점은 이북출신 가족의 2세대들에게 정착민 정체성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데, 스스로에 대하여 '이남 사람' 혹은 '속초 사람'이나 '강원도 사람'처럼 광역적 한국사회에 속해있는 구성원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자신을 '청호동 사람'으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청호동은 이북 피난민들로부터의 문화적 · 역사적 영향으로부터 떼어 놓을 수 없으며 실제로 2세대들이 지닌 지역 정체성으로서의 청호동 사람도 과거와의 연속성 속에서 그 특성을 드러낸다. 2세대들이 청호동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본 이북출신 청호동 주민들과 그들의 생활문화, '청호동 하와이'로 불리던 청호동의 지리적 특수성과 풍족하지 못했던 경제적 사정 모두 속초 '시내사람'과 다른 청호동 사람만의 정체성을 구성하게 된다. 이들에게 '청호동 사람'이란 그저 청호동에 거주하거나 청호동 동사무소에 거주신고가 되어있는 주민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다. 청호동 사람이란 이북 출신 피난 1세대로 청호동을 일군 '아바이 아마이'들로부터 시작한 청호동의 역사를 바탕으로 그들의 삶의 터전인 청호동에 대한 애정과 소속감을 자부하는 사회적 정체성의 일면이다. 청호동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청호동에 대한 소속감과 단합심이다. 청호동 사람들의 단합심 그리고 청호동 사람들끼리의 '의리'는 혈혈단신인 피난민의 불리한 처지를 극복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었던 청호동 사람들의 원동력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하의 연구대상자 역시 청호동 사람의 자격 중 단합심을 강조한다.

<사례 II- 2.>

**청호동 2세대 남성, 부모 모두 함경남도 북청군 출신, 최윤국:** 어찌 보면 다혈질인 것도 있지만은 청호동 사람들이 단합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 장점이 반공심도 있지만은 단합이 엄청나게 잘 되는 데가 청호동이야. 청호동 하와이라 한 것도 단합이 잘 된다는 뜻도 있고 욕도 잘 하고 그러지만은 총괄적으로는 단합이

잘 된다는 거야. ‘뭐 한 번 하자!’ 그러면은 그냥 같이 모아갖고 하고 단합하는 힘이 굉장히 좋은 거야.

2014. 1. 5 심층면담 중

청호동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단합심은 이전부터 그들 사이에서 중요하게 여겨졌다. 과거 청호동이 지역적 고립성과 경제적 열악함에 의해 ‘청호동 하와이’로 불리던 시절, 청호동 사람들이 외부 집단으로부터 배타시될수록 청호동 사람들 내부의 응집력은 강해졌다. 그 당시 청호동 사람들은 남녀노소 따질 것 없이 그들끼리 똘똘 뭉쳐서 자신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상대와 싸워 이기곤 했다고 회자된다. 청호동에서 나고 자란 청호동 2세대들은 그들의 유년시절 속초시 동별 운동경기 중 심판이 청호동에 불리한 판정을 내리자 청호동 주민들이 모두 쏟아져 나와 경기를 중단시켰다는 일화를 기억하고 있었다. ‘청호동 사람이랑 싸우면 그 집 개까지 나와서 물고 늘어진다.’는 말 역시 청호동 사람들의 단합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청호동에 거주하는 인구의 수가 줄어들며 청호동 사람들 사이의 단합심과 소속감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고 있다. 청호동을 개척한 청호동 1세대와 청호동에서 나고 자란 청호동 2세대들에게 청호동 사람이라는 문화적 상징은 굳건히 그 의미와 중요성을 지키고 있지만, 3세대들의 경우 청호동 사람이라는 의식 자체가 많이 약화된 모습을 보인다. 3세대들은 부모가 청호동 사람일지라도 청호동 외부에서 출생하는 이들이 대부분이고 청호동에서 거주하는 기간도 짧기 때문에 청호동에 대한 문화적 지식이 옅은 편이며 청호동에 대한 소속감 또한 약하다. 그러므로 2세대 이후에 자신을 청호동 사람으로 인정하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 2) 청호동 사람과 세대

청호동이 이북 출신 피난민들이 모이며 만들어진 만큼 청호동에서 출신과 고향은 매우 중요한 문화적 관심으로 여겨진다. 여기서 출신과 고향이란 가족 전체 차원에서 고려되어 구분되어 ‘이남 사람’ 혹은 ‘이북 사람’으로 불린다. 청호동에서는 주로 부모의 고향에 따라 어디 사람인지 결정되는데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이북 출신이라면 이북 사람으로 분류된다.

‘이북 사람’인 청호동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이 이북인지, 이남인지에 따라 세대

를 구분한다. 이북이 고향인 청호동 사람들은 청호동 사람들 사이에서 보통 '아바이 아마이'로 불린다. '아바이 아마이'는 피난 시 성인[19] 여부에 따라 1세대와 1.5세대로 나뉜다. 그 중에서도 직접 피난을 경험했으며 피난 당시 성년에 해당하였고 혼인을 치렀던 1세대들은 '진짜 아바이 아마이'로 불린다. 이북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부모 손을 잡고 남한 땅으로 내려오"거나 결혼 전에 피난을 나온 이들은 1.5세대에 해당한다.[20] 이남 출신이더라도 청호동 형성 초기에 정착하여 거주기간이 길고 청호동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고령의 주민들은 젊은 세대들로부터 '아바이 아마이'로 불리며 청호동의 역사와 실상을 속속들이 아는 1세대로 여겨진다. 속초 청호동과 같은 이남에서 태어난 이들은 2세대 및 3세대와 같은 1세대의 자식뻘 세대에 속한다.

청호동 말의 특징과 청호동 사람들이 청호동 말에 대하여 부여하는 문화적 의미 및 말과 정체성의 관계를 탐구하는 본 연구에서, 세대는 피난이 아닌 청호동 내 정착과 생활경험에 초점을 맞추기에 피난 세대가 아닌 청호동 세대로 표기한다. 청호동의 세대로 구분하는 경우 이북 출신에 치중되어 비가시화되었던 이남 출신 청호동 사람 역시 연구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이는 젊은 청호동 사람들 사이에서 확장되어가는 '청호동 사람'의 광역적 정의를 보여주기에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이북에서 출생하였으며 성년이 되어 혼인 이후 한국전쟁과 피난을 직접 경험한 세대들을 청호동 1세대로 정하고 미성년자로 가족들을 따라 피난을 나오거나 성년이지만 결혼 전에 피난을 나온 이들을 1.5세대로 부를 것이다. 이남 출신 청호동 사람의 경우 청호동 형성시기에 정착하여 청호동 사람들 사이에서 '아바이 아마이'로 불리는 고령의 주민들은 1세대로 분류한다. 이남 출신 가족의 자제로

---

19) 여기서 성인이란 단순히 나이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한국사회의 문화적 기준에 따라 성년이 지나고 결혼을 올려서 사회적으로 어른으로 인정받음을 말한다.

20) 1세대들이 고령화로 인해 소수화 되며 1.5세대들이 마을의 원로 자리를 넘겨받고 있다. 청호동 내 원로 자리는 고령화와 함께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로 교체되는 식으로 진행되어왔다. 위에서 언급한 청호동에 거주하는 마을 원로들은 모두 이북 출생으로 전쟁을 직접 체험한 이들이지만 그들 중 성인의 자격으로 피난을 나온 이는 한두 명에 불과하다.

> **청호동 2세대 남성, 아버지가 함경남도 이원군 출신, 김진명:** 지금 노인정에 계시는 분들도 여기 원 원…… 모라 해야 되나 그분들도 피난민 1세대지 1세댄데, 그 분들도 그 때 당시 어른들에 비하면 저 밑에 동생들이야. 그니까 살아 계신 거고 그 때 20대 30대 때 내려오신 분들은 다 돌아가신 거고.
>
> 2013. 11. 20 심층면담 중

1세대들을 지칭하는 민간명칭으로 '1세대'와 '진짜 아바이 아마이'들이 함께 사용되었던 것과 달리 1.5세대들은 그들이 속한 세대로 불리기보다 '아바이 아마이'로 지칭된다.

청호동 본적을 가지는 이들은 이북 출신 가족 자제들인 또래집단과 같이 청호동 2세대로 표기한다. 본 연구가 정하는 청호동 사람의 세대구분은 청호동 사람들 내부에서 통용되는 청호동 사람에 대한 문화적 기준과 구분을 따름을 명시한다.

### 3) 청호동 사람들과 반공 이데올로기

앞서 제시된 심층면담 사례에서 청호동 2세대 남성이 밝히듯이 청호동에 팽배한 반공의식 및 반공 이데올로기로의 편향은 과거 청호동을 대표하는 특징 중 하나였는데 청호동 주민들은 이러한 반공 이데올로기를 청호동 사람의 장점 중 하나로 평가했다. 하지만 현재 미성년일 때 피난을 나온 1.5세대들이 80대에 진입함에 따라 마을의 원로 자리에 세대교체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이러한 변화에 따라 청호동을 지배하던 반공이데올로기 역시 모습을 감추고 있다. 이하의 청호동 1.5세대 남성은 연구자의 마을 정착 초기 연구자에게 "한국전쟁이 남침이오? 북침이오?"라고 물으며 연구자에게 '반공교육'을 실시할 정도로 전형적인 청호동의 반공의식을 드러내곤 했다. 하지만 이후 그는 연구자와 심층면담 중 청호동 사람들의 월남 동기는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었다고 말한다.

<사례 II- 3.>

심층면담 중 청호동 정착 초창기의 모습에 대한 연구자의 질문에 연구대상자가 답하는 장면

**청호동 1.5세대 남성, 함경남도 북청군 출신, 김성열:** 그러니 피난 나온 사람들은 이북에서도 바닷가에서 고기 잡아먹던 사람들이 피난 나왔으니까 모두 그러다보니 똑똑한 사람들은 안 나왔지. 생각해봐요. 똑똑한 사람들은 다 기관에 있는데 빨갱이들이니까. 여기서도 그렇지. 똑똑한 사람들은 다 기관에 있지 시청이고 어디고 군청에 있고 법원에 있고 경찰청에 있고. 이 사람들이……. 생각해봐요. 자들이 나오면 그런 사람들부터 조지지 바닷가에서 배타는 사람들이 뭘 아오. 배타는 사람들이 여기 모두 피난 나온 거지 똑똑한 사람들이야 피난 나온 거 없지. 생각해봐요.

2013. 11. 10 심층면담 중

청호동 사람들의 월남 동기는 생존을 사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회고되며, 그들이 강조하는 반공의식은 남한 사회 내에서 북한 주민이었던 자신의 타자화를 방지하는 보호막이자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도구적 목적에서 비롯되었음은 이미 청호동을 다룬 이전의 연구가 밝힌 바이다(김귀옥 1999). 청호동에 대한 선행 연구로부터 10년 이상이 흐른 현재, 연구자가 만난 청호동 1세대 및 1.5세대들도 자신의 피난경험에 대하여 반공의식이 주된 동기가 아니라 살기 위해 강요된 비자발적 선택이라고 평하고 있었다. 위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전쟁경험세대는 전쟁 및 피난 경험을 통해 반공주의를 선전하기보다는 전쟁으로 인해 받은 고통을 털어놓았으며, 자신이 겪은 전쟁의 기억을 바탕으로 반전(反戰)을 주장할 만큼 마을의 정치성에 대한 분위기가 사뭇 바뀌었다. 청호동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마을 유지들은 여전히 굳건한 반공의식을 드러내지만, 보통의 주민들은 반공의식에 편향된 청호동의 정치관에 무관심하거나 그를 과거지사로 평가한다. 피난 1세대 남성들이 줄어들며 월남인 단체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수도 예전에 비해 줄어들었다. 피난 2세대들의 경우 월남인 단체에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월남인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이들도 월남인 단체들을 일종의 친목관계로 인식하곤 하였다.[21]

청호동 내에서 세대교체가 진행되며 1세대가 고대하던 귀향과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전체적인 관심 역시 감소하였다. 청호동은 남한에 존재하는 최대 규모의 월남인 정착촌이라 평가되며 상봉 소식이 들릴 때마다 청호동 사람들의 사연이 방송에 소개된다. 하지만 청호동 내에서 정식으로 이산가족 상봉회담에 참가한 사람은 여태까지 단 1명뿐이다.[22] 가족과의 만남이 지속적으로 좌절되자 청호동 사람들은 이산가족 상봉을 포기하게 되었다. 청호동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사되지 않는 이산가족 상봉 회담에 대하여 그들은 북한 측이 월남인 가족에 대한 상봉을 불허하기에 자신이 이산가족 상봉에서 누락될 수밖에 없다는 나름의 담론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이북의 가족을 만날 수 없는 현실을 합리화한다. 청호동에 남아있는 1세대, 1.5세대들 사이에서도 이북에 남은 가족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미련스러운 일'로 여겨지며 관련 주제에 대하여 침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청호동에서 북한으로의 귀환을 그리는 '실향민'들은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일례로 현

21) 이는 청호동에서 진행한 1999년 김귀옥의 연구가 발견한 청호동 사람들의 정착민 정체성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반공전사에서 실향민으로 변모하는 월남인 정체성의 내부적 변화와 일치한다(김귀옥 1999, 2009).

22) 다수의 청호동 1세대와 1.5세대들이 중국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 이북에 있는 가족과 연락을 시도한다.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회담 재계를 계획하며 2014년 1월 집권당 지도부가 청호동을 방문하여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23] 간담회의 주제가 이산가족 상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호동 주민들 및 지역단체 대표들은 청호동 내에서 이루어질 지역사업 등에 대한 지지만을 요구하고 이산가족 상봉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도 직접 언급하거나 제안하지 않았다. 전쟁 후 출생 세대가 청호동 사람의 구성 비율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며 청호동 사람들의 관심 주제도 이산가족 상봉과 통일에서 '제2의 고향'인 청호동의 지역사회 발전으로 교체되는 것처럼 보인다. 청호동과 청호동 사람들을 둘러싼 집단 내외부의 변화는 다음에서 살펴볼 청호동 말 사용 및 청호동 말에 대한 언어이데올로기의 이해를 도울 것이다.

23) 고명진 기자,<새누리당 지도부 청호동 아바이마을 방문>, 설악신문 2014년 1월 13일 http://soraknews.co.kr/renewal/kims7/bbs.php?table=news&query=view&uid=30642, 검색일 2014년 4월 15일.

# Ⅲ. 청호동의 세대와 청호동 말 사용

본 장은 청호동 말의 언어적 특징과 청호동 내부에서 발견되는 청호동 말에 대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살피고, 오늘날 청호동 사람들의 말 사용, 특히 대화 내 말 선택의 요인을 다룰 것이다. 청호동 말의 실제 사용 양상은 세대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세대 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청호동 말 선택 및 그것의 사용에 대한 설명과 평가를 제공하는 언어이데올로기가 상이하게 변하며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청호동의 세대에 따른 언어이데올로기에서 발견되는 변화는 각 세대가 겪는 생활의 경험 및 그들을 둘러싼 사회적 변화에 동반하여 발생한다.

## 1. 청호동의 변화와 청호동 말

### 1) 청호동 말의 언어적 특징

지금까지 청호동 말을 다룬 소수의 연구는 국어학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국어학 내 청호동 말 연구는 중부 방언권인 속초에서 청호동 사람들에 의해 국지적으로 동북 방언인 함경남도 방언이 계승된다는 점을 가장 큰 특징으로 지적하고, 청호동 거주민들 중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함경남도 북청군 출신의 피난 1세대를 중심으로 청호동 말의 음운적, 문법적, 어휘적 특징들을 기술하는 데 집중하였다(장정룡 · 김무림 1998, 최승기 2000, 김무림 2000). 이들의 연구는 청호동 말의 문법적 특징과 사용 용례를 보여주는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청호동 말에 대하여 속초 방언과 함께 평안도 · 함경도 · 황해도 등의 이북 방언이 섞여있는 착잡성을 특징으로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청호동 주민 중 함경남도 북청군 출신이 다수를 이루기에 북청 지역의 방언만을 핵심적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청호동 말과 북청 지역 방언에 집중한 연구는 청호동 말의 특징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며 청호동 말에 대한 부분적인 파악만을 가능케 한다. 청호동 말이 함경남도 방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인정해야 마땅하지만 청호동 말을 오직 '북청 말'과 비교 · 대조하는 것은 청호동의 내부적 다양성을 단순화시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청호동 말에서 피난 1세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기존의 연구가 밝혀낸 청호동 말의 특징을 발견하기 힘들었다. 청호동 사람들의 세대교체가 일어나며 청

호동 말보다 표준어의 사용이 우세해졌기 때문이다. 청호동의 구성원 중 방언 연구의 제보자들인 피난 1세대들의 수는 예전보다 더 줄어들어 이전의 청호동 말을 듣기 힘들다. 그러므로 기존의 연구에서 근 15년이 흐른 현재, 청호동 말의 독특한 특징으로 여겨졌던 성조 유지, 구개음화의 현저한 진행, 'ㅂ, ㅅ' 불규칙 용언의 규칙 활용 등(김무림 2000: 273)은 더욱 축소됐다. 그들의 자식뻘인 2세대들은 학교 교육과 객지생활 경험으로 인해 청호동 말보다는 표준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제보한다. 청호동 1세대나 중장년층에 속하는 2세대들은 기존의 청호동 말 연구가 다룬 언어 현상을 익숙하게 받아들이지만, 청호동의 청년층인 젊은 2세대들은 이를 과거 청호동의 '아바이 아마이'들이 쓰던 말로 기억한다. 3세대들 역시 2세대와 함께 청호동을 떠나 성장하는 이들이 대부분으로 청호동 주민들은 오늘날 청호동에서 "말이 이어질 수 없다."고 말한다. 이처럼 청호동 사람들 사이에서 표준어 사용이 보편화되며 청호동은 청호동 말과 기타 언어(표준어 혹은 '속초말' 등)로 이루어진 다중방언[24] 사회로 불릴 수 있다. 과거의 청호동이 다양한 이북 출신들로 구성되어 이북방언과 속초방언이 주로 사용되었다면, 현대의 청호동은 청호동 말, 서울말, 속초말[25] 등이 대화 상황과 상대에 따라 구별되어 사용되고 있다.

청호동의 언어적 특징이 다양한 측면에서 축소되었지만 그 독특한 특질들이 완

---

24) 청호동 말은 언어 형식은 물론 언어의 사회적 사용 면에서 속초말 혹은 서울말과 구별된다. 그렇기에 청호동은 특정 언어 공동체에서 둘 혹은 그 이상의 언어를 함께 사용하는 다중언어(multilingualism) 사회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단일 국가 내 여러 지역 방언(regional dialect)의 교차 사용을 사회적 차원에서 다루기에 청호동을 일종의 다중방언 사회로 정하기로 한다.

25) 속초 방언은 영동 방언에 속하는 동시에 함경 방언과 같은 북부 방언과 경상 방언인 동남 방언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면서, 영서로 연결되는 중부 방언의 요소도 함께 지니고 있는 방언의 삼각지대에 속한다(장정룡 · 김무림 1998: 153). 영동 방언권에 속하는 강릉 지역이나 삼척 지역에 비교할 때 속초 방언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지닌다(민현식 1991, 장정룡 · 김무림 1998: 154 재인용).

가. 'ㅂ, ㅅ' 보존형이 우세하다.
나. 단어나 문장의 고저 억양이 심하다.
다. '-나?'보다 '-니?'가 우세하다.
라. '-니다. -니까?'가 '-네다, -네까?'에 가깝게 발음된다.
마. 일부 단어의 형태가 다르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지인 청호동에서 지칭되는 '속초말'은 매우 부드럽고 "연한" 서울말과 소리가 크고 거친 청호동 말의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말 혹은 시내 사람들이 하는 말로 여겨진다. 속초 시내의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내와 교류가 잦은 젊은 세대일수록 속초말과 청호동 말의 특징과 사용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젊은 청호동 사람들에게 속초말의 사용은 매우 일상적이다.

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우선 청호동 말은 부정부사 '아니'의 사용이 잦다.[26] [예: 오늘은 아랫마을에 아니 가니.] 형태론적 측면에서 청호동 말은 종결어미 '-니' 그리고 부정 의문어미 '-않니'가 주로 사용된다. 보통 표준어에서 연결어미 혹은 물음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로 쓰이는 '-니'와 달리, 청호동에서는 화자가 의도하는 문장의 양상이 의문문보다는 평서문에 가까울 때에도 어미 '-니'를 사용한다.[예: 서울에서 온 학생이잖니.] 청호동 말의 형태론적 특징은 화용론과 뗄 수 없다. 청호동 말을 발화상황에서 분리해 문법적으로만 분석한다면 그 의미는 의문문으로 판정되지만 대화 맥락과 결부될 때에 화자가 의도한 의미를 알 수 있다. 의문문의 경우에도 부정소 중 부정 서술어 '아니하다'를 이용한 의문문이 대부분을 이루는데 종결어미 '-니'와 결합하여 '-않니'가 주로 쓰인다.

부정 의문어미 '-않니'와 감탄사 '아니', 부정소 '아니-'를 포함하는 다양한 부정표현의 경우 형태론의 차원뿐만 아니라 음성학적 영역에서도 특수성을 지닌다. 부정표현에서 주로 나타나는 비모음화가 바로 그것이다. 비음인 'ㄴ[n], ㅇ[ŋ]'이 주로 '이' 모음 앞에서 앞 모음을 비모음화 시키고 탈락하는 비모음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청호동에서 이와 같은 비모음화는 앞 모음이 비음화와 더불어 장음화가 된다는 것이 특징이다(김무림 2000: 253-254).[예: 않니[아~:이니], 아니야[아~:이야], 아닌[아~:이], 아니구[아~:이구], 아니지[아~:이지]]

청호동에서 주로 사용되는 이북 방언 어휘는 국소적인 호칭어 사용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장성하여 자식을 둔 아들과 그의 부인을 이르는 '아애비'(S)와 '아애미'(SW), 딸의 남편을 이르는 '싸우'(DH), 그 외 아바이, 아마이, 간나/갈라, (아)새끼 등이 그것이다. 청호동 특유의 호칭어에 대하여 청호동 사람들은 "칠십 먹은 오빠가 육십 여동생보고 길거리에서 이 갈라야!"라고 불러도 어색하지 않고 "이북식으로 집안에서 형을 언니라고 부르는 집도 있더라."[27] 라고 공공연히 말한다. 하지만 이북식의 친척 호칭어 사용은 청호동 사람들 사이에서도 드물게 나타나며, 소수의 청호동 1세대 고령자들만이 사용하고 있었다. 연구자가 몇몇 이북 방언 어휘의 뜻을 물어보는 경우 응답자가 청호동 1세대 혹은 1.5세대에 해당할지라도 그에 대해 참 오랜만에 들어본다고 대답할 정도였다. 예를 들어 80대에 속하는 이북 출신 노인들은 '아애비', '아애미', '싸우'를 사용했으며 젊은 세대에 속하는 다른 주민들은 그 말을 알고 있지만 '아범', '어멈', '사위'를 사용한다고 말하

26) 이는 함경방언과 새터민의 발화에서도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이기도 하다(곽충구 1998, 이홍식 2007).

27) 2014. 1. 8 심층면담 중

였다. ‘아바이’, ‘아마이’ 역시 비친척 관계에서만 사용되고 있었으며 ‘간나/갈라’, ‘(아)새끼’ 등의 호칭어들 역시 그 의미를 아는 청호동 사람들 사이에서 협소하게 쓰이고 있다.

전통적으로 ‘간나(갈라)’와 ‘(아)새끼’의 경우 상황에 무관하게 친척 및 비친척 연하자에 대하여 호칭어로 사용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들 어휘는 친척 내 동항렬 및 손아래 남녀는 물론 비친척 간 동연배 혹은 손아랫사람을 부를 때 흔히 사용되며 절대 연상자를 지칭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또한 이들은 비격식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존댓말과 공기(co-occurrence)하면 어색하고 언제나 반말과 함께 나타난다. 이상의 어휘는 일종의 낮춰 부르는 말로 인식되지만 의도적으로 남에게 모욕을 주는 욕설과 구분된다. 한 청호동 2세대 남성은 “새끼, 간나는 표준어야. ‘개-’, ‘씹-’ 이런 게 붙어야 욕이지 다른 건 친근감의 표현”[28]이라고 말했다. ‘개-’, ‘씹-’이 붙어도 막역한 사이라면 ‘개새끼’, ‘개간나’, ‘쌍간나’ 등의 호칭어가 허용되기도 한다. 다른 청호동 2세대 남성 역시 ‘간나새끼’ 등의 청호동 말이 거칠게 들려도 ‘마음속으로 우러나’서 하는 욕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청호동에서 ‘부모들이 “간나새끼 어디 가니?”’라고 말하면 그에 대해 화를 내지 않고 존댓말로 다시 대답하는 걸로 보아 청호동 특유의 어휘를 ‘도시의 사투리’로 간주해야 한다고 그는 설명했다.[29]

청호동에서 ‘-메’, ‘-지비’ 등의 함경남도 특유의 방언 어미들은 그리 많이 사용되지 않지만[30], 함경남도 특유의 단순한 말단계(speech levels)는 존댓말에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합니다-하오-하네-한다’의 4단계로 이루어지는 중부지역의 일반적인 말단계 모델과 비교할 때 청호동의 존댓말은 함경남도 방언의 영향을 받아 훨씬 단순한 구조를 가지는 것이 그 특징이다. 전통적인 청호동 말의 말단계는 ‘존대’와 ‘하대’로 나뉜다.[31] 청호동에서는 ‘이랬소, 저랬소’하는 ‘하소’체를 ‘존대한다’고 표현하였으며 ‘야 -했니? 이랬니 저랬니’, ‘-ㄴ다’와 같은 표현을 ‘하대한다’고 말한다. 단순한 말단계와 함께 선어말어미 ‘-시-’가 발달하지 않았으며 ‘하대한다’고 불리는 표현이 상대적으로 넓은 연령차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점도 청호동 말의 특징 중 하나이다. 청호동의 노인들은 자신보다 높은 지위를

28) 2013. 9. 4 참여관찰 중
29) 2013. 11. 20 심층면담 중
30) 이러한 방언어미들 역시 소수의 이북출신 고령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31) 함경도 방언은 《높임》의 말차림에서 《존대》와 《해요》를 가르지 않으며 《하게》에 해당하는 어미는 없다. 이런 점에서 함경도방언은 평안도방언, 경기충청도방언, 전라도방언과 구별된다고 하는데(정용호 1988: 226-227), 청호동의 존댓말 역시 ‘하게’체가 쓰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함경도 방언의 영향을 받았음을 예상할 수 있다.

가진 '이상 사람'에게는 '-소'하는 존댓말을 사용해야 하며, 하대하는 말은 서로 친구를 맺을 수 있는 '우 아래 세 살' 차이가 날 때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대화참여자가 서로 친밀한 관계인 경우 위 아래로 다섯 살까지 '하대' 표현을 사용하여 대화한다고 답하였다. 하지만 실제 청호동의 '하대' 표현은 5세 이상 10세 미만의 더 넓은 연령 차 사이에서도 쓰이고 있었다. 청호동의 말단계를 보여주는 예문은 다음과 같다.

기본형: 밧줄 잡다. / 말뚝 박다.

명령형

아바이 밧줄 좀 잡소.[32] / 아바이 말뚝 좀 박소.

이넘아 밧줄 좀 잡아라. / 이넘아 말뚝 좀 박아라.

의문형

아바이 밧줄 잡았소? / 아바이 말뚝을 박소?

이넘아 밧줄 잡았니(잡았니아)? / 이넘아 말뚝을 박니(박니아)?

서술형

야 밧줄 잡았소. / 야 말뚝 박소.

그래 밧줄 잡았다. / 그래 말뚝 박는다.

청유형

아바이 밧줄 좀 잡기오.[33] / 아바이 말뚝 좀 같이 박기오.

이넘아 밧줄 좀 잡자.[34] / 이넘아 말뚝 좀 같이 박자.

32) 이상 사람에게 명령형을 사용하는 심리적 부담감을 회피하기 위해 청유형 존대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예: 잡기오. 박기오.]

33) 청유형 존대 표현으로 '-세'도 사용할 수 있다. [예: 잡세. 박세.] 하지만 '-세'를 함경남도 말로 인정하지 않는 제보자도 존재한다.

34) 청유형 하대 표현으로 '-자야'도 사용할 수 있다. [예: 잡자야. 박자야.]

| | 명령형 | 의문형 | 서술형 | 청유형 |
|---|---|---|---|---|
| 1. 존대 | -소 | -소 | -소 | -기오 |
| 2. 하대 | -아라 | -니<br>(-니아) | -는다 | -자 |

**<표 Ⅲ-1.> 청호동의 말단계 구분과 대표적인 종결어미**

청호동이 관광지화되고 외부인과의 접촉이 늘어나며 청호동의 존댓말 역시 바뀌고 있다. 청호동 내 증가하는 상업적 장면과 함께 격식적 상황 역시 늘어나며 존댓말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서울말이 청호동 말을 대체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청호동 사람일지라도 관광객이나 외부인을 상대할 때에는 선어말어미 '-시-'의 사용이 보편화된다. 젊은 사람들은 존댓말의 말단계를 더욱 섬세하게 구별하는데, 이전처럼 '하오'체를 사용하는 것은 어색하다고 느끼며 '해요'체는 물론 '습니다'체도 빈번하게 사용한다. 이하의 청호동 2세대는 자신이 "이북말씨"를 쓴다고 인정하지만 사회생활을 할 때는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듯이" 그렇게 말하지 않으며 "-입니다", "-습니다" 하는 '습니다'체를 쓴다고 말한다.

<사례 Ⅲ- 1.>

**청호동 2세대 남성, 부모 모두 함경남도 북청군 출신, 최윤국:** 응 이북말씨 쓴다고 어디 출신이냐고 물어도 보고 뭐 여기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뭐…….

**연구자:** 보통 어르신들이 반가워하시겠네요?

**최윤국:** 그렇지. 젊은 사람들한테는 오해받는 부분도 있기야 있지. 지금처럼은 하지 않아 지금처럼은. 우리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듯이 그렇게는 안 해.

**연구자:** 아……?

**최윤국:** 그렇게는 안 하지. '감사합니다 ○○계 누굽니다' 이렇게 얘기하다보면은 상대방 아는 사람들은 아이구 얘기하다보면은 '아 청호동 출신이요?' 하면 '예 청호동 출신입니다' 하고……. -후략-

2014. 1. 11 심층면담 중

청호동 말을 통사론적으로 살펴보면, 어미나 절을 이용하여 문장을 확대하는 복문보다는 단문의 나열이 주를 이룬다. 청호동 말보다 속초말이나 서울말이 익숙하

다고 밝힌 3세대 여성은 함경남도 북청군 출신의 자신의 친할머니가 쓰는 말에 대해 “우리 할머니? ‘뭐뭐**한다**! 뭐뭐**한다**! **아니다**!’ 이러지.”라고 묘사했다. 또한 청호동 사람들 사이에서 “청호동 말 볼 것 없어, 욕만 알면 돼.”라고 평가될 정도로 비속어가 자주 사용된다는 점도 청호동 말의 특징 중 하나이다.

앞서 제시한 청호동 말의 특징들보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제시되는 청호동 말의 특징은 청호동 말의 소리, 곧 청호동 말의 음성학적 차원이다.[35] 청호동 말에 대하여 청호동 사람들은 ‘악센트가 있다.’, ‘끝이 높다.’, ‘말소리가 크다.’, ‘억양이 세다.’ 등의 특징을 공통적으로 지목하였다. 청호동에서 식당을 경영하는 이하의 청호동 2세대 역시 청호동 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높고 투박한” 액센트라고 여긴다.

<사례 Ⅲ- 2.>

**청호동 2세대 남성, 아버지가 함경남도 북청군 출신, 권은식:** 여기 말투가 악센트가 높고 투박해서 그렇지 강릉말투랑 틀리다고. 강릉 말투를 강원도 사투리라 그러잖아. 그게 아니라고. 관광객들은 여기 오면 우리가 강릉 말투로 말하는 줄 알잖아 그게 아니라구. 강릉 말하고 여기 말이랑 틀리다구. 근데도 그걸 강릉 말을 강원도 사투리, 강원도 말이라고 해가지고 희한하게 발음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우리 말투가 악센트가 높고 투박해 ((웃음)) 나도 손님들 대하니까 친구들이 와서 ‘야 니 말투 좀 고쳐라 야 손님들……(듣기 안 좋다)’ 야 임마 왜 나 내 말투 그대로 쓰는데 거기다 가장(假裝)해가지고 ((높은 목소리를 흉내 내며)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쎄요~’ 그러냐? 하하하

2014. 1. 8 심층면담 중

청호동 말의 음성학적 차원의 강조, 특히 ‘악센트가 있다.’, ‘끝이 높다.’는 서술은 청호동 말에 여전히 성조(tone)가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성조란 어휘 의미의 변별 기능을 수행하는 높이를 말하는데, 한국어에는 경남 방언, 경북 방언, 강원도 영동 지역 방언, 함경도 방언, 연길 방언 등에 성조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이

35) 소리의 길이, 높이, 세기 등에 의해 낱말에 의미의 차이가 생길 경우 음운학의 범주에서 연구되어야 하겠지만 이러한 요소가 의미의 차이를 일으키지 못할 때는 단지 운율적 요소(prosodic feature)로서 음성학의 범주에 포함된다(구현옥 2010: 141).

호영 1996: 245). 이중 함경도의 성조는 저조(L)와 고조(H)로 이루어져 있고 매 단어에 음조가 상대적으로 고정되어있다. 그러므로 함경도 방언에서는 음절을 단위로 하여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음조가 얹히는 것이 아니라, 단어를 단위로 하여 음조형이 얹히며, 일부 동음이의어들이 음조에 의하여 식별된다(전학석 1993: 105-107 참조). 하지만 이전의 연구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청호동에서 성조의 변별기능은 미약한 편이다(김무림 2000: 253). 함경도 방언의 특징인 성조가 청호동에서 그대로 원형을 유지한다고 보기 힘들고 성조 구사의 개인차도 심한 편이다. 이처럼 성조의 특성은 소수의 1세대에게 미약하게 남아있으나 "쎈 억양"은 청호동 말의 보편적인 음성학적 특징으로 강조된다.

<사례 Ⅲ- 3.>

**연구자:** 억양이 쎄다는 게…… 저도 쎄다는 말 되……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청호동에서? 근데 쎄다는 게 강하다, 뭐 크다 이런 뜻인가요? 억양이 쎄다는 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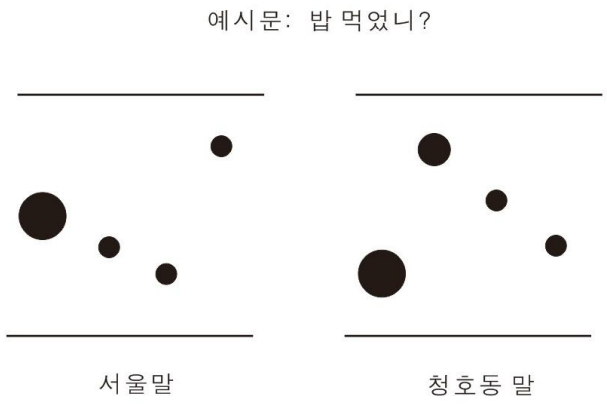
**청호동 2세대 남성, 아버지가 함경남도 북청군 출신, 민국환:** 억양이 쎄다는 거는 내 얘기는 앞에 부분에 억양이 좀 있는 거 같애 모든 게, 아니면 뒤를 올린다든가. 에 말 자체가 좀 쎄게 나오는 거고 에 부드럽게 하는 말도 좀 이렇게 억양 자체가 그렇게…… '뭐뭐 ˈ했-니(↑)' 'ˈ그으-랬니(↑)' '뭐뭐 ˈ했-니(↑)' 'ˈ그으-랬니(↑)' 앞이나 뒤로가. 뒤에 억양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요런 식으로.

2013. 10. 29 심층면담 중

청호동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청호동의 '쎈 억양'은 청호동 말의 강세 표현과 관련이 있다. 국어는 고정 강세어이기 때문에 강세가 어휘 의미의 변별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강세의 유무나 위치에 의해 구와 복합어의 의미가 구별되며 문장의 강조[36]를 담당한다(이호영 1996: 200-201 참조). 청호동 말에서 나타나는 강세도 강세의 유무 혹은 위치에 따라 구와 복합어의 의미변별 및 문장 내 강조 기능(accentual function)을 주로 수행한다. 강세는 의미의 강조는 물론 강세가 얹히는 말토막[37]의 리듬패턴을 형성하기도 한다.

36) 문장을 발화할 때 문장 차원에서 부과되는 강세를 악센트(accent) 혹은 문장 강세(sentence stress)라 한다(이호영 1996: 200).

청호동 말은 서술부 중 동사의 영역이 강조되는 단순한 통사구조를 가지고 있다. 곧 술어부분에 집중되는 단순한 통사구조에 강세는 동사에 주로 얹히며 문장의 후반부가 강조되는데 이에 의해 문장 전체에 얹히는 억양 패턴인 문장 억양(sentence intonation)(Ibid.: 219)이 상승조라고 느끼게 된다. 특히 청호동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미인 '-니', '-않니'를 사용하는 경우 서울말이 마지막 음절인 어미 '-니'에 강세가 들어가는 것과 달리 청호동 말에서는 어미 앞에 붙는 어간에 강세가 나타나서[38] 어미 '-니'는 상대적으로 하강한다. 이는 문장의 후반부에 위치한 말토막에서 나타나는 강세에 의해 전체적인 억양은 상승조이지만 강세가 위치한 말토막의 리듬패턴은 단순 상승조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가는 인상을 준다.




**<그림 Ⅲ -1.> 서울말과 청호동 말의 억양패턴 비교**

청호동 말의 음성학적 특징은 다음과 같이 문장 내 강세의 위치와 강세가 나타나는 말 토막의 리듬패턴에 의해 '쎈 발음'을 갖게 된다. 이러한 음성학적 특징은

37) 말토막(rhythm unit)이란 하나의 강세 음절을 중심으로 영 개 이상의 비강세 음절(들)이 긴밀하게 연결된 리듬 단위이며, 말토막에 얹히는 리듬 패턴은 강세 음절의 위치에 의해 결정된다(이호영 1996: 196).

38) 국어에서 악센트(문장 강세)는 말토막의 한 음절에만 부과되며, 악센트를 받은 음절은 높이 돋들림과 리듬 돋들림을 수반해서 말토막 안의 다른 음절(들)보다 더 돋들리게 된다. 강세의 이러한 기능을 절정적 기능(culminative function)이라 한다(이호영 1996: 202-203).

함경도 방언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39]

### 2) 청호동 말의 민간명칭

청호동 사람들 사이에서 청호동의 말을 가리키는 민간 명칭(folk term)의 발달은 언어공동체 내부에서 나타나는 청호동 말에 대한 상이한 문화적 의미들을 보여준다. 청호동 말을 이르는 민간 명칭의 종류로 '청호동 말'과 '이북말', '함경도 말', '북청 말'이 있다. '청호동 말'은 청호동 말의 주된 사용지역을 중심으로 명명한 명칭이며 '이북말', '함경도 말', '북청 말'은 청호동의 역사와 구성원들의 출신을 의식한 명칭으로 그 명칭을 통해 이북 지역 혹은 이북 방언으로부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다음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청호동 사람들은 '청호동 말'과 '이북말'을 같은 뜻으로 인식하는데, '이북말'은 이북 출신 및 피난 경험이 중심이 되는 청호동의 사람과 공간에 대한 정의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사례 III- 4.>

현지조사를 시작한 연구자가 마을 유지의 개인 사무실에 들려 처음 인사를 드리고 연구 목적을 설명하는 장면.

**연구자:** 청호동 말에 대해서 공부하러 왔어요.

**청호동 2세대 남성, 어머니가 함경남도 북청군 출신, 정석구:** 아 이북말 공부하러 왔구나? 여기 이북말 많이 쓰지.

**연구자:** 이북말 아직 쓰세요?

**정석구:** 그럼 많이 쓰지, 이북 사람이 한 칠 팔십 프로 되는데.

2013. 8. 23 참여관찰 중

대다수의 청호동 사람들 사이에서는 '청호동 말'과 '이북말'은 동의어로 쓰이며 '이북말'이라는 명칭에 대하여 특별한 거부감을 드러내지 않는다. 더 나아가 청호

39) 함경도 방언의 발화 속도와 고저 및 강세와 억양을 실험음성학적 방법에 의하여 문화어와 비교한 정용호(1988)는 함경도 방언은 문화어에 비하여 '소리토막의 첫소리에 힘을 주고 세게 발음하며', '모든 소리마디의 발음을 전반적으로 더 세게 발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곽충구 1991: 393).

동 사람들 사이에서 ‘청호동 말’보다 ‘이북말’이 청호동 특유의 말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애용되기도 한다. 이상의 사례와 같이 청호동 말에 대한 연구관심을 소개하는 연구자에게 청호동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이북말을 배우러 왔구나!”라며 ‘청호동 말’을 ‘이북말’로 고쳐서 지칭하는 경우를 여러 번 볼 수 있었다. 또한 연구자가 의도하는 청호동 말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즉 ‘이북말’ 공부에 대하여 청호동 사람들은 이북출신 피난민에 의해 발전되어 온 청호동의 역사, 청호동 내 이북출신 주민들의 삶, 청호동 말과 이북말의 연계성을 언급하며 청호동 말에 대한 연구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청호동 말을 이북말로 지칭하는 이들은 이북출신 피난민들로부터 시작한 마을의 기원과 그 역사를 강조한다. 전장에서 보인 바와 같이 이북 출신 피난민들이 모여 살던 월남인 집단촌으로서의 청호동은 지나간 과거의 기록으로 남아있으며 현재 피난 1세대들은 물론 그들의 자식들도 청호동을 다수 이탈하며 ‘실향민들의 제2의 고향’으로서의 청호동은 점점 축소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수치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청호동 사람들 사이에서 청호동은 이북에서 나온 사람들이 만든 곳이며, 여전히 이북사람들이 모여살고 있다는 주장은 건재하다. ‘이북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청호동 말은 이북 피난민들이 살던 청호동 역사의 유산으로 남아 피난민 공동체인 청호동으로 유지된다는 청호동 사람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북말’보다 청호동의 구성원들의 출신을 더욱 세밀하게 지목하는 명칭으로 ‘함경도 말’과 ‘북청 말’이 있다. 청호동 1세대와 1.5세대들은 청호동 말을 가리킬 때 ‘이북말’과 ‘함경도 말’을 혼용하며 그 둘에 대하여 별 차이를 느끼지 못 하는 듯 했다. ‘북청 말’ 역시 청호동에 자리 잡은 이북 출신 피난민들 중 다수가 함경남도 북청군 출신이기에 그들에게서 받은 언어적 영향을 뜻하는 명칭 중 하나로 여겨졌다. ‘북청 말’과 같은 경우 ‘이북말’이나 ‘함경도 말’보다 더욱 세분화된 지리적 구역에서 따온 명칭이지만 화자 개인의 출신이나 고향과 관계없이 청호동 말을 지칭하는데 쓰인다. 예를 들어 함경남도 원산출신인 한 1.5세대 남성은 자신의 평소 말씨에 대해 “단천, 북청보다 순한 원산 말”을 쓴다고 묘사했지만 “여기(청호동) 친구들 만나면 북청 말”이 나온다고 답했다.[40]

‘함경도 말’, ‘북청 말’을 ‘청호동 말’의 다른 이름으로 평이하게 받아들이는 고령자들과 달리 청호동 2세대 및 3세대들은 청호동 말에 대하여 ‘이북말’ 이외에 북한 지역에서 명칭을 따오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그러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청호동 2세대와 3세대들이 ‘함경도 말’ 및 ‘함경남도 말’, ‘북청 말’등의 명칭

40) 2013. 8. 30 참여관찰 중

의 사용을 지양하는 주된 이유로, “뭐가 속초 말이고 뭐가 함경도 말인지 모르는” 자신의 이북방언에 대한 언어 지식의 부재를 공통적으로 지목했다.

‘함경도 말’로 부르기를 지양하고 ‘이북 말’로 청호동 말을 지칭하는 2세대와 3세대들 사이에서도 그들이 지닌 청호동에 대한 문화적 지식의 차이에 따라 명칭을 다르게 수용한다. 청호동이 이북출신 피난민 공동체로 번성하던 시기에 청호동에서 유년기를 보낸 2세대들은 청호동 말이 오직 ‘함경도 말’ 혹은 ‘함경남도 말’, ‘북청 말’ 등으로 지칭되는 것에 반감을 표현하는데 이는 그들의 유년기 시절 경험과 기억에서 비롯된다. 청호동에서 태어나 자란 2세대들은 이북출신으로 피난을 직접 경험한 ‘아바이 아마이’들과 이웃으로 지내며 청호동에서 그들과 함께 생활했다. 그들이 본 ‘아바이’들은 오직 함경남도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었고, 청호동 내에서 함경남도는 물론 함경북도, 황해도, 평안도 등 다양한 이북 지역 출신이 모여 살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러한 2세대들에게 청호동 말을 북한의 특정 지역을 따와서 지칭하는 명칭들은 자신이 기억하는 청호동을 부정하고 청호동 내 이북출신 주민들의 내부적 다양성을 누락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2세대들은 청호동 말에 대하여 ‘청호동 말’ 또는 ‘이북말’ 이외의 다른 명칭들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한다.

2세들에 비해 청호동과 청호동 말에 대한 문화적 지식이 옅은 3세대의 경우 ‘청호동 말’, ‘이북말’ 등으로 자기 자신이 사용하는 말을 수식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익숙한 ‘속초말’, ‘서울말’ 등과 구분되는, 윗세대들이 주로 쓰는 말로 여기며 거리감을 표시하기도 한다. 또한 ‘함경도 말’, ‘북청 말’ 등의 명칭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하기보다 그저 자신이 함경도 말과 청호동 말의 지식을 구별할 능력이 부족함을 피력한다. 2세대들이 ‘뭐가 함경도 말이고 뭐가 평안도 말인지’ 구분할 수 없다고 토로한다면, 3세대들은 청호동 말 중 ‘뭐가 청호동 말이고 뭐가 강원도 말’인지 알 수 없다고 말한다. 요컨대 청호동 내에서 청호동 말에 대한 명칭은 세대마다 다른 문화적 지식에 의존하여 선택되는 것이다.

청호동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민간 명칭은 아니지만 청호동 말에 대한 외부집단의 인식과 태도를 보여주는 ‘청호동 말’의 또 다른 이름도 존재한다. ‘아바이 말’이 바로 그것이다. ‘아바이 말’이란 함경도 방언으로 할아버지를 뜻하는 어휘인 ‘아바이’를 명칭으로 써서 그 자체로 청호동과 청호동 사람들과의 연관성을 드러낸다. 하지만 ‘아바이 말’은 청호동 말의 주된 사용자들에 대한 가치중립적인 수식어라기보다는 이북의 방언을 닮은 청호동 말을 중심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타자화한다.

<사례 Ⅲ- 5.>

**연구자:** 아저씨 그러면 이북말 쓰시는 거 같으세요?

**청호동 2세대 남성, 아버지가 함경남도 북청군 출신, 권은식:** 나는 모르지 나는 모르지. 근데 시내에서 친구들이나 시내 다니는 친구들이나 '저 개새끼 또 아바이 말 쓴다! 또 아바이 말 쓴다!' 하하하 '야 임마 무슨 아바이 말 쓰니.' (하고 대답하지) 하하하 내는 그런 말을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딱 표시가 나는가 보다, 발음 내지는 억양이.

**연구자:** 아 그런가 보다. 그럼 밖에 사람들이 아바이 말 쓴다, 청호동 말 쓴다고 하는 게 이북말 쓴다 그거네요?

**권은식:** 그렇지.

2014. 1. 8 심층면담 중

청호동 2세대인 심층면담 대상자는 속초 출신 친구들로부터 속초 말과 다른 그의 청호동 말을 지적받을 때에 "아바이 말 쓴다!"라는 말을 듣곤 했다고 밝힌다. 이처럼 아바이 말이라는 민간 명칭은 청호동 말이 지닌 이북 방언의 특징으로부터 말미암아 이북 출신 피난민이 대부분인 청호동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자연화한다. 함경남도 북청군 출신의 한 청호동 1.5세대는 청호동을 떠나 객지에서 일을 할 때 말투 때문에 피난민의 자식으로 불리면서 청호동 말을 쓰는 것이 사회 생활하는데 안 좋다는 인식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41] 청호동 말에 대한 차별과 사회적 위협은 비단 이북에서 출생한 1세대와 1.5세대들에게만 국한된 일은 아니다. 과거 반공주의가 성행하던 시기 청호동 사람들이 구사하는 청호동 말은 그들에 대한 검열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용하기도 했다. 청호동 말 때문에 외지에서 간첩으로 신고를 당하거나 간첩으로 오해한 주변 사람들이 도망을 갔다는 일화는 웬만한 청호동 2세대들도 한 번씩 겪는 일이었다. 오늘날 청호동 말은 여전히 속초말이나 서울말과 단번에 구별되는 특이한 말로 인식된다. 하지만 시대적 변화에 따라 청호동이나 속초 외부 지역에서 청호동 2세대들이 청호동 말을 쓰는 경우 '빨갱이'로 오해받기보다는 탈북민 혹은 조선족으로 여겨진다. 청호동 2세대들 역시 청호동 말 사용으로 말미암아 남한사회의 주변적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하지만 2세대들이 1세대나 1.5세대들처럼 청호동 말 사용에 의해 그들의 '피난민' 출신에 대한 차별받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그러므로 청호동

41) 2013. 11. 15 심층면담 중

말에 대한 피난민들에 대한 차별을 드러내는 '아바이 말'은 오늘날 청호동 및 속초 등지에서 듣기 힘든 명칭이다.

## 2. 세대에 따른 청호동 말 사용: 말 선택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다룬 청호동 말의 언어적 특징 그리고 청호동 말의 민간명칭을 통해 본 청호동 말의 사회문화적 의미는 화자가 위치한 세대에 따라 청호동 말에 대한 평가는 물론 청호동 말의 사용 빈도 및 사용 대상과 영역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려준다. 이를 토대로 본 절은 세대에 따른 청호동 말의 실제 사용양상을 기술한다. 청호동 말에 익숙하며 일상생활에서 여전히 그를 자주 사용한다고 밝히는 1세대 및 1.5세대 그리고 2세대로 나누어 청호동 내에서 청호동 말이 선택되는 대화 상황 및 대화참여자 간의 관계를 청호동 말 선택의 규범으로 보일 것이다. 청호동 말 이외에도 속초말, 서울말 등 다양한 언어자원이 공존하는 현대 청호동에서 청호동 말의 선택을 결정하는 대화 상황 그리고 대화참여자와의 관계를 살피는 작업은 청호동 말에 대한 관념적 가치관인 언어이데올로기와 구분되는, 청호동 말의 실제 사용을 드러낸다.

### 1) 집단 정체성 (group identity)

청호동 사람들의 언어 선택을 가르는 첫 번째 기준은 대화 참여자의 내집단 소속 여부다. 곧 대화 참여자가 청호동 사람이라면 청호동 말을 택하여 사용할 것이고, 청호동 사람이 아니라면 서울말을 사용하여 대화를 지속한다. 청호동 사람은 대화 상대의 얼굴만 봐도 그가 같은 내집단에 속하는지 단 번에 가리곤 한다. 이에 대하여 청호동 사람들은 소규모 피난민 공동체에서 기원한 청호동의 역사를 빌어 설명한다. 청호동 사람들에 따르면, 과거 청호동은 큰 길 하나를 두고 집들이 빼꼭히 들어서 있어서 사람들이 오며 가며 얼굴을 마주치고 살았기에 청호동 사람이라면 "서로 이름은 몰라도 누군지는 다 안다."고 한다. 오늘날의 청호동은 전입전출이 활발해지며 도시화되었지만 청호동 사람들은 여전히 '○○의 아들', '○○의 동창', '○○의 친구'로 그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정의하기에 '우리' 집단에 속하는 내부자와 외부자에 대한 구분은 여전히 유효하다.[42] 그러므로 청호동

42) 이와 같은 기준을 통해 청호동 사람들은 마을을 오가는 낯선 사람들을 놀러온 관광객들 혹은 뱃일을 돕는 '중국애들'과 같은 외지 사람으로 간주한다.

사람에 속하는 자신의 가족 혹은 같은 마을 주민에게는 청호동 말을 사용하고 외부인에게는 서울말을 사용한다. 다음 사례는 대화 참여자가 내부자에서 외부자로 바뀜에 따라 변화하는 청호동 1세대의 말 선택을 잘 보여준다.[43]

<사례 Ⅲ- 6.>

물리적 환경: 청호동에 위치한 젓갈가게 안
사회적 장면: 젓갈을 사러 온 관광객들이 가게 주인인 A에게 생소한 젓갈 종류를 물어본다. A가 가게 안방에서 관광객들을 마주보며 응대하고, B와 C는 관광객들을 볼 수 없는 구석에서 젓갈을 포장하고 있다.
참가자: A (청호동 주민, 여성, 함경남도 북청 출신, 젓갈가게 주인, 80+), B (청호동 주민, 여성, 대구 출신, A의 며느리, 50+), C (속초 시내 거주, 여성, A의 손녀이자 B의 딸, 30+), D(여성, 외부인, 40+)

**D:** 햇때기[44]가 뭐예요?
①**A:** ((B를 바라보며))*햇때기 헤헤헤 그런 거 있다 그래. 노란노란 고기.*
**B:** 매운탕용.
**D:** 뭐예요?
②**A:** 그런 고기가 있어요. 작은 거. 매운탕용.
**D:** 먹어볼 수 있어요?
③**A:** 얼궈나서 지금 몬 먹어봐요.
**D:** 햇때기 하나 주세요.
**B:** 가재미 못 먹으면 못 먹는데……?
④**A:** 가재미 몬 먹으면 몬 먹어요.
**D:** 먹을 수 있어요.
⑤**A:** *햇때기 전번에 누구 따라 먹어봤구나. C야 오징어 옆에 햇때기 있잖니, 그거 줘라!*

위의 사례에서 청호동 1세대인 A는 대화 중 자신이 궁극적으로 지목하는 청자

43) 말 선택의 참여관찰 사례는 하임즈의 SPEAKING 모델로 분석하여 대화상황을 간략히 보여줄 것이다. 사례 내에서 청호동 말은 휴먼명조체로 기울여서 표기하며, 서울말은 돋움체로 표기하여 가독성을 높인다.
44) 둑중갯과의 횟대 어류를 이르는 강원도 방언이다.

가 변화함에 따라 청호동 말에서 서울말로 언어 선택을 바꾸고 있다. ②, ③, ④의 경우 외부인인 관광객을 응대하며 서울말을 쓰고, ①과 ⑤처럼 자신의 며느리나 손녀에게 지시를 내릴 때는 청호동 말을 쓴다. 특히 A가 관광객과 대화할 때 서울말에 익숙한 A의 며느리 B가 관광객의 말을 듣고 그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를 말하면 그를 토대로 A가 다시 대답해주는 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진다. 청호동 사람들 사이에서 주로 사용되는 청호동 말이 비격식적 · 사적인 성격을 지닌다면, 청호동 말과 대비되는 서울말을 격식과 예의를 나타내는 동시에 청호동 사람과 외부인 사이의 거리감을 반영 한다. 청호동 말과 서울말 사이의 변화는 단순한 언어 선택의 변화뿐만 아니라 말 단계의 변화까지 동반하며 대화 참여자들의 사회적 거리를 조정하기도 한다. 다음 사례에서 등장하는 연구자에 대한 청호동 주민의 말에서 그를 잘 볼 수 있다.

<사례 Ⅲ- 7.>

물리적 환경: 아랫마을 갯배나루
사회적 장면: 갯배요금을 받는 마을 주민과 관광객들의 대화를 참여관찰하는 연구자를 보고 관광객을 안내하던 다른 마을주민이 다가와 질문을 건넨다.
참가자: A (청호동 주민, 남성, 70+), B (연구자, 외부인, 여성, 20+)

①**A:** *여기 와서 뭘 적니.*
**B:** 아 조사 나와서 갯배 보고 있어요.
②**A:** *무슨 조사?*
**B:** 책 쓰려고…….
((A가 고개를 끄덕인다.))
**연구자:** 안 힘드세요? 점심 드셨어요?
③**A:** 아 괜찮아요. 사람 많으면 좋지 뭐.

이상의 사례에 등장하는 청호동 주민은 청호동 내에서 자주 마주쳤으며, 다른 청호동 주민들과 빈번히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연구자를 보고 내집단의 성원으로 판단하였다. 그렇기에 청호동 사람끼리 말할 때 으레 그러하듯이 연하자인 연구자에게 하대하는 청호동 말로 질문을 한다(①과 ②). 하지만 연구자의 말씨와

진전된 대화 내용을 통해 연구자가 청호동 출신이 아니라 외부인임을 알게 된 A는, ③처럼 '해요'체를 쓰는 서울말로 자신의 언어 선택을 수정하여 연구자와 대화를 지속한다. 청호동 말에서 자주 나타나는 특유의 단순한 말단계는 청호동 말의 억양과 더불어 청호동 말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형성하는 데 일조한다. 청호동이 관광지화되면서 청호동 말을 둘러싼 외부인들의 오해는 더욱 커졌는데, 청호동 내 갯배 요금 징수를 보조하는 청호동 2세대는 청호동 말을 둘러싼 외부인과 내부인의 의사소통의 불통이 흔히 발생한다고 말한다.

<사례 Ⅲ- 8.>

**청호동 2세대 남성, 아버지가 함경남도 북청군 출신, 장만길:** 그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목소리가, 지금 얘기했듯이 ((서울말의 억양을 흉내 내며)) '아휴 왜 그러세요, 그렇게 하면 안돼요~' ((청호동 말의 억양으로)) '**어**째 그랬니!' 어째 그랬냐는 게 목소리가 톤이 높단 말이야. 이게 그렇다보니까 상대가 듣기에 깜짝 놀라지. '어씨 이 아저씨가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 그런 식으로 오해 사는 부분도 많고. 또 한참 설명을 하다보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 이 사람들 처음 듣는 얘기니까 그런 식으로. 저 사람이 화를 낼 부분이 아닌데 화를 (낸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은 또 화를 낸 게 아니고. 고런 오해 아닌 오해를 많이 받아. 민원도 많이 제기 되서 시청 가서 민원 해결하는 경우도 많아. 직접 전화를 해서 민원 상담원들한테 설명을 하지.

2013. 11. 13 심층면담 중

청호동 2세대들 역시 외부인에게는 서울말을 사용하고 청호동 사람들 사이에서는 청호동 말을 사용한다. 다음의 사례에 등장하는 2세대들은 청호동 말로 대화를 나누던 도중 외부인의 질문에 대하여 서울말로 답해준다.

<사례 Ⅲ- 9.>

물리적 환경: 윗마을 가게 앞
사회적 장면: 청호동 주민이 하는 가게에 청호동 출신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던 중 관광객이 길을 묻는다.

참가자: A (청호동 주민, 남성, 청호동 출신, 40+), B (청호동 주민, 남성, 청호동 출신, 40+), C (여성, 외부인, 20+)

A: *아이 누구 주는 게 아니고…….*
B: *다 명예직이야?*
A: *명예직이지. 그리고 그 자치위원장은 있는 사람들이 하고 대표하는 사람들이 돼야지.*
((관광객이 다가온다.))
C: 여기 갯배 타러 어떻게 가요?
A: 저 다리 위로 가서 건너서 갯배마을로 가야 되요.
B: 헤엄쳐서 가요.
A: *야 헤엄쳐서 어떻게 가니.*

이상의 청호동 2세대들은 마을 내 선거 안건에 대하여 청호동 말로 의견을 나누다 길을 묻는 관광객에게 서울말로 대답한다. 관광객에게 B가 던지는 농담 역시 서울말이며 이에 대하여 A는 다시 청호동 말로 바꾸어 B의 농담에 대하여 핀잔을 준다. 이처럼 청호동 1세대와 2세대 모두 대화참여자가 '청호동 사람'인 내집단과 외집단 중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대화에 사용할 언어를 선별하므로 청호동 사람들 사이에서 외부인에게는 서울말을 쓰고 청호동 사람에게는 청호동 말을 쓰는 규칙이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상황 - 공식 대 비공식

청호동 사람의 언어 선택을 좌우하는 두 번째 요인은 대화 상황의 성격이다. 대화 상황이 어떠한 성격을 지니는지에 따라 청호동 사람은 각기 다른 언어를 선택하게 된다. 대화 상황의 변화에 따른 언어 선택의 변화는 단일언어 사회 내에서도 언어의 다른 형식을 취함으로써 나타나기도 한다. 일례로 한국어 존댓말은 대화자들의 사회적 관계와 더불어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바뀌는데, 대화 상황은 일반적으로 "비격식적 상황"(informal situation)과 "격식적 상황"(formal situation)으로 양분할 수 있다. 비격식적 상황이란 일상적인 말(casual speech)을 사용하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장면이고, 격식적 상황이란 비개인적이고 공적인 장면이다(왕한석 2000: 256 참조). 청호동 말과 서울말이 각각 사적인 친밀함과 공적인 격식

성을 의미하는 청호동에서 존댓말 및 말단계의 사용 양상보다 말 선택 그 자체가 대화 상황의 격식성의 정도를 먼저 보여준다.

청호동에 거주하며 온종일 청호동 내에서 하루를 보내는 1세대들에게 공식적 상황은 병원 및 관공서 등과 같은 소수의 장소를 방문하는 상황으로 한정되어 있다.[45] 그러한 상황에서 청호동 1세대들은 대화참여자가 자신과 같은 내집단으로 인식되며, 자신보다 연령지위가 낮아 청호동 말을 쓸 수 있음에도 상황의 공식성을 의식하여 서울말을 쓰는 것이 대부분이다. 말단계 역시 '해요'체를 사용한다. 상황의 공식성과 비공식성에 따른 언어선택의 규칙은 2세대들 사이에서도 동일하다. 다음의 사례는 다수의 청호동 2세대들이 참여한 청호동 내 통장회의 중 일부 장면을 발췌한 것이다.

<사례 III- 10.>

물리적 환경: 청호동 주민센터 회의실
사회적 장면: 통장회의 중 지출 감사 후 회의를 마무리한다.
참가자: A (청호동 주민, 남성, 청호동 주민회의 사무국장, 50+), B (청호동 주민, 남성, 청호동 통장, 50+), C (청호동 주민, 남성, 청호동 통장, 50+)

①**B:** 전반적으로 잘 지출이 됐네요 뭐. 근데 이제 저기 뭐야 이제 우리 회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국장님은 많이 절약을 하고 여러분들의 도움을 많이 요청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청호동의 위상과 입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출을 하는 것이 맞고, 우리가 또 너무 위축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A:**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다른 안건 없으시면 그만하겠습니다. 다음 달 추석인데 추석 밑에 저기 회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다음 달에도 오늘처럼 모두 참석해주시면 대단히 고마울 거 같습니다.
**B:** 저 고생하신 우리 총무님하고 사무국장님께 박수 좀 쳐드리죠.
((일동 박수를 친다.))
**A:** 본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자리를 정리한다.))
②**B:** ((자리에서 일어서며)) *야 7시까지 기다리면 거 아라리 갈 수 있대며?*
**C:** *아 딴 데 가자니깐.*

45) 가족과 함께 가게를 경영하거나 관광객을 안내하는 몇몇 일하는 1세대들에게는 관광객들과 상호작용하는 상업적 대면 역시 공식적 상황으로 여겨질 것이다.

위의 사례에서 청호동 2세대인 B의 대화 중 ①을 살펴보자. 통장회의 중 B는 청중들을 향해 청호동 말의 억양이 드러나지 않는 서울말을 사용한다. 또한 청호동 말단계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으며 청호동 내 일상적 말 사용에서 극히 사용되지 않는 '습니다'체를 사용함으로서 회의의 공식성과 격식성을 자신의 말 사용에 반영하고 있다. 회의가 종료되자마자 B는 ②와 같이 청호동 말로 변환하여 옆 사람에게 회식 계획에 대하여 묻는다. 이는 통장회의 중 그가 보여준 ①의 말씨와 확연히 다른 하대의 말단계이다.

청호동 1세대와 2세대들에게 상황에 따른 언어 선택은 공식적 상황 내 서울말의 사용 그리고 비공식적 · 개인적 상황 내 청호동 말 사용으로 고정되어 나타난다. 대화상황에 대한 자연적 배경 및 문화적 장면은 언어선택을 주관한다. 그렇기에 청호동 사람들은 그들이 위치한 대화 상황 내 공식성의 정도에 맞추어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전환하기도 한다.

### 3) 사회적 거리

이상의 사례를 통해 대화 상황이 공식적인 경우 청호동 사람들은 서울말을 주로 사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이 곧 반대의 상황, 즉 대화 상황이 비공식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우 언제나 청호동 말 사용에만 편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내집단에 속하는 청호동 사람들 사이에서도 대화참여자들의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hip)와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에 따라 다른 언어를 선택하게 된다. 한국사회의 존댓말 선택 예측모형을 설명한 왕한석은 한국사회의 말단계를 결정짓는 사회적 관계의 분석 범주들을 친척관계, 직장 '동료'관계, 그리고 여타의 관계와 같은 세 가지 기본유형으로 설정한다(왕한석 2010a: 257). 지방 중소도시에 속한 마을이자 피난민 집단촌 그리고 어촌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청호동 내에서 청호동 주민들의 주요 사회적 관계는 친척관계 그리고 가족 · 직장 '동료'를 제외한 친밀한 사이의 여타 사람들의 범주가 주를 이룬다. 청호동 사람 개인이 속한 세대에 따라 그가 일상생활에서 주로 접촉하는 사회적 관계의 비중 역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노령의 청호동 1세대들은 청호동 내에서만 생활하며 동거 가족 및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이웃사촌'으로 부르는 아는 사람들과 하루의 대부분을 보낼 것이다. 경제활동을 하는 청호동 2세대들의 경우 시내로 출근하며 외부인인 직장 '동료'와의 접촉이 대부분을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언어 선택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대화참여자 사이의 사회적 관계에 따른 언어선택에 집중하기보다는, 각각의 사회적 관계에 위치한 대화참여자들의 사회적 거리와 언어 선택의 관계성을 살펴야 할 것이다. 사회적 거리는 수직적 차원의 권력(power) 또는 지위(status) 그리고 수평적 차원의 연대(solidarity) 또는 친밀감(intimacy)으로 나눌 수 있다(Brown and Gilman 1960, Brown and Ford 1964 참조). 대화상황이 비공식적이며 대화참여자들이 친밀하지 않은 경우 대화참여자들 간의 사회적 지위를 중심으로 언어 선택이 결정되곤 한다. 다음의 사례는 전통적으로 청호동 말을 가장 잘 하는 집단으로 평가되며 청호동 말의 특성이 여전히 잘 유지되고 있다고 여겨지는 어업인들의 참여관찰 사례이다.

<사례 Ⅲ- 11.>

물리적 환경: 어업인용 창고 내
사회적 장면: 선장과 그의 동료들이 그물 손질 중 잠시 쉬고 있는데 스님이 방문한다.
참가자: A (청호동 주민, 남성, 선장, 60+), B (청호동 주민, 남성, 60+), C (외부인, 남성, 스님, 60+)
A와 C는 서로 잘 알지만 B와 C는 처음 만난 사이이다.

C: 길상호는 왜 안나갔어?
A: *어제 나갔다가 그물 잘 못 되가지고.*
C: 에휴 손해 많이 봤구나. 또 이거야. ((술 마시는 흉내를 낸다))
①B: *술을 마지막에 조금만 그러면 약인데…….*
A: *보약이지 보약이야. 조금씩 먹으면 보약이야.*
C: 보약은 뭔 보약이야. ((B를 보며)) 몇 년생이시오?
B: 54년생.
C: 1살 차이셔, 1살.
②B: 가끔 우리 집에 와요. 와서 밥도 먹고 가고 그래요.
C: 예 고맙습니다.

이상의 사례에 등장하는 청호동 사람 A와 B에게서 청호동 1세대들의 말선택 경향을 엿볼 수 있다. 그들은 대화참여자들 사이의 사회적 거리에 따라 다른 언어를

선택한다. A의 언어 선택 양상을 본다면 언어 선택에는 단순히 집단 정체성뿐만 아니라 대화참여자 간의 친밀도 역시 언어 선택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다. C는 청호동 사람은 아니지만 A와 친밀하기에 A는 C에게 청호동 말을 사용한다. A와 같은 청호동 사람이자 A의 친구인 B는 대화 초반 A와 C의 상호작용에 소극적으로 끼어든다. B는 A의 말에 동조하며 ①과 같이 청호동 말을 쓴다. 눈여겨 볼 것은 C에 대한 B의 언어 선택이다. C는 B보다 연령 지위가 낮지만 오늘 처음 만난 사람으로 친밀도가 낮지만 종교인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에 B는 C에게 ②처럼 서울말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즉 서울말은 격식을 차려야 할 사람에게 쓰는 말이며, 청호동 말은 친하고 허물없는 사이에서 편하게 쓸 수 있는 말이다. 다음 사례에 등장하는 청호동 1세대들 역시 말 선택을 통해 대화참여자들 간의 사회적 거리의 정도를 반영한다.

<사례 III- 12.>

물리적 환경: 갯배마을 노인정
사회적 장면: 주민센터 주임이 갯배마을 노인회 간부들에게 속초시에서 열리는 전국 체육대회에 청호동 노인들이 참석할 것을 부탁한다.
참가자: A (청호동 주민, 남성, 함경남도 출신, 갯배마을 노인회 회장, 70+), B (청호동 주민, 남성, 함경남도 출신, 갯배마을 노인회 총무, 70+), C (청호동 주민, 남성, 전라남도 출신, 갯배마을 노인회 전 회장, 70+), D (속초 시내 거주, 여성, 청호동 주민센터 주임, 40+)
갯배마을에 사는 A, B, C는 오랜 기간 서로를 알고 지냈다. A, B, C와 D는 오늘 처음 만난 사이다.

**D:** 여기 한 스무 명 참석할 수 있어요? 차량은 다 지원을 하거든요.
①**B:** *여기는 그리 못 갈 거야 아마.*
**D:** 스무 명 안 돼요?
**A:** 여기가 인원이 많지 않아요, 이 동네는. 이 동네 회원이 오십 맺명이 되는데 뭐 다 아픈 사람 그런 사람들이고 뭐, 늙은이 되니 뭐…….
**B:** 젊은 사람도 없고 전부 노인들만 있는 게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저기 아까 전에 학교 앞에 노인회 회장을 만났는데
**D:** 아아 만나셨다고 그러더라구.
②**B:** 거기서는 한 사십 명 가는데 여기는 될지 모르겠어요. 다 할머니들이 되가지구.

A: 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C: 노인회는 젊은 사람 본래 없는 데지만은 어느 정도…… 몇 명 정도 협조를 해 줘야 됩니까?

70대, 80대 고연령 층이 대부분을 이루는 청호동 1세대들은 친밀하지 않은 개인과 몇 번의 교류 이후 연령지위를 중심으로 언어 선택이 달라지는데, 연령지위를 중심으로 언어 선택이 변화하여 연하자에게는 청호동 말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위의 사례에 등장하는 1세대 노인들은 처음 만난 D에게 청호동 말을 사용하지 않고 서울말을 쓴다. D에게 사용되는 서울말, 특히 존댓말은 D에 대한 사회적 거리 및 D의 지위를 고려한 표현일 것이다. 이는 B의 발화 중 암묵적으로 자신이 속한 갯배노인회의 회원들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①의 발화와 주민센터 주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인 ②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사례 III- 13.>

물리적 환경: 청호동 주민 센터
사회적 장면: 이전의 사례와 동일한 장면으로 주민센터 주임이 윗마을 노인회 회장에게 속초시에서 열리는 전국 체육대회 개회식에 청호동 노인들이 참석할 것을 부탁한다.
참가자: A (청호동 주민, 남성, 함경남도 출신, 청호동 노인회 회장, 70+), B (속초 시내 거주, 여성, 청호동 주민센터 주임, 40+)

A: *한 차는 돼.*
B: 우리가 모시고 가는 것도 그렇고 안전하게 귀가하고 이런 것도 신경 쓰긴 써야 되요 우리가.
A: *그렇지. 귀가하는 것도.*
B: 회장님 그러면 거기서 따로 일 하셔야 되는구나.
A: *엉. 좌석배치도 있으니까 우리가.*
B: 우리는 C 잖아, C.
A: *우리는 본부석에 들어가 있으니까. 청호동이 멀지가 않더라구. 여기 여기. C. 우리는 여기에 앉으니까.*
B: 멀지는 않으시구나. 여기가 청호동 자리고.

이상의 사례는 이전의 사례와 사회적 장면, 주제, 대화참여자의 특징 및 대화참여자의 지위 면에서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전의 사례와 연령지위 및 사회적 지위의 면에서 유사한 차이를 지녔지만, 이상의 사례에 등장하는 청호동 1.5세대는 청호동 주민센터 주임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서울말로 존대를 하기보다는 청호동 말로 하대의 표현을 사용한다. 이전의 사례에서 처음 만난 것과 달리 본 사례의 A와 B는 마을 일을 논의하며 자주 만나왔고 그를 통해 사회적 거리를 좁힐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전의 사례와 다른 언어 선택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1세대들의 상호작용 중 대화참여자들 사이의 사회적 지위 차가 미미하거나 동일한 경우 언제나 연령 지위를 중심으로 언어 선택 및 말단계가 정해진다. 비공식적 상황 내 사회적 거리가 멀며 지위 차가 미미한 경우 청호동 말이 선택된다. 다음 사례는 우연히 대면한 마을 주민들 간에 연령 지위를 중심으로 1세대들이 청호동 말을 선택하여 사용함을 보여준다.

<사례 III- 14.>

물리적 환경: 청호동 윗마을 길거리
사회적 장면: 가게에서 일하는 A를 보고 지나가던 B가 인사를 한다. A와 B는 한동안 만나지 못했다.
참가자: A (청호동 주민, 여성, 함경남도 북청 출신, 젓갈가게 주인, 80+), B (청호동 주민, 속초 출신, 여성, 70+)

**B:** 저 할머니 오랜만에 보네.
**A:** *니 오랜만에 본다.*
**B:** 아마이 일하나 보다. 건강은 어때요?
**A:** *일 없대*[괜찮다. 문제없다.]. *화장실은 내 힘으로 가구 응. 아들은 일 없니?*
**B:** 일 없어요. 잘 해요.

A와 B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 했지만 A는 자신보다 연령지위가 낮은 B에 대하여 청호동 말을 사용하여 말하며, 특히 청호동에서 아랫사람에게 말하듯이 낮추는 말단계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청호동 말을 쓰는 A와 달리 속초 출신인

B는  속초 억양을 쓰고 A에게 존댓말을 사용한다. 이처럼 친밀하지 않은 청호동 사람 사이에서 기타 사회적 지위의 차가 적거나 동일하며 연령 지위의 차이만이 두드러진다면, 연상에 해당하는 청호동 1세대는 아랫사람에게 청호동 말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화상황이 비공식적 성격을 지니며 대화 참여자 사이의 관계가 친밀하다면 청호동 1세대의 경우, 친밀한 관계의 개인들은 청호동 말을 사용하여 대화적 상호작용을 이룬다. 다음은 비공식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청호동 1세대들의 대화로 청호동 말에서 나타나는 함경남도 방언의 영향을 잘 보여준다.

<사례 III- 15.>

물리적 환경: 청호동 젓갈가게 안
사회적 장면: A를 찾아온 친구들이 대중목욕탕에 가려고 계획을 세우는 중이다. A, B, C는 모두 함경남도 출신이며 오랜 친구 사이다. A와 B는 동향출신이며 사돈지간이다. A와 C는 속초로 피난 나와 서로 알게 되었다. A와 B는 동갑내기이며 C는 연하자이다.
참가자: A (청호동 주민, 여성, 함경남도 북청 출신, 80+), B (서울 거주, 여성, 함경남도 북청 출신, 80+), C (속초 시내 거주, 여성, 함경남도 홍원 출신, 80+)

A: *야, 오늘 가지 말고 월요일날 가자.*
B: *그래.*
C: *응 차라리 그런 게 낫~:지.*
A: *어째 그런가 하믄 너무 자주 가서 이기*[여기]
((다리를 보여준다.))
C: *이기이기*
A: *무사나지*[멀쩡하지] *않잖니.*
C: *응 벌겋게.*
B: *요 등뻐*[등뼈]*를 보니 여*[여기] *안 보이는데 여 보이잖아.*
A: *여 벌거서 어쩔 땐 또 그날 지약*[저녁]*엔요 목욕 들어가서 뜨뜻한데 앉았다 나왔다. 그날 아주 너무 아파가지구요 내가요.*
B: *아프디?*
C: *그 크리무 그것도 있다고 그러디.*
B: *니기있니*[누가 가지고 있니]*?*

A: *그거 발라! 이 아마이 가지고 있다!*
C: *그거 발라요! 좋아요! 그거 발라보지요.*

이처럼 대화참여자들이 친밀한 관계라면 허물없이 청호동 말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청호동 사람에 속하는 내부자이고 대화참여자들의 관계가 돈독하다면 대화참여자들 사이의 연령 차이를 의식하여 깍듯이 존댓말을 쓰기보다는 서로 하대의 표현을 주로 사용하며 청호동 사람간의 친밀성을 나타낸다. 이상의 사례에서도 사돈 간에도 그리고 연상자와 연하자 사이에서도 하대하는 말단계가 주로 사용되는데 이를 통해 대화참여자들의 사회적 거리가 무척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호동 2세대들의 언어 선택의 경우 비공식적 상황일지라도 대화 참여자들 간의 사회적 거리를 의식한다. 청호동 1세대들이 비공식적 상황 내 사회적 거리가 있는 대화참여자들에게 지위 차에 따라, 특히 연령 지위를 중심으로 서울말과 청호동 말 중 선택하여 사용했던 것과 달리, 청호동 2세대들은 비공식적인 상황에서도 대화참여자와 사회적 거리가 존재한다면 연령 지위에 대한 구별 없이 대화참여자에게 서울말을 주로 사용한다. 1세대들과 달리 상대적으로 넓은 연령 지위의 차이가 나는 대화참여자들 사이에서 동등한 '하대'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청호동 2세대들 사이에서는 연하자인 대화참여자에게 동의 없이 청호동 말로 하대하는 것은 매우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진다.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함부로 청호동 말을 사용하는 것은 정상적인 말하기의 범주에서 벗어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청호동 2세대들 사이에서는 청호동 말의 선택이 축소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비공식적 상황 내 친밀한 사이일지라도 대화참여자들의 지위를 고려하여 연령 지위 및 사회적 지위의 상위자에게는 서울말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례 Ⅲ- 16.>

물리적 환경: 청호동 내 식당 안
사회적 장면: 청호동 출신 2세대들이 모인 봉사회의 정기모임 후 뒷풀이 도중 B가 A에게 협조를 부탁한다.
참가자: A (청호동 주민, 남성, 청호동 출신, 봉사회 회장, 50+), B (청호동 주

민, 남성, 청호동 출신, 봉사회 사무국장, 40+)

**B:** 그래서 청호동 아바이들 몇 분이라도 모시고 가는 게 좋다고 하더라구요.
**A:** *야야 그거 하는 걸로 의미가 있지 청호동 사람 안 오면 어떻니.*
**B:** 근데 이게 북청사자놀음이라서 청호동 사람 몇이 들어가야 된대요. 이게 상징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구…….
**A:** *으음. 고향의 아픔을 뭐 그런 거구나. 음.*

이상의 사례에 등장하는 대화참여자들은 청호동에서 태어나 함께 자랐으며 5년 이상 같은 모임에서 활동 중인 선후배 관계다. 모임 뒷풀이 자리에서 발생한 대화 상황으로 비공식적인 성격을 가지지만 연하자인 B는 연상자이며 봉사회 회장 직책을 맡고 있는 A에 대하여 서울말을 쓰며 예의를 지킨다. 연하자인 B가 A에게 서울말을 쓰는 것과 달리 연상자인 A는 B에게 청호동 말을 쓰며 지위에 따라 언어 선택의 유형이 달라짐을 보인다. 이로써 비공식적 상황 내 친밀한 관계의 대화참여자들이라도 상위자에게 서울말을, 하위자에게 청호동 말을 쓰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청호동 2세대들 사이에서 통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호동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확산되는 서울말 중심의 언어 선택 조정은 다른 사례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사례 Ⅲ- 17.>

물리적 환경: 윗마을 내 식당
사회적 장면: 청호동 주민이 경영하는 식당에 청호동 동장과 주민센터 주임, 마을 내 은행 지점장이 찾아와 식사를 한다.
참가자: A (속초 시내 거주, 남성, 청호동 동장, 60+), B (속초 시내 거주, 여성, 청호동 동사무소 주임, 40+), C (청호동 주민, 남성, 청호동 출신, 청호동 내 은행 지점장, 50+), D (청호동 주민, 남성, 청호동 출신, 청호동 내 식당 경영, 50+), E (연구자, 외부인, 여성, 20+)
D는 C보다 2년 선배이며 청호동에서 함께 자라 서로 잘 아는 사이다. A, B, C는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사이다. 연구자는 A, B와 인사만 나눈 사이인 반면 C, D로부터 심층면담 및 연구 대상 추천 등 연구 전반에서 도움을 받아왔다.

C: ((식당에 들어서며)) 안녕하세요.
D: ①*어, 어찌 왔니.* ((C의 일행을 보고)) ②안녕하세요. 저쪽에 앉으세요. ((자리를 안내한다.))
((식사 계산 후 D가 가게 밖으로 나와 배웅한다.))
A: 갈게.
C: 가보겠습니다.
D: 예, 들어가세요. ((연구자에게)) ③*고기 맛있니?*
E: 네 네.
A: 먹을 복이 있으니까 이렇게 만나잖아.
D: ④*그래야지. 집에 가만히 있으면 되니? 돌아다녀야 되지.* ((모두에게)) 안녕히 가세요.

이상의 사례에 등장하는 C와 D는 어린 시절부터 청호동에서 함께 자라 서로 잘 아는 친밀한 사이에 해당한다. D는 가게를 찾아온 연하자 C에게 ①처럼 단번에 청호동 말을 사용하지만 C의 일행인 공무원들을 보고 ②와 같이 서울말로 언어선택을 수정하여 C가 속한 대화상황의 격식성에 자신의 말을 맞춘다. 아무리 친한 동생이라도 상위 지위에 속한 타인들이 동반한 자리에서 청호동 말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에 반해 A, B보다 사회적 거리가 가까우며 연하자인 연구자에게 가볍게 말을 하는 상황에서 D는 ③과 ④처럼 청호동 말을 사용한다. 청호동 말에 대한 궁극적 청자의 지위와 청호동 말로 이루어진 대화의 내용을 통해 추론해볼 때, 청호동 2세대들에게 청호동 말은 그것이 가지는 비공식성과 친밀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사례 역시 대화 참여자의 지위와 대화상황 및 대화 주제에 따라 달라지는 언어선택 양상을 보여준다.

<사례 III- 18.>

물리적 환경: 청호동 주민센터
사회적 장면: 청호동 주민센터에서 B가 개인정보를 관리할 영어 ID를 만들며 공무원의 안내를 받고 있다. 용무를 보러온 C가 B를 보고 대화를 시작한다.
참가자: A (속초 출신, 여성, 주민센터 직원, 30+), B (청호동 주민, 남성, 청호동 출신, 40+), C (청호동 주민, 남성, 청호동 출신, 50+)
B, C는 관할 주민센터 직원인 A와 면식이 있으며 B와 C는 친한 사이이다.

A: 대문자랑 소문자랑 섞어 쓰셨네요.

①B: 이거 이렇게 해요? 맞아요?

②C: ((뒤에서 다가와 옆에 앉으며 핀잔주듯이)) *이거 청호국민학교 출신이 꼬부랑 글자도 몰라가지고.*

③B: *앞에서 눈을 부라리고 있으니 무서워서 그러잖아요.*

((모두 웃음))

A: ((서류를 처리하며)) 장사는 잘 되세요?

B: 뭐 그냥 그렇죠. ④*금어기야. 금어기 걸려가지고 나한테는 비성수기야. 어떻게 8월에 금어기가 걸려가지고.*

((A가 서류 처리 후 주민증을 돌려주며))

A: I-Pin 등록한 다음에 비밀번호 잊어버리시면 안돼요.

B: ⑤안돼요? 참…….

A: 비밀번호 잊어버리시면 다시 와서 서류하셔야 돼요.

C: ⑥*이거 해주면 되니? 안 된다 그래야지.* ⑦자…… 이거 두 부 해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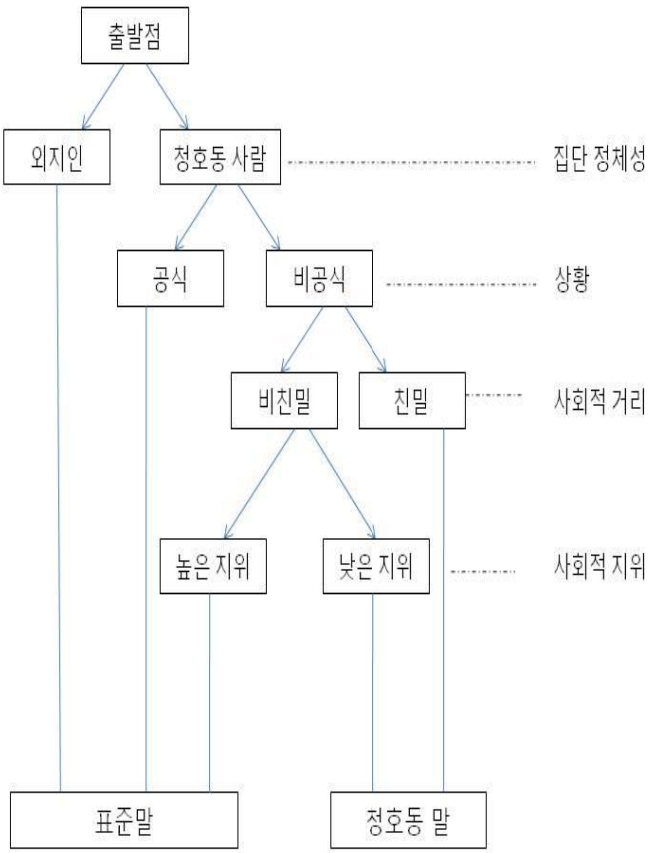
이상의 사례가 발생한 자연적 배경은 청호동 주민센터이며 사회적 장면은 민원 상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B는 이러한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여 주민센터 직원에게 ①과 같이 서울말 '해요'체를 쓰며 격식성을 표현한다. 이때 등장한 C는 자신과 친밀한 B에 대하여 청호동 말의 낮은 말단계를 택하여 말을 거는데 이는 같은 청호동 사람이라는 집단정체성에 의한 언어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②). B 역시 C에게 ③과 같이 청호동 말로 대답하는데 이를 통해 B와 C의 사회적 거리가 매우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어 선택은 대화 상황과 대화참여자 뿐만 아니라 대화 주제에 따라 변하기도 한다. B의 경우, 민원 업무 도중 공무원이 B의 근황을 물으며 대화주제가 개인적 · 비격식적으로 변하자 B는 자연스럽게 청호동 말을 써서 대답을 하며(④), 그 직후 공무원이 다시 민원 업무에 대해 안내를 하자 이전처럼 서울말로 말한다(⑤). C는 자신과 친한 B는 물론 공무원에게 농담과 같은 비공식적인 주제에 대해 대화를 할 때에는 두 사람이 자신보다 연령 지위가 낮으므로 ②와 ⑥처럼 청호동 말의 '하대'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전의 농담에서 자신의 민원처리를 부탁하며 발화 의도가 바뀔 때(⑦) 동일한 청자(addressee)인 공무원에게 청호동 말의 '하대' 표현에서 서울말 '해요'체로 변환하여 대화상황을 공식화한다. 청호동 2세대 역시 비공식적 상황에서 친밀한 관계의 대화참여자들에게 청호동 말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청호동 2세대들은 대화발생의

상황적 요인에 맞추어 언어를 선택하기도 하고 동시에 자신이 언어선택을 능동적으로 바꾸며 대화상황의 변화를 시도하기도 한다.

## 3. 청호동 말 선택의 사회적 규칙과 세대별 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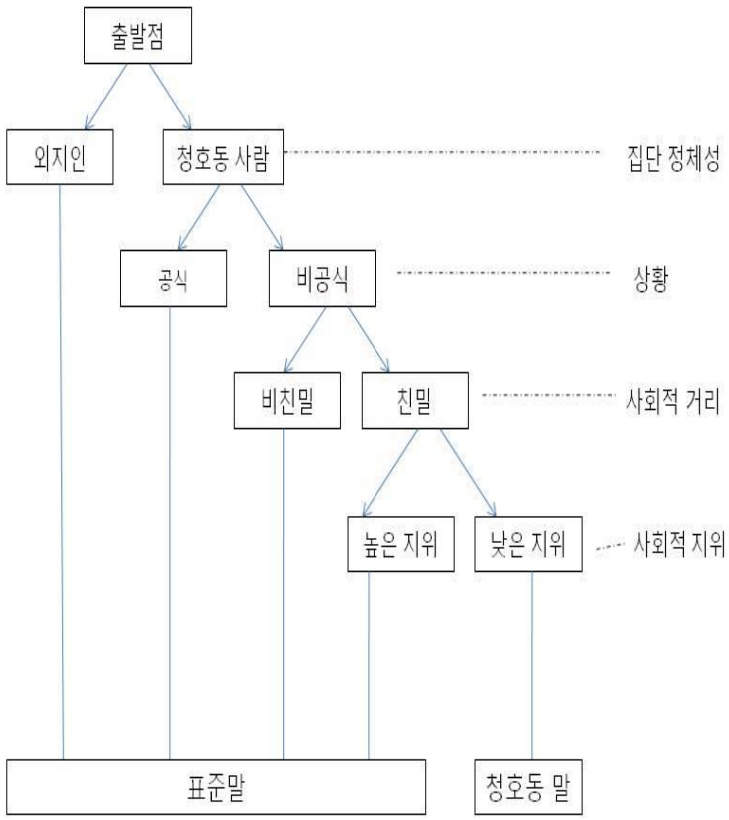
앞선 절을 통해 청호동 사람의 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소들과 그에 대한 사례를 세대 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이전의 사례를 통해 도출한 청호동 사람의 언어 선택 규칙을 도식화하여 정리하려고 한다. 청호동 사람의 언어 선택을 매개하는 요소인 집단 정체성, 상황의 성격, 사회적 거리와 지위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용하는데, 세대에 따라 이상의 요소에 따른 언어 선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호동 1세>




**<표 Ⅲ-2.> 청호동 1세대의 말 선택 규범**

<청호동 2세>




**<표 III-3.> 청호동 2세대의 말 선택 규범**

청호동 1세들과 2세대들 간의 언어 선택 규칙의 차이점은 비공식적 상황 내 친밀한 관계의 대화참여자들 사이에서 두드러진다. 1세대에 비하여 2세대들은 친밀한 관계를 더욱 세분화하여 청호동 말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세대들에게서 나타나는 청호동 말의 축소 경향은 청호동의 사회적 · 환경적 변화 그리고 그에 동반하여 변화되는 청호동 말에 대한 내부적 가치관의 변화로부터 기인한다. '우리' 집단 사이에서 무조건적으로 수용되던 청호동 말은 이제 상황적 맥락을 고려해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언어 선택 규칙을 통해 드러나는 세대별 차이와 그로부터 도출되는 청호동 말에 대한 합리화된 믿음과 설명인 언어이데올로기는 다음 장에서 더욱 자세히 다루어질 것이다.

# Ⅳ. 청호동 말과 세대별 언어이데올로기

앞서 3장에서는 청호동 말의 특징을 보이고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청호동 사람들의 말 선택에 대한 사회언어적 규칙을 도출해냈다. 청호동 사람들의 말 선택 규칙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대화참여자가 어떤 세대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말 선택의 양상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청호동 2세대들은 청호동 말 사용이 전제되는 상황 자체가 줄어든다고 여기며, 사회적 거리가 가까운 청호동 사람들끼리 대화할 때에도 대화참여자 사이의 상호적인 청호동 말의 사용은 매우 협소한 전제 조건 하에서만 나타난다.

청호동 2세대들의 청호동 말 사용은 이전에 비해 확연히 줄어들었다. 하지만 2세대들이 청호동 말에 대하여 지니는 집단 내부적 평가와 청호동 말에 대한 정의는 하나의 의미로 단정 지어지기보다는 대화 상황과 대화 상대에 따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여겨지며 상반된 두 가지 가치를 모두 지니는 것으로 여겨진다. 청호동 사람들이 말하는 청호동 말에 대한 정의 및 말 사용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인 언어이데올로기는 세대에 따라 그리고 청호동 사람들이 직면한 사회적 변화 안에서 달라지며 청호동 말을 상이한 사회문화적 의미와 연결 짓는다. 언어이데올로기가 달라지며 청호동 말과 청호동 사람의 연관 관계 역시 변화하기도 한다. 본장은 청호동 사람들의 세대별 말 선택 규칙을 통해 언어이데올로기의 경향을 청호동 전반의 변화와 함께 살펴볼 것이다. 특히 청호동 2세대로 대표되는 젊은 청호동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청호동 말의 언어이데올로기를 상황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청호동 2세대들이 말하는 청호동 말의 양가적 가치를 검토할 것이다.

## 1. 청호동의 세대교체와 말 사용의 특징

청호동 사람의 말 선택 규칙은 비공식적 상황 내 친밀한 관계의 청호동 말 사용에서 가장 특징적인 차이점을 보인다. 오늘날 청호동은 마을 구성원 및 마을의 대표적 산업의 변화에 따라 청호동 말과 외부의 다양한 지역 방언들–서울말, 속초말 등–이 함께 사용되는 다중방언사회가 되었다. 청호동 사람들은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언들을 상층어(high language)와 하층어(low language)로 나누어 그것이 어울리는 적절한 상황과 용도에 맞게 구분한다(Ferguson 1959 참조). 공식적 상황에서 혹은 비공식적 상황 내 친밀하지 않은 대화참여자에게 서울말을 주로 사용해야 한다는 청호동 사람들의 주장은, 각각의 언어가 특정 영역이나 사례에

체계적으로 사용되는 상황(본빌라인 2002: 456)인 양층 언어(diglossia) 현상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말 선택 규칙을 살펴볼 때 청호동 사람들에게 서울말이 공식적이고 격식적인 상층어로 여겨진다면, 청호동 말은 사적이며 비격식적인 영역에서 사용될 수 있는 하층어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청호동 사람들의 실제 말 사용의 경향인 다중 언어 현상과 구분되는 관념적 차원의 주장에 불구하다.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청호동 1세대와 2세대 모두에게 청호동 말이 비공식적인 상황에 어울리는 하층어로 인식되고 있지만, 세대에 따라 그에 해당되는 상황 및 대화상대에게 청호동 말을 다르게 사용한다는 점이다. 곧, 비공식적 상황에서 친밀한 관계인 '청호동 사람'끼리 대화할 때 청호동 1세대들은 대개 청호동 말을 선택하는 것과 달리, 청호동 2세대들은 대화참여자들 간의 지위 차를 비교하여 청호동 말 혹은 서울말 중 선택하게 된다. 1세대들 사이에서 대화상황이 사적이며 대화참여자들이 마을 내부자인 경우 전통적으로 청호동 말의 '하대'를 주로 썼는데, 대화참여자들의 관계가 친밀한 경우 연령차에 관계없이 상호적으로 '하대'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2세대들의 말 사용에서 청호동 말의 낮은 말단계 사용은 확연히 줄었으며 사적인 상황 내 친밀한 관계인 대화참여자끼리 대화할 때에 청호동 말은 물론 서울말도 등장하게 된다. 2세대들의 달라진 말 사용과 그 변화를 발생시킨 동기를 살펴보기 전에 1세대들의 청호동 말 사용을 볼 것이다. 다음의 참여관찰 사례는 1세대들이 사용하는 청호동 말의 낮은 말단계체의 전통적인 사용양상을 잘 보여준다.

<사례 IV- 1.>

물리적 환경: 청호동 윗마을 A의 집
사회적 장면: 수술 후 거동이 어려운 A를 병문안 온 B가 A 그리고 A의 아들인 C와 이야기를 나눈다.
참가자: A (청호동 주민, 여성, 함경남도 홍원 출신, 80+), B (청호동 주민, 여성, 함경남도 북청 출신, 80+), C (청호동 주민, 남성, 청호동 출신, 50+)
A와 B는 몇 십년을 알아온 이웃으로 A가 B보다 다섯 살 연상이다. A, B, C는 서로 잘 아는 사이다.

**A:** 아마이 어째 어려운 걸음을 왔는데…….

B: 어려운 걸음은 무신[무슨]. 남이니?
C: 엄마 거기(B의 집)까지 가려면 업고 가야된다.
A: C야 갈 적에 저 아마이 업어다놔.
B: 아이! 그 업고 가니 무시기.
C: 자꾸 걸어야 돼 걸어야 돼! 우리 이모 봐. 못 걸어서 뻗정다리 되가지고 병원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A: 그럼.
B: 빙원[병원]도 갔니?
C: 그 벌써 들어간 지 꽤 됐다.
B: 어디 거진이[거진에]?
C: 아니 속초 옛날에 ○○병원 있잖아.
B: 거기 가있니?
C: 응 거기 가서 이제 뭐.
B: 수술을 자꾸 해서 뭘 하니!
C: 엄마도 자꾸 따라 하고 싶어서 그러잖아.

이상의 사회적 장면은 이웃을 병문안 간 비공식적 상황으로 설정될 수 있을 것이고 몇 십 년 동안 서로 알고 지낸 대화참여자들 사이는 친밀한 관계로 상정될 수 있을 것이다. 비공식적 대화상황과 대화참여자들의 관계에서 예상 가능하듯이 A, B, C는 모두 청호동 말을 선택하였으며 상호적으로 '하대' 표현을 사용하여 대화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아는 사람의 근황에 대하여 묻고 있다.

청호동 사람들에게 서울말 혹은 청호동 말의 선택은 대화 맥락 내에서 그들이 의도하는 말단계의 선택과도 직결된다. 대화참여자들이 선택한 말 외에 대화 내에서 사용되는 존댓말, 특히 말단계 역시 대화참여자들 사이의 사회적 거리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한국어 사용자들은 직위, 연령층, 성별의 특질에 따라 말단계를 선별하는데(왕한석 2010a: 262 참조), 이에 따른 존댓말의 양상은 대화의 사회적 장면 및 대화참여자들의 관계, 대화 상황의 분위기 등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말단계를 중심으로 이상의 사례를 살펴보자면, 모자관계인 A와 C를 제외한 A, B 그리고 B, C는 비친척관계이자 오랜 세월 알아온 친한 사이이다. 이들은 각각 다섯 살에서 서른 살 이상이라는 연령차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하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하대한다'고 일컬어지는 이상의 표현은 청호동 말의 2등급의 말단계 중 낮추는 단계에 해당하며,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은 아니지만 사회적 지위가 비슷한

사이에서 혹은 연령 등의 차이가 나지만 서로 친밀한 사이에서 두루 쓰이던 말단계이다. 상호적으로 쓰이는 '하대'표현은 서로 높이지도 낮추지도 않는 전통적 의미의 '반말'로 볼 수 있으며 대화참여자들의 사회적 거리가 가까운 경우 이상과 같은 전통적인 의미의 청호동 '반말'은 상대적으로 넓은 연령층 사이에서 통용되었다. 청호동 1세대들과 1.5세대들[46]은 오래 알고 지낸 친밀한 청호동 내부자들과 '하대'표현을 사용하여 대화를 하는데 익숙하다. 연구자는 청호동 주민의 말 사용을 참여관찰하던 중 고령의 청호동 1세대와 중장년층에 속하는 청호동 2세대가 마을회관에서 서로 낮추는 말단계를 상호적으로 사용하는 다른 예를 발견하기도 했다. 연구자는 대화에 참여한 청호동 1세대들에게 나이가 어린 청호동 2세대 남성과 서로 '하대'하는 이유를 직접 물어보았다.

<사례 IV- 2.>

물리적 환경: 청호동 갯배마을 노인회관
사회적 장면: 할머니들이 노인회관에서 낮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A가 그들을 놀린다.
참가자: A (청호동 주민, 남성, 60+), B (청호동 주민, 여성, 함경남도 북청 출신, 80+), C (청호동 주민, 여성, 함경남도 북청 출신, 90+), D (청호동 주민, 여성, 함경남도 북청 출신, 80+), E (청호동 주민, 여성, 강원도 출신, 80+)
A, B, C, D, E는 서로 잘 아는 사이다.

**연구자:** 왜 저 아저씨(A)는 할머니들한테 '뭐뭐 해요' 라고 안 해요?
**D:** 친해.
**연구자:** 친해요? 얼마나 친한데요? 본지 몇 년 됐는데요?
**D:** 친해서…… 그리고 저 사람 원래 말~:투가 저러잖니.
**E:** 친해도 원래 존대해야 맞는 건데…… .

연하자가 사용하는 '하대' 표현에 대해 연구자가 묻자 D는 '친해서' 괜찮다고 대답한다. 이북 출신인 D가 연하자인 A의 낮은 말단계 사용에 대하여 친밀감의 표

46) 중장년층에 속하는 청호동 2세대들, 곧 청호동이 번성하던 시기에 청호동에서 출생하여 과거의 청호동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2세대들 역시 이러한 표현에 익숙하다.

현으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A가 같은 청호동 사람이기에 '원래…… 저런 것'으로 용인된다. 그에 비하여 청호동 주민이지만 강원도 출신인 E는 '친해도 원래 존대해야 맞는' 것이라며 A의 '하대'표현을 존댓말 어법과 맞지 않는 것으로 평가한다. 출신 지역에 따라 청호동의 '하대'표현이 가지는 반말의 의미가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청호동 내 대부분의 1세대들 사이에서는 연령차에도 불구하고 친밀하다면 낮은 말단계를 택하여 대화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친밀한 내부자들 사이에서 '하대'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연령차를 거스르는 예의 없는 행동이 아니라고 받아들여지기에 아무런 흉이 되지도 않는다.

반면 청호동 2세대들의 경우 비공식적 대화상황 내 친한 사람들과 이야기할지라도 대화참여자들 사이의 지위를 비교하여 상대방의 지위에 적절한 말을 선택하는 것이 중시되므로, 비공식적 상황 내 친밀한 대화참여자들 사이에서도 사회적 지위, 특히 연령 지위에 대한 비교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상위자에게 서울말, 하위자에게 청호동 말을 사용하는 규칙이 발견된다. 그리하여 청호동 2세대들 사이에서 연령 기준을 중심으로 상위자에게는 표준말을, 하위자에게는 청호동 말을 사용하는 비상호적 언어선택 양상이 나타났다.

청호동 2세대들 사이에서는 친밀한 관계일지라도 무조건 청호동 말의 낮은 말단계의 상호적 사용으로 귀결되지 않고 대화참여자들 사이의 지위 차에 따라 각각 다른 언어를 선택하게 된다. 2세대들은 연령 지위를 고려하지 않고 '하대'표현을 서로 사용하는 상황은 상위 지위의 대화참여자를 존중하지 않기에 존댓말 어법에 부적절한 것으로 인식한다. 그러므로 2세대들은 1세대들과 달리 넓은 연령층 사이에서 청호동 말의 낮은 말단계가 사용되는 것을 내부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서울말 형태의 존댓말 사용이 늘며 친밀한 관계 내에서도 청호동 말의 사용이 확연히 주는 결과를 양산한다. '하대'표현으로 수렴되는 청호동 말은 대화참여자들 사이의 지위가 완전히 평등하거나 지위 차를 극복할 정도로 대화참여자 간의 사회적 거리가 가까울 때에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대에 따른 청호동 말의 선택 규칙과 그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를 통해 청호동의 젊은 세대들에게는 청호동 말, 특히 청호동 말에서 흔히 사용되는 청호동 말의 낮은 말단계가 상대방을 낮추는 '반말'로 여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2세대들이 1세대의 말 선택 규칙을 따라 지위 차를 고려하지 않고 '하대'표현을 사용한다면 무례하고 버릇없다는 평판을 듣게 될 것이다. 세대가 변화해감에 따라 청호동 말은 '친한 사이에서 쓸 수 있는 말'인 동시에 '거칠고 무뚝뚝한 말'이기에 '본심과 다르게 오해받기 쉬운 말'로 여겨지게 된다. 청호동 말에 대한 양가적인 의

미화는 세대에 따라 달라지는 청호동 말의 언어이데올로기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 2. 청호동의 세대와 언어이데올로기

청호동 사람들의 일상적 말하기는 개인 화자가 속한 세대에 따라 선택하는 언어자원은 물론 대화참여자와의 상호작용을 위한 말단계의 모습까지 상이하게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말 사용의 변화는 이들은 청호동의 세대가 겪는 사회적 · 환경적 변화 내에서 구성되며 청호동 말에 대한 상이한 관념들로 나타난다. 곧 자신의 청호동 말 사용에 대하여 청호동 사람들을 둘러싼 사회적 세계의 가치들을 투영하고, 그 둘을 한 데 엮는 논리적 설명을 개발하는 언어이데올로기가 세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유추할 수 있다.

언어이데올로기는 특정 집단이 말하는 실제의 언어에 대한 정의 및 사용양상이 아니라 그 집단이 공유하는 집단 내부의 논리적 사고에 따라 말 사용에 관한 가치체계를 만들어내어 현실을 합리화한다(Woolard 1998). 또한 언어이데올로기는 언어의 사용에 대한 개인 혹은 집단의 사회적 · 정치적 · 도덕적 신념이며 말 사용자들에 의해 자체적으로 구성되는 가치체계(Silverstein 1979, Irvine 1989)이다. 언어이데올로기는 언어 사용 집단을 둘러싼 사회적 세계의 영향을 받고 또 외부로 그 영향을 미치며 생성되고 재구성되는 특징을 지니기도 한다.

개인 혹은 집단이 자신 혹은 다른 대상에 관련되는 언어적 특징으로부터 사회문화적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은 언어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발생한다. 얼바인과 갈이 정리한 언어이데올로기의 기호학적 모델(Irvine and Gal 2000)은 언어이데올로기에 의해 제공되는 말과 대상의 연관관계 그리고 그러한 연결에서 구성되는 의미의 합리화에 대한 분석을 제공한다. 얼바인과 갈은 사람들이 흔히 결합하곤 하는 언어 변이형과 사회적 현상 사이의 고리에 집중하고 있는데, 특정 언어 변이형의 사용이 특정 사회적 정체성 혹은 화자에게 기대되는 전형적인 행위를 지표할 때 그 사용에 대하여 사회문화적 의미가 부가되는 것을 언어이데올로기의 작용을 통한 기호학적인 과정으로 보고, 그를 기호학적 모델의 세 가지 과정인 '아이콘화(iconization)', '상이한 차원의 순환성(fractal recursivity)', '삭제(erasure)'로 설명한다(Ibid.: 37−39 참조).

언어이데올로기에 의해 합리화되는 특정 언어와 개인 혹은 집단 간의 관계는 언어자원과 개인 혹은 집단의 유착을 정형화한다. 언어이데올로기는 집단 내에서 특정 언어 혹은 언어 사용을 정당화하는 논리 및 그에 적합한 판단을 생성해내고

그를 기준으로 '우리' 집단과 '그들' 집단으로 구분한다. 언어이데올로기는 언어이데올로기를 형성하고 적용하는 '우리'집단에 대한 이해와 정의로 연결되기에 언어 및 언어사용 양상과 자신의 정체성을 결부하는 방식은 다분히 언어이데올로기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언어이데올로기는 특정 언어 및 그의 사용과 사용집단에 대하여 진정성(authenticity)의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통해 '진짜' 언어 및 '진정한' 언어 사용 집단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Bucholtz 2003). 그리고 언어이데올로기가 설정하는 진정성의 성격과 그것이 부여된 언어 사용 패턴 및 언어 사용 집단은 고정불변의 가치로 유지되기 보다는 현실과의 끊임없는 협상에 의해 조정되며, 언어를 둘러싼 사회적 세계와 연결된 상태에서 상호적으로 형성되고 변화한다.

청호동 사람들의 청호동 말에 대한 언어 태도 및 정의의 변화는 그들이 위치한 사회적 환경의 변화 그리고 청호동 말에 대한 언어이데올로기의 변화와 직결되어 있다. 본 연구는 청호동의 세대에 따라 달리 강조되는 청호동 말의 언어이데올로기를 1세대의 언어이데올로기와 2세대의 언어이데올로기로 분류한다. 청호동 말을 둘러싼 언어이데올로기에 기호학적 모델을 적용하여 분류하고 검토하는 작업은 청호동 말의 언어적 특징이 언어이데올로기를 통해 청호동 사람에 대한 지표성을 가지게 되는 경위를 보여준다. 청호동의 두 세대에게서 나타나는 언어이데올로기는 청호동 말로 청호동 사람들의 다른 정체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 1) 청호동 1세대의 언어이데올로기: 핏줄로서의 청호동 말

청호동 1세대에게 청호동 말은 청호동 사람을 이루는 필수적인 문화적 요소로 여겨진다. 대다수의 청호동 1세대에게 청호동 말은 청호동 사람을 설명하는 데 빠질 수 없는 본질적인 특징이다. 그들에 의하면 청호동 말은 청호동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당연한 지식이자 그 중요성은 언제나 강조된다. 청호동 1세대에게 청호동 말은 청호동 사람의 출신과 연관되어 설명되며 청호동 말은 바꿀 수 없는 그들의 유전자로 비유된다. 이북에서 태어나 속초로 피난을 내려온 경험을 가지고 있는 1세대들은 청호동 말을 이북말과 동일시하며 청호동 사람으로서 청호동 말을 쓰는 것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로 여긴다("강원도 사람은 강원도 말 하고, 함경도 사람은 함경도 말 하고."). 이처럼 청호동 1세대들은 청호동 사람이라면 청호동 말에 대한 언어지식은 당연히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1세대들에게 청호동 사람의 청호동 말은 그들의 핏줄로 연상될 정도로 그들에게 체화된 가치

로 정의된다. 청호동 1세대들은 이북에서 태어난 그들 자신은 물론이고 청호동에서 나고 자란 그들의 자녀들 역시 이북말로 불릴 수 있는 청호동 말에 대한 지식을 내재하고 있다고 말한다.

<사례 IV- 3.>

**연구자:** 그럼 여기서는 무슨 말 써요?
**청호동 1세대 여성, 함경남도 북청군 출신, 이덕순 할머니:** 이 동네는 무슨 말이? 이 내가 내가 쓰는 이 마알~:이지 무슨.
-중간 생략-
**연구자:** 자제분들이나 손주분들은 이북말 쓰세요?
**이덕순 할머니:** 이북말쓰지. 우리 아~:[애]들은 다 이북말이지. 저기 저기 나가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가정에 들어오면 다 우리 이북말이지.
**연구자:** 그럼 할머니가 쓰시는 그 이북말이랑 진짜 이북땅에 있을 때 쓰던 이북말이랑 차이가 있어요?
**이덕순 할머니:** 지금이나 옛날이나 마알~:은 한 가지네. 여기 나왔다 해가지고 이남말을 할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네. 그저 옛날 아~:[애]때 말을 기양[그냥] 계속 하는기지. 그렇지.

이덕순 할머니와 같은 이북 출신의 청호동 1세대들은 자신의 말에 대해서 "한 가지", 곧 바뀔 수 없는 말이며 그렇기에 이북에서 쓰던 말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주장한다. 자신의 말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제들의 말에 대해서도 핏줄에 의한 유전을 강조한다. 특히 사적 영역인 가정 내에서 이북 출신의 부모의 영향에 의한 말의 유전과 계승은 당연시 된다.

1세대들에 따르면, 청호동 사람은 그들에게 체화된 언어지식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청호동 말을 사용한다고 말한다. 이는 앞선 장에서 살펴본 말 선택 규범 및 청호동 사람들의 실제 말 사용 사례와도 대치되는 주장이다. 청호동 말의 전적인 사용에 대한 청호동 1세대들의 주장은 그들의 생활 경험과도 맞닿아 있다. 청호동은 한국 전쟁 중 피난과 함께 형성된 임시 피난민 정착촌이었으며 그 후 이북 출신 피난민들이 모여들며 어촌 마을로 규모가 확대되었다. 그 당시 청호동은 이북 피난민들만이 주로 거주하였으며 관광지로 발전한 오늘날과 달리 청호동을 방문

하는 외부인들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요인들은 청호동을 청호동 말만이 주로 사용되는 언어적 환경으로 마련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사례 IV- 4.>

**청호동 1.5세대 남성, 함경남도 홍원군 출신, 이호영 할아버지:** 고향말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피난을 나와서 순수한…… 남한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면 잊어지겠지만 여기는 자리만 옮겼을 뿐이지 같이 살다보니까 변하지가 않는 거야……같은 동네에서 피난 나온 사람끼리 사니까 수십 년이 지나도 말이 변하지가 않는 거야.

이상의 청호동 1.5세대 남성 역시 같은 동네에서 피난 나와 같이 살아온 세월에 의해 말이 바뀔 수 없다고 말한다. 청호동 1세대들에게 청호동 말은 상황에 따라 구별되어 사용되기보다는 청호동 사람이라는 화자의 정체성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지 나오는 말이라고 여겨진다. 청호동 1세대들이 전하는 청호동 말의 내집단적 가치는 청호동 1세대들 사이에서 청호동 말과 청호동 사람 간의 상징성이 아주 견고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청호동 1세대의 언어이데올로기에서 나타나는 언어이데올로기의 기호학적 과정은 '삭제'이다. '삭제'란 사회언어적 특성의 단순화 과정으로 언어이데올로기적 논의와 어울리지 않는 언어적 사실들이 무시되거나 축소됨을 말한다(Irvine and Gal 2000: 39-39). 청호동 말은 어휘 및 말단계 그리고 형태론, 통사론 면에서 기타 언어형과 구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청호동 1세대들은 청호동 말의 음성학적 특징과 특정 방언 어휘만을 강조하며 그들을 청호동 말을 대표하는 특질로 내세운다.[47]

1세대의 언어이데올로기에서 나타나는 '삭제'는 '아이콘화'를 동반한다. '아이콘화'란 사회적 집단 혹은 행위를 지표하는 언어 자질이 그들의 상징적인 특성을 나

47) **청호동 1세대 여성, 함경남도 홍원군 출신, 서용주 할머니:** 이북사람들이 피난나와가  지고서는 고저 쌍욕을 막 하는 거야 인년 전년 이 간나 저 간나 이렇게…… 말소리도 크고. -중간 생략- 옛날에 피난 곰방 나와가지고 모두 고저 술을 마시고 고저 고향가지 못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쌍태도 막 나오고 그런 거 같애.

2014. 11. 3 참여관찰 중

타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특정 언어자질이 한 사회적 집단의 고유의 성질을 드러내는 것처럼 여겨지는 과정이다(Ibid.: 37). '아이콘화'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는 미국 남부 방언을 사용하는 화자들이다. 미국 남부 방언의 특징인 모음의 발음을 불분명하게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의 게으름, 즉 확실히 발음하는 것조차 귀찮아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곤 하는 것이 이러한 아이콘화의 한 예라 하겠다(Kuipers 1998: 18, 강윤희 2004: 25 재인용). 청호동 1세대의 언어이데올로기의 경우 '삭제'를 거쳐 청호동 말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여겨지는 청호동 말의 음성학적 특징과 청호동의 특정 어휘들, 곧 '쎈 억양'과 '높은 톤', '간나', '아새끼' 등의 어휘의 사용은 청호동 사람들의 억세고 거친 기질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 말은 질거든, 이북말은 뚝뚝해. 사람도 뚝뚝하잖아"[48]와 같은 설명은 청호동 1세대들에게 흔히 들을 수 있는데, 모두 청호동 말의 특징을 통해 청호동 사람을 설명하는 아이콘화를 보여준다.

청호동 1세대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청호동 말이 대외적으로 부정적 평가와 연관되어 왔음을 알고 있다. 청호동이 아닌 속초 시내 등에서 청호동 말을 사용하는 경우 그들의 청호동 말은 피난민, 불우한 환경, 억센 생활력 등을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지곤 했다. 그들이 흔히 사용하는 청호동 말은 일상적 차원의 부정적 낙인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위협을 정당화할 수 있는 단서로 여겨지기도 했다. 1980년대 이전 청호동 말을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간첩으로 오해를 받고 불심검문을 당하는 일도 빈번했다. 청호동 말 사용이 대외적으로 가지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청호동 사람들 내부에서는 청호동 말은 긍정적인 가치로 전해진다.

<사례 IV- 5.>

**청호동 2세대 남성, 부모가 함경남도 북청군 출신, 최윤국:** 우리가 나가서 어디서 막 얘기하잖아. 톤도 높고 억세잖아 '어휴 저 청호동새끼들 아~ 또 말질한다!' 이게 목소리가 높다 이거야. -중간 생략- 흐흐흐 억세다는거야. 살기 어렵기 때문에 억세야지.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자식들한테 밥이라도 멕이려 그러면은 부모가 억셀 수밖에 없는 거야 자식들 벌어먹이려면. 안 그러면 굶거든. 남하고 싸우면 이겨야 되고 큰 소리로 한 수 꿇는다 그러지, 큰 소리로 파악! ((입 주변에서 바깥 방향으로 손을 뻗으며)) 그래야 상대의 억압을 제압하는거야. 그

48) 2014. 8. 18 참여관찰 중

래야 물건을 팔고 '야 니 저리가 저리가! 내가 먼저 왔는데 니가 지랄이냐고! 내가 먼저 왔는데!' 그러면서 물건을 파는거야 응.

**청호동 1세대 여성, 함경남도 북청군 출신, 최윤국의 모친, 최서희 할머니:** 맞다! 싸움에서요 이기야 그 돈을 타 먹는다! 장사 나가서 어뚤하면은[멍청하면은] 돈도 못 타먹는다 으응.

2014. 1. 5 심층면담 중

위 사례의 청호동 2세대는 청호동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언급되는 청호동 말의 특징과 그 긍정적 효과를 설명하고 그의 어머니인 청호동 1세대는 그에 강하게 동의한다. 청호동 말이 상대적으로 거칠게 들린다는 점을 알지만 그 만큼 억세지 못 했다면 남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청호동 말의 상대적으로 큰 소리와 특유의 억양은 청호동 1세대들의 피난과 남한 사회 정착 등과 같은 고생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청호동 말의 큰 소리 등은 억세고 거칠지만 한편으로는 화통하고 앗쌀한 청호동 사람의 성격을 대표하는 단적인 사례로 든다. 즉, 그들이 생각하는 우리 집단의 특징을 대변하는 동시에 그를 긍정적인 의미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1세대의 언어이데올로기는 청호동 말의 특징들을 청호동 사람들의 긍정적인 가치로 보여준다.

시간이 지나며 청호동 1세대들의 언어이데올로기는 점점 약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시내의 도시문화에 더 익숙한 청호동 3세대들은 청호동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쓰는 말'로 여긴다. 또한 표준어와 다른 사투리이자 '이상한 말', 심지어 '나쁜 말'로 부르며 자신의 아이들이 배워서는 안 되는 말로 여긴다. 과거 청호동 1세대 사이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가정 내 청호동 말의 전수는 오늘날 청호동에서는 청호동 말이 가지는 부정적 의미에 의해 철저히 지양되고 있다. 청호동 1세대들도 청호동 말에 대한 젊은 세대의 평가를 알고 있고 자신의 청호동 말을 교정하려고 시도하기도 한다.

<사례 IV- 6.>

**청호동 1세대 여성, 함경남도 북청군 출신, 최서희 할머니: 금비랑 나영이[49]랑**

49) 금비, 나영은 최서희 할머니의 친손녀로 청호동 3세대에 해당한다.

**어째 할머니는 나쁜 말만 한대!** 이게 나쁜 말이 아니라고…… 나쁜 말만 한 대.

2014. 1. 13 심층면담 중

<사례 IV- 7.>

**청호동 1.5세대 남성, 함경남도 원산시 출신, 마도영 할아버지:** 아~:[아이]들이 다 여기 아~:들이니까 아버지도 아~:들 기준으로 말을 하지. 그래야 손자가 잘 배우지. 악센트 배우면 어떡해. (집에서) 말 쓰나 안 쓰나 며느리가 예의주시하지. -중간 생략- '우리 할아버지는 표준어 쓰는데 다른 할아버지들은 듣기 이상한 말을 한다!' 고 하더라, 손자가.

2013. 8. 30 심층면담 중

표준어 중심의 오늘날의 언어생활에서 청호동 사람들이 청호동 말에 대하여 취하던 긍정적인 태도는 청호동 말에 대한 부정화로 편중되고 있는 추세이다. 생활 구역이 청호동에만 한정되어 있던 고령자들과 달리 외지생활을 경험해보았으며 학교 교육으로 인해 청호동 말이 아닌 속초말 혹은 서울말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젊은 청호동 사람들에게 청호동 말이 지니는 부정적인 특징은 상대적으로 강화된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동반하여 청호동 2세대들의 언어이데올로기는 다르게 나타난다.

### 2) 청호동 2세대의 언어이데올로기: 상황변이어로서의 청호동 말

집단의 언어이데올로기는 언어의 동질성(language homogeneity)을 전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것이 곧 집단 내 단일한 언어이데올로기의 발생만을 수반하지 않는다(Kroskrity 2000 참조). 집단 내에서 특정 언어이데올로기의 발생이 우세할지라도 언어이데올로기를 이용하여 '우리'집단을 정의하는 방식은 동일집단 내에서도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청호동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앞서 본 청호동 1세대의 언어이데올로기가 보이는 청호동 말과 청호동 사람의 긍정적 연결이 모든 구성원들에게서 동일한 방식으로 연관지어지는 것은 아니며, 청호동 사람들 사이에서 청호동 말이 균일하게 공유되는 것은 아니다. 청호동 2세대들에게 청호동 말은 곧 상황적 맥락에 따른 적절한 화용론적 가치이다. 그렇기에 청호동 2세대들에게 청호동 말은 일종의 상황변이어(register)로 여겨진다고 볼 수 있다.

청호동 2세대들은 청호동 1세대들의 자식 뻘로 청호동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낸 이들이다. 피난민 정체성이 남아있는 1세대 그리고 자신을 '속초 사람', '강원도 사람'으로 인식하는 3세대 사이에 낀 청호동 2세대만이 자신을 남한 사회의 일원으로 여기는 동시에 기타 지역과 구분되는 '청호동 사람'으로 여긴다. 청호동 초기에 유입되어 함께 산 주민일지라도 암묵적으로 고향이 이북인지 이남인지를 따지던 청호동 1세대들과 달리 청호동 2세대들은 청호동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라면 부모의 고향과 무관하게 당연히 청호동 사람에 속한다고 이야기한다.[50] 청호동의 말 역시 이북 출신 청호동 사람에게 한정되기 보다는 함께 어울려 산 청호동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되는" 문화적 요소로 간주된다. 실제로 청호동 말에 대한 자료 조사에서 청호동 2세대들은 가족 출신을 기준으로 심층면담 후보를 선별하기보다 실제 말 사용 능력, 곧 청호동 말을 잘 기억하고 자주 사용하는 2세대들을 추천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족의 고향이 이남인 청호동 2세대들도 어린 시절 청호동에서 자라며 집 안팎에서 항상 청호동 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청호동 1세대가 누누이 강조하는 청호동 말의 상징성은 청호동 2세대들에게도 전해진다. 청호동 2세대들 역시 청호동 말의 특수성을 잘 알고 있으며 청호동 말은 청호동 사람만이 가지는 유일무이한 특징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2세대들이 주장하는 청호동 말의 중요성은 관념적 차원과 실제 사용 차원에서 상이하게 다르게 나타난다.

청호동 2세대들에게 청호동 말이 지니는 상징성은 청호동 사람을 대표하는 것으로 여전히 강조되지만, 서울말의 사용이 빈번한 오늘날 청호동 말의 사용은 점점 줄고 있다. 우선 청호동에서 사는 청호동 사람들이 줄어들며 청호동 문화의 중핵적인 요소인 청호동 말을 알고 그를 구사하는 사람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 청호동에서 거주하던 청호동 1세대들이 고령화되며 세상을 떠나거나 그들을 부양할 자녀를 따라 청호동을 나온다. 2세대나 3세대들은 시내에서 떨어져 있으며 일자리가 없는 청호동에 남아있을 명분을 찾지 못한다. 청호동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4세대들이 소수만 남으며 청호초등학교의 재학생 수 역시 급격히 줄어들었다. 2세대들

---

50) **연구자:** 궁금한 게 그런 게 중요한가요? 청호동에 사셨던 분들 그리고 살아서 계속 만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누구네 부모님은 이북에서 오셨고 누구네 부모님은 이북에서 오시지 않았고-
**청호동 2세대 남성, 부모 모두 함경남도 단천군 출신, 박상수:** -아니 안 중요해.
**연구자:** 안 중요해요? 그냥 다 청호동 사람이에요?
**박상수:** 응 안 중요해. 그게 뭐 중요하나.
2013. 11. 21 심층면담 중

에게서 나타나는 청호동 말 사용의 축소는 그들의 생활 경험과도 맞닿아있다. 청호동 말에 전적으로 노출되던 유년기를 지나 시내에 위치한 중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며 2세대들의 청호동 말 사용은 급격히 줄어든다. 청호동 2세대들이라면 대부분 경험하는 청년기의 외지 생활 역시 서울말 등의 기타 언어자원의 습득과 그것의 사용을 확대한다. 시내에서 근무하는 2세대들은 물론 청호동 내 관광업을 경영하는 2세대들 역시 청호동 말을 사용하여 상호작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관광객들을 대면하는 업종에 주로 종사하는 2세대들은 손님들을 응대하는 상황에서 굳이 거칠고 센 청호동 말을 고수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듯 했다.[51]

청호동 2세대들 사이에서 청호동 말의 일상적 사용을 통해 자신을 청호동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을 찾기 힘들다. 2세대들은 자신의 본적과 유년기의 성장배경이 청호동이기에 자신을 청호동 사람으로 규정하는 이들이 대부분이고 일상적으로 청호동 말을 쓴다고 인정하는 이들은 드물다. 2세대들이 청호동 말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2세대들 중에서도 젊은 세대들일수록 자신이 “청호동 말보다 순한 말”인 표준어를 쓰고 있다고 답했으며 외부 사람들이 말씨를 지적할 때에나 자신이 특수한 청호동 말을 쓴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고 말했다. 2세대들이 청호동 말을 쓴다고 자각하는 경우는 감정적으로 흥분하거나 동창생들을 만날 때에 한정됐다. 청호동 2세대들은 외부인과의 대화적 상호작용이나 격식적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는 서울말을 청호동 사람과의 대화에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격식성 또는 사회적 거리를 그들의 말 사용에 투영하기도 한다. 이는 외부집단과 청호동 사람 사이의 말 사용에서 보이는 대립적 관계를 청호동 사람 내부로 재투사하는 상이한 차원의 순환성의 한 예로 들 수 있다.

청호동 2세대들의 청호동 말의 실제 사용은 청호동 사람들이 강조하는 청호동 말과 청호동 사람의 연결과 자칫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청호동 말 그 자체는 높은 내집단적 가치를 보여주는 중핵적인 문화적 요소로 평가되지만 그것의 실제 사용은 점점 지엽적인 상황과 사회적 관계 내에서만 한정되어 발생한다. 청호동의 2세대들은 청호동 말 사용의 축소 경향과 관념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유지되는 청호동 말과 청호동 사람의 밀접한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언어이데올로기의 기호학적 과정 중 ‘삭제’와 ‘아이콘화’의 작동과 상호적 결합은 청호동 2세대들 사이에서도 발견된다. 청호동 1세대들처럼 청호동 2세대들도 청호동 말의 특징에 대하여 청호동 말의 음성학적 · 어휘적 특징만을 주로 언급한

51) 청호동에서 관광업을 꾸리는 2세대 중 다수가 주변인들로부터 사업을 위해 말씨를 고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들어본 적 있다고 밝혔다.

다. 청호동 사람들이 강조하는 청호동 말의 특징인 '쎈 소리'와 특유의 어휘들은 청호동 말의 특징으로 대두된다. 그러한 언어적 특징은 '아이콘화'를 통해 청호동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우리(청호동 사람들)가 또 목소리가 특이하기 때문에 사무실 같은 데서는 목소리 토온~이 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 딱 듣고"바로 청호동 사람임을 알 수 있다[52]고 청호동 2세대들은 말한다.

청호동 2세대들은 청호동 1세대들과 동일한 언어적 특징들을 청호동 말의 특징으로 지목하고, 청호동 말을 청호동 사람에 대한 하나의 문화적 상징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청호동 1세대들이 청호동 사람 내부에서 발생하는 청호동 말을 긍정적인 내집단적 가치로 보는 것과 달리, 청호동 2세대들은 청호동 말을 청호동 사람의 긍정적인 가치로 직결하지 않는다. 청호동 2세대들에게 청호동 말은 대화 상황에 따라 그리고 말 사용 맥락에 따라 의미가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지닌다. 청호동 2세대들의 언어이데올로기는 상황에 따라 청호동 말에 대한 상반된 해석을 매개한다.

청호동 사람들 사이에서도 청호동 2세대들에게 청호동 말은 대화참여자와의 사회적 거리의 정도에 따라 상반된 평가를 불러일으킨다. 청호동 말을 듣고 자란 2세대들은 청호동 말을 "고향의 언어", 즉 자신의 제1 언어라고 주장한다. 청호동 출신만이 아는 청호동 어휘의 사용에 의해 청호동 2세대들은 여전히 '우리'집단으로 집결된다. 동시에 부적절한 말 상황과 대화 참여자에게 사용되는 청호동 말은 내집단에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보이기도 한다.

청호동 말의 문화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청호동 2세대들 사이에서 청호동 말을 구사한다고 평가될 수 있는 대표적인 두 자질은, 청호동 말의 음성학적 특징과 어휘 목록을 알고 사용하는 것, 곧 말소리에 청호동 특유의 억양이 나타나거나 청호동에서 듣고 배운 어휘들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2세대들 사이에서 청호동 말 사용은 지식의 차원보다 화용론적 차원이 훨씬 더 중요하다. 다음의 관찰 사례는 청호동 말 중 청호동의 어휘를 통해 청호동 사람으로 인정받는 한 장면을 보여준다. 이는 오늘날 청호동 말 사용에서 적절한 화용론적 지식의 중요성을 드러낸다.

52) 2014. 1. 11 심층면담 중

<사례 Ⅳ- 8.>

청호동 애향모임에 동참한 연구자를 둘러싸고 청호동 사람들이 그 동안의 연구 성과에 대한 질문을 하는 장면

**청호동 2세대 남성 F:** 그럼 아바이마을에 대해서 속속들이 아니?

**연구자:** 알죠 이제는……

**청호동 2세대 남성, 어머니가 함경남도 북청군 출신, 선정민:** 정말 아바이마을에 대해서 다 안다고? 이건 모를 걸. 아바이에 대해 모르는 게 있어. 저번에 어느 술꾼이 오더니 아바이식당[53]간판 보고 '너 아바이식당이야? 너 아바이 알아?' 그래서 내가 그냥 보고 있으니까 '너 아바이 몰라, 이 어방떼가리!' 이러고 가더라. ((연구자 제외한 일동 폭소))

**청호동 2세대, 남성F:** 맞네 어방떼가리 아는 거 보면.

**청호동 2세대 남성, 부모 모두 함경남도 북청군 출신, 최윤국:** 어방떼가리 알면 아바이 아는 거 맞지, 음.

**일행 중 하나:** 아바이 없지, 다 돌아가셨는데.

2013. 11. 4 참여관찰 중

듣는 즉시 화자의 사회적 배경을 유추하고 판단할 수 있는 억양과 달리 청호동의 특수한 어휘는 그것의 의미를 알고 대화의 적당한 상황과 장면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어의 의미를 모른다면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단어의 의미를 안다 하여도 해당 어휘를 적절한 상황에 위치 짓지 못한다면 대화 내 의사소통의 불발이나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청호동 사람들 사이에서 청호동 말을 통해 청호동 사람으로 인정받는 경우 전자가 강조된다. 청호동 사람들이 말하는 어휘의 차원에서 청호동 말을 안다는 것은 청호동 말의 지시적 의미, 곧 어휘의 의미에 대한 지식의 유무로 판명된다. 연구자와의 대화 도중 청호동 2세대 남성이 연구자에게 들려주는 한 취객에 대한 일화는 역시 그를 보여준다. 외부자인 연구자에 대한 내부자적 자격에 대한 검증("그럼 아바이마을에 대해서 속속들이 아니?") 도중, 청호동 2세대가 들려준 일화 속의 취객은 청호동에서만 전해지는 '어방떼가리'라는 단어를 알고 있으며 청호동 2세대 남성에게 '어방떼가리'를 사용한다. 또래 혹은 연하자에게 호칭으로 사용되는 경우 상대방에 대

53) 남성 G가 경영하는 식당이다. 청호동 내 위치.

한 약한 정도의 낮추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방떼가리'의 사용 일화를 들은 청호동 2세대들은 취객의 말 사용에 함께 분노하지 않으며 그를 웃어넘긴다. 또한 취객의 말 사용에 대하여 "어방떼가리 아는 거 보면 아바이(청호동 1세대로 대표되는 청호동 사람) 아는 거 맞"다 등의 평가를 내리며 자신들과 같은 내집단으로 포함한다. 이상의 참여관찰 당시 '어방떼가리'의 의미를 알지 못해 연구대상자들과 함께 웃을 수 없었던 연구자는, 일화 속에서 시비를 거는 취객보다 오히려 내부자적 자격이 미달하다고 평가되었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청호동의 특수한 어휘와 그 의미를 아는 것은 청호동 사람이라면 지녀야 할 문화적 · 언어적 지식으로 간주되며 청호동 사람들 사이에서는 물론 연구자와 같은 외부인들에게도 청호동 및 청호동 사람들에 대한 지식의 정도를 판가름 하는, 일종의 내부자적 자격에 대한 시험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어방떼가리' 일화를 들은 이후 연구자는 청호동에서 쓰이는 특수한 어휘들을 수집하여 그 뜻을 연구대상자들에게 묻곤 했는데, 이에 대하여 연구대상자들은 "그것을 어디서 듣고 알게 되었냐"며 신기해하였고, 문답을 통해 어휘의 뜻을 알게 된 연구자에게 "이제 청호동 사람이 다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이상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청호동 2세대들은 청호동 말에 대한 지시적 의미의 지식 보유 차원에서 청호동 사람을 변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청호동에서 쓰이던 단어의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청호동 사람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호동 말에 대한 지식의 보유 차원만을 강조하는 2세대들의 설명과 달리 2세대들 사이에서 말을 통한 청호동 사람의 정체성은 특정 화자가 보유하는 어휘 차원의 지식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휘를 화용론적으로 어떻게 적절히 사용하는가를 통해 평가될 수 있다. '어방떼가리'를 사용한 일화 속의 취객 역시 2세대들의 평가와 달리 어휘의 화용론적 지식에 의해 청호동 사람으로 평가된다. 청호동 사람들 사이에서 취객은 어휘의 지시적 의미를 알기에 "아바이를 아는" 청호동 사람으로 인정되지만, 실제로 일화 속 취객은 '어방떼가리'라는 어휘와 그것의 지시적 의미를 알고 그를 대화의 적재적소에 사용함으로서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청호동 말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며, 그가 가진 사회언어적 능력에 의해 그는 '청호동 사람'으로 인정된다.[54]

54) Kang의 연구(2012)의 대상인 싱가포르로 조기유학 온 한국인 가족들은 영어, 중국어, 싱글리쉬를 적절한 상황과 맥락에 따라 사용하는 사회언어적 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을 '아시아적 세계인' 정체성을 만드는 바탕으로 삼으며 사회언어적 능력을 이상적 정체성의 핵심적인 조건으로 설정한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청호동 2세대들은 청호동 말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며 사회언어학적 능력을 간

오늘날 청호동 말을 통해 청호동 사람으로 인정되는 경우 청호동 말은 그것이 쓰이는 상황과 분리될 수 없다. 청호동 말에 대한 관념적 지식에 대한 이해를 넘어 오늘날의 상황에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청호동 말의 발생에 적절하게 행위하는가, 즉 청호동 말의 사회언어적 능력을 통해 다른 대화자들로부터 '청호동 말을 안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청호동 말에 대한 '지식'을 넘어 '행위'로 나타날 때 청호동 말은 그것이 위치하는 대화 상황 및 맥락에서 분리할 수 없는 사회적인 과정으로서 청호동 사람의 평가와 확인의 대상이 된다. 다음에서 살펴볼 청호동 특유의 호칭어 사용에 대한 2세대들의 설명은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준다.

<사례 IV- 9.>

**청호동 혼입 여성(청호동 2세대와 결혼), 서울 출신, 최서희 할머니 첫째 며느리**[55]**:** 그니까 여기서는 '이 간나 저 간나' 그래도 나쁜 욕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에이 이놈의 기집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연구자:** 종간나 말고 그냥 간나만……?

**최서희 할머니 첫째 며느리:** 어. 반가워서도 그냥 '아휴 이 간나야 오랜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청호동 1세대 여성, 함경남도 북청군 출신, 최서희 할머니:** 우리 친구드이는 오랜만에 보면 '야 이 간나야 반갑구나!'

2014. 1. 13 심층면담 중

이상의 연구대상자들이 설명하듯이 청호동의 호칭어가 대화자들 사이의 친밀감을 표현하려는 의도로 사용된다는 점은 청호동 말을 아는 청호동 사람이라면 모두 가지고 있는 청호동 호칭어에 대한 언어적 · 문화적 지식이다. 하지만 2세대들이 설명하는 청호동 호칭어의 사용규칙은 실제 사용과 유리된 이념적인 문화적

---

과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청호동 말을 안다'는 진술에는 사회언어적 차원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 사례의 취객이 사용하는 '어방떼가리'가 발화 상황이나 맥락에 부적절했다면, 청호동 사람들은 취객의 말에 대하여 내부자 자격에 대한 평가를 내리거나 그를 웃어넘기지 않고 그러한 언사에 분노를 표현하거나 비난을 쏟아냈을 것이기 때문이다.

55) 그는 서울 출신이지만 친정이 함경남도 홍원이기에 청호동 말에 대해서 "어렸을 때 집에서 많이 들어서 낯설지 않았다"고 말한다.

지식으로 존재하며 오늘날 청호동 호칭어의 사용은 이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같은 청호동 사람 사이에서 연상자가 연하자를 부르는, 혹은 동년배끼리 상호간 사용하는 청호동 호칭어가 무리 없이 받아들여진다는 설명과 달리 2세대들 사이에서 이처럼 무변별적으로 '간나'를 사용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간나'로 대표되는 청호동 특유의 호칭어 사용은 상대방을 공손하지 않게 부르는 표현이기에 상대방의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그것을 구사하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마저 일부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닌다. 다수의 청호동 2세대들은 아무리 친밀한 사이일지라도 청호동 사람이 아닌 외부 사람에게 청호동 호칭어를 사용하는 것은 지양한다고 밝혔다. 청호동의 호칭어가 기본적으로 하대하는 표현이기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사용 의도를 "설명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56] 같은 청호동 사람들 사이에서, 심지어 친척 간에도 청호동 호칭어는 그가 가지는 비격식성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기 조심스럽다고 말한다.

<사례 IV- 10.>

**청호동 2세대 남성, 아버지가 함경남도 북청군 출신, 장만길:** 아 그럼 우리 때는 되나? 누구한테 그래? 뭐 그렇다고 우리 자식한테 애기해? 딸래미한테 지금 스물 다섯 여섯 먹은 애한테 '이 간나 정신 줄 나갔니?' 그러면 '이 아빠가 정신줄 나갔나?' 그러지.

2013. 11. 13 심층면담 중

이상의 청호동 2세대 남성은 청호동 내에서 전통적으로 '간나'라는 호칭어가 사용되던 자신의 딸에게 그를 사용하는 일은 오늘날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청호동의 호칭어 사용의 위험성은 그에 대한 청호동 2세대들의 설명인 '욕 아닌 욕'에서도 나타난다. 과거의 청호동 호칭어 사용을 알고 있는 2세대들은 연상자들(특히 1세대 어른들)에 의해 이상과 같이 불리는 것에 대해서는 별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한다. 청호동 사람이라면 낮추어 부르는 말 이면의 그 정서적 의도를 알기에 그냥 "불편함"없이 넘길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청호동의 호칭어가 언제나 혹은 누구에게나 "정겨운"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청

56) 물론 개인차가 존재하지만 청호동 사람들 내에서는 대체적으로 청호동 사람들 사이에서만 청호동의 호칭어를 쓴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룬다.

호동의 호칭어를 사용하여 타인을 부르는 것을 꺼리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청호동 2세대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청호동 말의 지시적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것의 사용이 나타낼 사회문화적 의미를 중요시 여기기에 청호동의 호칭어들을 무변별적으로 사용하기를 회피한다.

<사례 IV- 11.>

**청호동 2세대, 부모 모두 이남 출신, 언니 황영임:**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면서 뭘 느꼈냐면 나가서 이런 말을 쓰는 거 자체가 굉장히 큰 욕으로 느껴지는 거야. 누가 말은 안 해 줬는데 쌍스럽고 거칠고.

**연구자:** 아 들으셔도? 누가 사장님을 간나라고 지칭을 하셔도?

**언니 황영임:** 엉엉. 예를 들면 내가 인제 ((옆 사람을 가리키며)) 이 친구는 나랑 청호동 친구가 아니라 다른 쪽에서 만나는 친구야. 근데 저기서 '야 이 간나야' ((손 흔들며 인사하는 흉내)) 그러면 기분이 확 나빠지지. 근데 한 번은 그냥 넘어가지만 두 번째는 주의를 꼭 주지.

**연구자:** 이 타이밍이 중요하네요. 언제 쓰느냐 누구와 함께 쓰느냐.

**동생 황영미:** 그렇지.

**언니 황영임:** 때와 장소가 중요해. 왜냐면 이 간나 저 간나가 싫어서 정말 죽을 만큼 듣기 싫어서 동창회 모임을 안 나오는 친구들도 많아.

2014. 1. 13 심층면담 중

마을 내에서 일상적으로 '간나', '아새끼'가 사용되던 과거와 달리 청호동 2세대들은 대화상황 그리고 대화 상대를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써야 하는 말이라고 여겼다. 오늘날 사용되는 청호동의 호칭어는 "쌍년"이라는 욕에 비견될 정도로 비속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청호동이 아닌 다른 곳에서 누군가 자신을 그렇게 부른다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더라도 "기분이 확 나빠질 수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청호동의 호칭어들은 그 사용을 허락하는 발생 조건 내에서 사용되며 상황 내 청호동 사람들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한다. 청호동 말 사용을 전제하는 상황성은 대화참여자들의 소통을 통한 집합적 지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청호동 말 사용이 의식하는 상황성에 대하여 많은 청호동 2세대들은 청호동 말이 "사전에서 단어 찾듯이 줄줄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하면서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오는 말이며,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고 그런 말을 기억하는 줄도 몰

랐지만 청호동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얘기하며 나도 모르게 말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대화를 통한 청호동 말의 중첩과 그를 통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청호동 말의 사용은 역시 청호동 말의 발생 상황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기에 청호동 1세대들은 연구자에게 청호동 말을 들으려면 청호동 말을 잘 하는 청호동 사람을 찾아가라고 조언하며 청호동 말 사용에 대한 개인 화자의 언어지식을 강조하였던 반면, 2세대들은 청호동 말 발생의 상황성을 강조하며 동창회나 술자리와 같은 세부적인 상황에서 청호동 말을 들을 수 있다고 답한다.

2세대에게 이상의 청호동 호칭어는 언어 지식을 가진 개인 화자가 언제든지 구사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배경과 대화참여자의 조건을 충족한 상황에서만 쓸 수 있는 상황변이어로 여겨진다. 청호동 말의 발생 조건은 곧 청호동 호칭어의 발생 조건과 동일하다. 2세대들은 청호동 말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말하지만 이는 언제나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상황 중심의 조건이 허락할 때 사용되는 청호동 말은 대화자들 사이에서 무리 없이 받아들여지고 대화참여자들은 특정 상황 내 대화에서 청호동 말 사용을 둘러싸고 그 과격함의 정도와 사용을 경합하기도 한다. 그리고 청호동 말의 과격함의 정도와 그것의 허용은 곧 대화참여자들의 친밀한 관계를 드러내는 바로미터로 여길 수 있을 것이다.[57]

일례로 남성 연하자를 지칭하는 '아새끼' 사용을 통해 싸움이 일어난 일화를 설명했던 한 청호동 2세대 A는 자신을 '아새끼'로 지칭한 다른 청호동 주민에 대하여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누구보고 새끼 새끼 해. 그냥 콱 받아버렸지."라면서 성을 낸다. 동시에 A는 자신과 친밀한 B와 서로 '부동산 새끼', '식당 새끼'[58] 라고 스스럼없이 호칭 및 지칭한다.

57) 청호동 말의 무조건적 사용이 불러올 사회적 위험성은 미국 아리조나(Arizona) 주의 서부 아파치(Western Apache)족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백인에 대한 농담을 연상시킨다. 서부 아파치 족의 사회 내에서 공공의 적으로 인식되는 백인을 흉내 내는 농담은 대화참여자들의 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농담이 지니는 부정적 함의—특히 상대방을 깔보는 태도—에 의해 관계를 파괴할 수도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에 아파치 족 역시 어린 시절부터 생애주기를 함께 해온 친밀한 개인들 사이에서, 특히 동일한 공동체에 속한 나이든 남성들 사이에서 백인에 대한 농담을 연행한다(Basso 1979). 청호동 말 역시 조건화된 특정 상황에서 사용될 때에 대화참여자들의 관계를 좁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58) 부동산과 식당은 두 2세대가 경영하는 가게에 따라 붙인 별칭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례 IV- 12.>

물리적 환경: 청호동 윗 마을
사회적 장면: B가 부동산을 찾아와서 A에게 가게 주인의 행방을 묻는다.
참가자: A(청호동 주민, 남성, 청호동 출신, 부모가 함경남도 출신, 50+), B (외부인, 남성, 50+)

**B:** 부동산 김씨는 어디갔어?
**A:** 아 부동산 새끼 또 문 잠그고 일 보러.
**B:** 부동산 새끼가 뭐야 새끼가.
**A:** 뭐 어때요. 여기서 일반적으로 쓰는 말인데.

속초 출신인 B가 A의 말에 대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교정하려 하지만, A는 자신이 사용한 지칭어인 '부동산 새끼'에 대하여 '여기서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라고 평하며 상황을 무마한다. 하지만 B의 말과 달리 청호동 2세대들 사이에서 이상의 호칭어 · 지칭어는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라기보다는 상대방과의 지위 및 친밀감에 대하여 암묵적인 상호합의에 이른 후에야 사용할 수 있는 말이다. '적절한' 수위의 청호동 호칭어의 사용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과격함을 통해 청호동 사람들 사이의 돈독한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기도 한다.

## 3. 세대별 언어이데올로기의 변이와 청호동 말의 전망

청호동 말을 둘러싼 두 세대와 그들이 주장하는 언어이데올로기는 시대적 · 집단 내부적 변화에 동반하여 청호동 사람들 사이에서 변화해온 청호동 말에 대한 인식과 그들의 말 사용을 보여준다. 청호동 1세대들의 언어이데올로기는 청호동 말을 그들의 '핏줄'로 받아들이며 청호동 말과 청호동 사람의 연결을 강조하고, 청호동 말의 특성을 통해 청호동 사람의 긍정적 가치를 부각한다. 그에 반해 청호동 2세대들의 언어이데올로기는 피난공동체이자 마을공동체인 청호동이 와해되며 청호동 말 사용이 위축되고 있음을 알린다. 청호동 2세대들에게 청호동 말이 상징하는 청호동 사람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그들의 일상적 말하기에서 청호동 말은 특정 말 상황에만 적합한 상황변이어로 여겨진다. 2세대들은 청호동 말을 사용하는 것이 대화참여자간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고 청호동 말을 통해 우리의식을 드러

내기도 하지만 청호동 말의 부적절한 사용, 특히 대화참여자 간의 사회적 거리를 고려하지 않는 청호동 말의 사용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며 오히려 대화참여자들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청호동 2세대들은 세대 변화와 함께 청호동 말에 대한 집단 내부의 평가가 양가성에서 청호동 말의 부정성으로 점점 옮겨가고 있다고 본다.

<사례 IV- 13.>

**청호동 2세대 남성, 부모 모두 함경남도 북청군 출신, 최윤국:** 우리 세대가 나가면 거의 없어지는 거지. 3세대들은 거의 쓰는 애들 없을 거야. 있어도 우리처럼 말 속에 툭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들이 청호동이 고향이니까 우리 부모들이 쓰던 용어가 이거다, 야 **어찌** 그러니!'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스갯소리로 한 마디 하고 그러겠지. '야 **어찌** 그러니!' (하면은) '야 저 새끼 청호동 새끼 아니라 그럴까봐 저 말 하는구나.' 이렇게 농담조로 할 수는 있어도 지금처럼 말 속에 이렇게 파바박 튀어나오진 않지. 안 쓰지. 그 때 되면 아마 촌놈이라 그럴거야. 저 촌놈 촌놈! 아직까지 이북말 쓴다고 욕 얻어먹을 거야 그 시대에는. 지금은 그래도 가끔 가다가 반반이겠지만은 막 쓴다고 하면 '아휴 정겹다' 하는 얘기도 있고 '아우 억세다' 그러고, 욕도 막 하면 '아휴 시끄럽다 욕 한다' 그런 사람도 반반이겠지만은 가면 갈수록은 점점점 말투는 좀 좋지 않은 말투니까 가능하면 좋지 않은 말투니까 없어지겠지. 근데 우리같이 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야. 또 남아 있다 그러면 50대 초반 40대 후반…… 점점 옅어지겠지.

2014. 1. 11 심층면담 중

심층면담에 참여한 위의 청호동 2세대는 현재 청호동 2세대 사이에서 청호동 말이 대화적 상호작용 중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에 비해, 2세대 후부터 청호동 말은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스갯소리로" 곧 정형화된 청호동 말의 부분만이 농담과 같은 특수한 상황 내에서 사용될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2세대의 청호동 말의 사용이 "억세다" 그리고 "정겹다"라는 "반반"의 양가적 인상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달리, 3세대 이후의 청호동 말은 청호동 사람들 사이에서도 "좋지 않은 말투"로 평가되며 "옅어지다"가 결국 "없어진다"라고 예측한다. 이처럼 청호동의 2세

대들조차도 청호동 말의 약화를 알고 있으며 청호동 말의 소멸이 멀지 않음을 예견한다. 청호동과 청호동 구성원의 변화 그리고 청호동 내에서 나타나는 표준어 중심의 언어생활은 청호동 말의 사용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청호동 내에서 전해 내려오던 청호동 말의 문화적 상징성마저 앗아간다. 청호동 말을 통해 자신을 청호동 사람으로 자각하는 이들이 줄어들며 청호동 말과 청호동 사람의 연결은 단절될 것이다. 청호동 말의 대내적 사용은 대외적 사용에서 그러하듯 부정적 의미화에 더욱 편중되며 청호동 말 사용을 통해 청호동 사람의 정체성 역시 '끈질긴 생활력'과 같은 긍정적 가치보다는 '거친 촌스러움'만이 부각될 것이다. 일상적 말하기의 영역에서 청호동 말의 사용은 미미해질 것이며, 청호동 말은 실제 사용의 가치와 관념적 가치가 판이하게 다른, 화석화된 상징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 Ⅴ. 언어이데올로기와 정체성의 연행
## - 속초북청사자놀음을 중심으로

피난민 집단촌으로부터 시작한 청호동은 피난 후 임시 정착, 분단의 지속 그리고 남한사회 내의 적응을 겪으며 청호동과 청호동의 구성원들은 사회적 변화에 적응해왔다. 청호동 사람의 주요한 특징으로 지목되며 청호동 사람들의 출신과 고향을 주지시키던 청호동 말의 사용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점 줄어갔으며, 청호동 말을 통해 청호동 사람들을 정의하고 설명하는 청호동 말의 언어이데올로기 역시 변화한다. 청호동 말 사용을 청호동 사람의 내집단 응집과 연계하는 청호동 1세대들의 언어이데올로기는 청호동 말에 대한 가치를 언제나 긍정적으로 해석해왔다. 반면 2세대들이 주장하는 언어이데올로기는 청호동의 후속세대들의 생활 경험 및 생활환경의 변화를 지목하고, 상황에 따라 청호동 말에 대한 양가적 평가가 나타난다고 말한다. 청호동 내 거주하는 청호동 출신들이 줄어들고 청호동 사람들의 일상적 상호작용이 드물게 발생하게 되며 청호동 말은 속초말, 서울말 등의 기타 언어자원보다 덜 사용되고 청호동 사람들 사이의 대화에서도 지위와 사회적 거리를 고려하여 친밀한 관계에서만 할 수 있는 말로 여겨지고 있었다. 청호동 말 사용의 소멸은 청호동 사람들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여지며, 이전의 세대가 말하던 청호동 말과 청호동 사람의 결합 그리고 청호동 말 사용을 통한 청호동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자각 역시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청호동 사람들의 말 사용에서 발견되는 언어이데올로기가 청호동 말의 부정적 평가로 편중되고 있지만 특수한 말 상황에서 청호동 말은 여전히 청호동 사람을 상징하는 중요한 문화적 표지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리고 문화적 표지로서의 청호동 말은 무표적 의사소통수단에 머물러있는 것이 아니라 말 사용을 통해 특정한 자신의 정체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청호동 말을 사용하는 '우리'를 다른 집단으로부터 구별하고 특화하는 힘을 가지게 된다. 주지해야 할 점은 이와 같은 과정은 언제나 또 다른 언어이데올로기의 생성을 동반하며 언어이데올로기의 작동을 통해 청호동 말에 대한 권위를 생성하고 자연화한다는 것이다. 청호동 말을 통한 특정 정체성의 강조와 언어의 자원화는 방송 매체는 물론 청호동 사람들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청호동 내 식당 및 차림표 등과 같은 대외적 말하기에서 주로 발생한다. 본 장은 청호동 사람들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연행적 말하기 중 전통민속놀이인 북청사자놀음에서 강조되는 말과 정체성의 연결에 집중한다. 속초북청사자놀음에서 나타나는 언어이데올로기는 청호동 말을 곧 전통으로 전제

한다. 이러한 언어이데올로기는 개인의 출신과 언어능력을 하나로 엮으며 청호동 말 사용의 고수를 통해 이북출신 실향민 정체성을 강조하고 그를 통해 속초의 북청사자놀음의 전통성을 드러낸다.

## 1. 연행 내 청호동 말과 전략적 이용

오늘날 면 대 면으로 이루어지는 대화 상황에서 청호동 말의 사용은 점차 줄어든다. 하지만 특정 말 상황에서는 여전히 청호동 말이 청호동 사람을 상징하는 가장 큰 문화적 지표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말 상황에서 청호동 말의 사용은 남한 사회로부터 동떨어져 청호동 내에서 그들만의 관습과 문화를 지키며 살던 이전의 청호동 사람을 가리킨다. 곧 청호동 말 사용을 통해 청호동 사람은 이북의 전통을 고수하는 실향민 정체성을 가지는 것으로 연계된다. 이러한 특수한 말 상황에서 청호동 말 사용으로 강조되는 청호동 사람의 실향민 혹은 피난민 정체성은 일상적 말하기에서 청호동 말 사용에 의해 불러 일으켜지는 이질감과 낯설음과 같은 부정적 가치가 아닌 전통의 고수와 같은 긍정적 가치로 변모한다. 청호동 말을 통해 나타나는 청호동 사람의 실향민 혹은 피난민 정체성에 대한 강조는 청호동 사람 간의 혹은 청호동 사람과 외부인 간의 일상적 말 상황이 아닌, 대외적으로 다수의 대중을 대상으로 청호동 혹은 청호동 사람을 재현하는 방송매체 등에서 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말과 그 사용을 통해 특정 정체성을 강조하거나 목표로 삼는 이상의 과정을 일종의 정체성의 연행(performance)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청호동 혹은 청호동 사람을 소재로 한 방송을 예로 들자면, 청호동 사람들은 시대적 · 환경적 변화와 무관하게 여전히 이북 방언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 청호동 사람들은 이북 방언으로 대표되는 청호동 말을 사용하며 그러한 말 사용은 다른 외부 집단과 차별화되는 청호동의 '문화'로 연결된다. 이러한 연쇄적 과정은 결과적으로 청호동 사람들을 분단과 피난이라는 과거에 정박되어 있는 이북출신 피난민들로 보이게 한다. 이는 특정 언어의 사용에 대하여 사회문화적 의미를 부여하고 그 언어 자체 혹은 해석의 효과에 힘입어 어떠한 평가를 불러일으키거나 특정 정체성을 강조하는 연행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래의 사례는 청호동을 다룬 한 공영방송의 교양프로그램 중 청호동 말을 통해 청호동 사람의 정체성을 연행하는 한 장면이다.

<사례 V- 1.>[59]

S1 (통일전망대에서 북쪽을 바라보는 세 할아버지의 뒷모습)

NAR 우리가 살던 고향 얘기를 한 번 들어보겠음메?

(타이틀 '나의 살던 고향은' 이 뜬다)

F.O.

S2 (마을 전경과 갯배, 바다모습)

NAR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 사람들한테는 아바이마을로 더 잘 알려진 곳이외다. 드라마 촬영으로 유명 관광지가 된 곳임메.

S3 (윗마을 청호노인회관. 노인회관 앞 소파에 몇몇 어르신들이 앉아있다.)

NAR 점심을 먹고 나른한 시간이 되믄은 동네 아바이들이 이르케 모여서 수다를 떠는 게 일과지비.

S4 (청호노인회관 맞은 편의 청호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달려 나온다.)

S5 (할아버지1과 아이들)

**할아버지 1:** 얘들아! 으데 학교에서 오는 길이니?

**아이들:** 네.

**할아버지 1:** 어 근데 늦게 나온다. 몇 학년이야?

**아이들:** 4학년이요.

**할아버지 1:** 아이고 똑똑하다. 모두 이쁘다 너희들은. 가만있어. 아바이 뭐 물어볼게. 이 마을 갖다 아바이마을이라 하는데 왜 아바이란 말이 들어갔는지 아는 학생 있나?

S6 (대답을 못 하는 아이들)

S7 (할아버지1)

**할아버지 1:** 아바이란 말이 뭐인가 하믄은 북한 말인데 할아버지라는 말이야. 그래서 그 때 당시 나왔던 게 응? 나도 중학교 다니다가 나왔거든. 그런데 인제 어떻게 됐나 머리를 봐.

(할아버지1이 모자를 벗고 자신의 백발을 보여준다.)

**할아버지 1:** 아바이 됐지?

**아이들:** 네!

**할아버지 1:** 그래. 그 때 6. 25때 나온 사람들이 아바이 다 됐어. 그래서 아바이

---

59) 이 사례는 시나리오 표기법을 참조하여 표기되었다. 이하에서 사용된 축약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S: 장면
F. O.(Fade out): 점점 어두워진다.
NAR(Narration): 나레이션

마을이라 해.

**할아버지 2:** 할머니는 아마이라 그러고.

S8 (할아버지1, 할아버지2, 아이들)

**아이들:** 아바이! 할머니 아마이!

**할아버지 1:** 아 잘 한다! 우리 '아제비'가 뭐고?

**아이들:** 아들! 아저씨!

**할아버지 1:** 삼촌 갖다가 아제비 아제비 한다.

**아이1:** 아제비! 우리 아제비 인천에 있다!

**아이2:** 하하하 머리 좋은데!

출처: KBS 1TV <고향극장> 58회 나의 살던 고향은 (방송일시: 2014. 6. 21 (토) 저녁 7시 10분)

**<그림 V-1.> "KBS 1TV <고향극장> 58회 나의 살던 고향은" 자료화면**

ⓒK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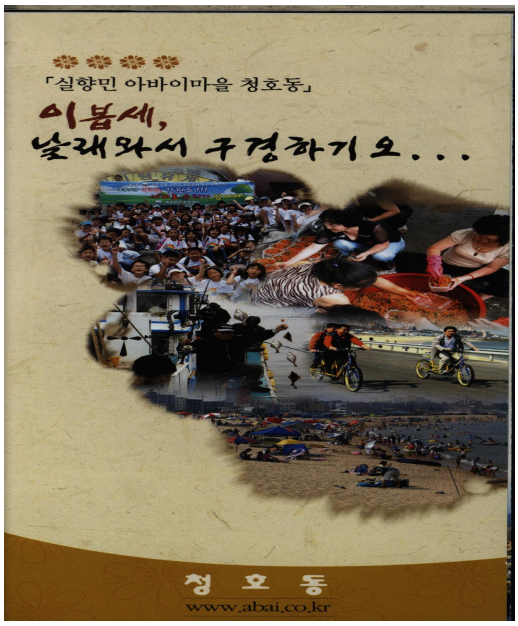
방송매체에서 청호동 사람들은 곧 이북 출신의 피난 1세대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로 그려지며, 그들 사이에 전해져오는 이북의 전통과 민속 그리고 전쟁 이후의 삶을 주 내용으로 삼는다. 이러한 방송에서 청호동의 말은 청호동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이북식 전통의 정수로 여겨진다. 청호동 구성원 중 다수가 함경남도 출신이기에 청호동 말은 무리 없이 함경남도 방언과 동일시되며, 청호동 말 사용이 줄고 있는 실제 양상과 달리 '이북 출신' 혹은 '실향민 정체성'으로 프레이밍(framing)된 방송 내에서는 청호동 사람들은 청호동 말을 후속세대에게 전수하려 노력하며 이북에서 내려온 그들만의 전통을 계속 되새기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이상의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청호동 1.5세대들이 4세대에 해당하는 청호동 아이들에게 이북 방언을 가르쳐주는 장면을 넣고 장면을 설명하는 나레이션으로 함경남도 방언을 사용한다. 이러한 장치들은 이북 방언의 사용을 통해 청호동 사람들만의 문화적 특수성을 드러낸다. 곧 방송 내 청호동 1.5세대들의 함경남도 방언의 사용과 그것의 언어적 차이는 청호동 사람들을 남한사회의 일반적 구성원이 아닌 특수한 집단으로 간주하게 한다.

청호동 말을 이용하는 보여주기식 연행을 통해 청호동 사람은 '실향민 집단'으로 대상화되지만 자발적 의도에 의해 청호동 사람들은 스스로 '실향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표방하기도 한다. 청호동 사람들은 그들의 실제 출신과 무관하게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청호동의 지역 정체성, 즉 실향민 정체성을 끌어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언제나 언어자원을 빌려 실현된다. 곧 청호동 말을 통한 정체성 만들기가 발견되는 것인데 청호동 내 요식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장에서 이러한 경향을 볼 수 있다. 관광지가 된 청호동 아랫마을의 가게명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함경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북청' 등의 함경도의 지역명, '아바이', '아마이'와 같은 함경남도의 방언 어휘로 혼합되어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상호명 구성에서 나타나는 경향성은 식당의 차림표에서도 나타난다. '아바이 순대', '햇때기', '식해' 등과 같은 독특한 음식 이름은 청호동만의 개성과 특징을 드러낸다. 청호동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이러한 이북 방언의 의미를 청호동 사람들에게 물어서 알게 된다. 관광객들에게 이러한 의미의 불통과 의사소통의 불완전성은 상호작용의 불편으로 여겨지는 동시에 청호동의 이색적 성격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듯 했다.

**<그림 Ⅴ-2.> 청호동에 위치한 주변 상가 안내도**

이상에서 제시된 <그림 Ⅴ-2.>의 청호동 내 상호들을 살펴보면 북청아바이 식당, 아바이 식당, 원조 함경도할머니집 등 청호동 특유의 어휘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청호동의 상호명과 식당 차림표 등에서 나타나는 이북의 지역명과 방언 어휘들은 모두 말을 통해 그들의 사업장과 함경남도와의 관련성을 보여준다. 이북 방언의 나열은 결론적으로 가게 주인이 이북에서 내려온 피난민이거나 혹은 그들의 후손인 '진짜 청호동 사람'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언어자원의 활용은 말 사용을 통해 정체성을 드러내며 속초의 기타 관광지 및 경쟁 업소와 차별화하고 경쟁력을 얻으려는 실질적 전략일 것이다. 청호동 내 개인들 뿐만 아니라 청호동 자체적으로도 '실향민의 동네'라는 청호동의 역사를 초점화하여 강조한다.

청호동 사람의 일상적 대화상황이 아닌 연행적 상황에서는 청호동 말과 청호동 사람의 연결이 여전히 견고하며 그들이 지목하는 정체성의 진정성(authenticity)을 재구성한다. 말 상황에 따라 청호동 말과 그것을 사용하는 화자에 대한 상이한 평가를 내리던 2세대들의 언어이데올로기와 달리 연행 내에서 청호동 말은 청호동 사람, 특히 함경도 출신의 피난민이라는 정체성과 직결된다. 청호동 말과 청호동 사람 간의 연결은 속초북청사자놀음의 전통성을 호소하는데 이용된다.




**<그림 Ⅴ-3.> 청호동 안내책자 표지**

행정기관에서 제작한 청호동 소개 책자 역시 이북 방언을 사용하여 청호동의 동별 특성을 직 ·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 2. 남한 내 북청사자놀음의 연행과 '속초북청사자놀음'

북청사자놀음은 함경남도 지방의 민속놀이이자 극의 내용, 등장인물, 형식, 연행방법 등이 고정되어 전수된 전통적인 가면극 장르(genre) 중 하나이다. 본 장에서는 북청사자놀음의 구성 및 남한 내 북청사자놀음의 연행과 같은 개론적 정보를 제공한 후, 속초북청사자놀음에서 발견되는 특징적인 말 사용과 그러한 말 사용을 합리화하는 연행 내 언어이데올로기를 보일 것이다. 속초북청사자놀음에서 발견되는 언어이데올로기는 청호동 말을 함경도 말로 변환하여 함경도의 민속인 북청사자놀음의 연행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 삼는다. 속초 보존회의 언어이데올로기를 통해 청호동 말은 물론 그를 연행하는 청호동 사람 역시 함경도 민속을 연행하기에 적절하고 그 전통성을 보장하는 진정성을 띠게 된다. 속초북청사자놀음의 청호동 말 사용은 속초 보존회의 민속 연행을 다른 보존회의 북청사자놀음으로부터 차별화하고 속초 보존회만의 전통성을 마련한다.

북청사자놀음은 함경남도 북청군의 전 지역에서 정월 보름밤에 거행되던 민속놀이이다. 한국전쟁과 함께 함경남도 출신 주민들이 이동하며 북청사자놀음 역시 남한사회로 유입되었다. 속초문화원에 따르면 속초는 남한에서 최초로 북청사자놀음이 연행된 곳이다. 한편 1960년 서울에서 북청사자놀음보존회가 발족되어 1964년부터 전수활동이 시작되었으며, 1967년 북청사자놀음이 남한의 중요무형문화재 제 15호로 지정되었다. 남한에 존재하는 두 개의 사자놀음 보존회는 북청사자놀음의 연행, 교육, 전수를 담당하며 전통예술을 계승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중 속초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한에서 처음 사자놀음이 연행된 곳이기에 의의가 깊다. 함경남도 출신 피난민, 곧 청호동 사람들은 속초 내 북청도청 건립을 위한 모금 조성의 일환으로 1957년 첫 북청사자놀음을 진행하였고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때에 북청사자놀음은 전문적인 연행자들이 아닌, 어려서 사자놀음을 본 경험이 있는 함경남도 출신 피난민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시간의 경과와 함께 속초 내 북청사자놀음은 서서히 명맥이 끊겼으며 민속의 연행 역시 모습을 감추었다(속초문화원 2013 참조). 1980년대 아주 드물게 연행되어온 북청사자놀음이 다시 한 번 관심을 받게 된 시기는 1990년대이다. 새로운 문화콘텐츠 개발에 대한 요구와 함께 속초의 북청사자놀음에 대한 전수의 필요성을 두둔하는 목소리가 강력해졌다. 속초북청사자놀음 보존회의 발족을 기획한 관계자 역시 '대를 잇는' 자연스러운 전수였다기보다 '필요성'에 의한 하향식의 계획을 통해 속초북청사자놀음이 다시 조명되기 시작했다고 밝힌다. 속초 내 보존회의 성장을 지켜봐온 이하의 관계자는 속초북청사자놀음의 재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례 V- 2.>

> 경위는 이렇죠. 80년대 초반까지 이제 북청사자, 북청에서 오신 1세대 분들이 공연을 하고 설악문화제라든가 함경도민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공연을 하고 잘 노셨어요. 근데 후계자들을 인제, 전통민속이라는 건 좀 이렇게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 대가 좀 잘 안 이어졌어요. 그래서 한 20년 정도 공백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인제 지역에서는 인제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문화콘텐츠를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었고 근데 북청을 하셨던 분들도 좀 연세가 많이 들어서 대부분 돌아가셨는데 남아 계신 분들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의견들이 줄곧 있어왔어요.
>
> 2013. 10. 31 심층면담 중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05년 속초문화원의 관주도적 지도 아래 '속초북청사자놀음 보존회'라는 민간자율기구가 결성되었다(Ibid.: 3). 남한에서 연행되는 북청사자놀이는 월남한 함경남도 출신 연행자들에 의해 주도되며 북청 현지의 사자놀음과 상이하게 변하였다. 향토민속놀이가 남에게 보여주는 무대의 놀이로 바뀜에 따라 무대예술로서의 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많은 윤색이 가해졌는데(전경욱 2001: 25), 사자춤 이외에 사당과 거사 춤, 무동춤, 꼽추춤, 칼춤, 승무, 중, 의원, 양반, 꺽쇠 등이 나온다(Ibid.: 27). 전통적인 사자놀음의 구성 요소는 아니지만 함경남도 민요와 춤 등도 연행되곤 한다.

## 3. 속초북청사자놀음의 언어이데올로기: 전통으로서의 청호동 말

동일한 북청사자놀음에 대하여 두 개의 보존회가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속초북청사자놀음 보존회는 함경남도 방언을 고수하여 연행에 사용한다는 내부적 기준을 따르고 있다. 속초의 북청사자놀음 연행에서 사용되는 말은 함경도 방언의 특성이 강조되며 함경도의 말 혹은 북청의 말로 상징화된다. 연행에서 쓰이는 함경도 말의 진정성은 청호동 출신인 연행자의 정체성을 이북 출신의 실향민으로 고정하며 나타난다. 이처럼 청호동 말은 민속놀이의 전통성의 확립 및 연행을 통한 정체성 드러내기에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된다.

### 1) 북청사자놀음의 기원과 청호동 사람

속초에 위치한 속초북청사자놀음 보존회는 현대화되고 무대화된 서울 보존회에 비교하여 자신들이야 말로 함경남도의 전통과 민속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속초북청사자놀음 보존회의 회원들이 주장하는 그들의 연행의 특징은 이북의 전통 보존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이다. 예전 함경도의 정월대보름 행사에서 마을 별로 그들의 특징을 살려 사자탈을 만들던 전통을 따라 속초 고유의 방법을 개발하여 사자탈을 꾸민다는 점과 무희들의 복식을 이북식으로 고수한다는 점은 전통 보존의 대표적 특징으로 꼽힌다(2011 속초시 박물관). 농민이 주축이 되었던 민속예술의 뜻을 따라 전문가들의 연행에 의존하기보다 시민들의 참여로 주로 이루어진다는 점은 민중에 의한 연행이 강조되는 민속놀이의 본래 의도를 살리고 있다고 내부적으로 평가된다.

속초보존회가 말하는 민중에 의한 민속 연행에 초점화된 '전통 만들기'는 청호동과 북청사자놀음의 연계를 통해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여겨져 왔다. 사실 속초북청사자놀음 보존회의 이러한 시도는 보존회 설립 때부터 함경남도 청년회와 접촉하여 전수사업을 벌이며 시도되곤 했었다. 다음의 보존회 관계자 역시 속초북청사자놀음을 비전문인 · 함경도 출신 피난민들의 연행과 연관 짓는다.

<사례 V- 3.>

음 그니까 문화라는 거는 알다시피…… 전체가 숨을 쉴려고 하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끈질기게 연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능인 중심이 아니라 그 삶의 문화 속에 자기 삶 속에 투영되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속초에 북청사자놀음을 50년대 말부터 추어졌다는 역사적 근거가 있었고 북청사람들 북청의 아바이들이 여기 북청도청을 세웠을 정도로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의 정체성을 함경도 청년회가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제안들을 많이 했었죠.

2013. 11. 20 심층면담 중

사실 속초 보존회가 강조하는 '삶 속에 투영된' 자연적인 전승은 속초 내에서 명맥이 끊긴지 오래이다. 1980년대 이후 연행의 중단 및 연행자의 노쇠와 함께 소멸의 위기에 놓인 북청사자놀음의 위기를 뒤늦게 감지한 속초시가 민중에 의한 민속 전수를 목적으로 보존회를 설립하고 함경남도 청년회의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전수사업을 펼쳤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원자들 역시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 함경남도 후손의 직접적인 참여가 줄어들며 속초북청사자놀음 보존회는 대외적으로 실향민 정체성이 돋보이는 청호동 사람들을 강조하고 그들을 전수 대상으로 삼으며 이북출신의 실향민이라는 청호동 사람의 정체성의 일부를 빌릴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그들이 주장하는 민속과 전통의 근거를 만들어왔다.

회원들이 맡은 역할에 따라 강조하는 특징은 달랐지만 보존회 회원들이 꼽는 속초북청사자놀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연행에서 사용되는 함경도 말이다. 속초북청사자놀음 보존회의 발족부터 함께한 다음의 보존회 관계자는 속초 보존회의 특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례 Ⅴ- 4.>

인제 두 가지가 있겠죠.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첫 번째는 일단 사자모양이 좀 틀려요. 그건 아마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A 아바이의 진짜 오리지날 북한 사투리.

2013. 10. 31 심층면담 중

속초북청사자놀음 보존회에서 고수하는 이북말의 사용은 속초 내 보존회 설립 당시부터 지켜왔던 전통이다. 당시 서울에 거주하던 전수자들에 의해 북청사자놀음의 퉁소 연주, 사자춤 등을 배우고 북청사자놀음 대본을 전달받았는데 각각 서울말과 함경도 사투리로 표기되어 있었다고 한다. 속초북청사자놀음 보존회는 그 중 함경도 사투리로 표기된 대본을 선택하여 연습하고 공연하길 고수하고 있다.

속초북청사자놀음 보존회는 함경도 말로 극을 연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믿고 있었으며 그것을 직접 실행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속초북청사자놀음 보존회는 청호동 말을 함경도 말로 상정한다는 점이다. 연행의 언어에 대한 보존회 내의 합의된 믿음과 문화적 해석 그리고 그러한 해석을 연행 전반에 대한 가치평가와 결부시켜 내집단의 민속을 결론적으로 타 지역의 '북청사자놀음'과 구분하는 이 일련의 과정은 모두 보존회 내 언어이데올로기의 작동을 보여준다.

<그림 Ⅴ-4.>의 대본에서 볼 수 있듯이 속초북청사자놀음은 함경남도 방언 특유의 어미[예: -슴메, -지비, -임메] 및 어휘[예: 아바이, 이짝, 이기]를 사용하고 음성학적 면에서는 방언 특유의 억양과 비음화 · 장음화[예: 어저, 그기 등]를 강조하고 있다. 속초북청사자놀음 보존회는 북청사자놀음이 함경남도의 민속이기에 함경도 말로 연행을 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한다. 하지만 그들이 인정하는 함경도 말은 언어적 형식 및 말 사용상의 특징에 의해 구별되기보다는 연행자의 출신지를 강조하고 그에 의존하여 정당성을 가진다.

북청사자놀음에서 대사를 하는 유일한 두 인물은 꺽쇠와 양반이다. 현재 속초북청사자놀음에서 꺽쇠와 양반은 각각 속초출신 A와 경남출신 B가 맡고 있다. 대사를 하는 두 인물 중 서민층을 대표하는 꺽쇠의 경우 특히 함경도 방언이 요구되는데, 속초북청사자놀음에서 꺽쇠는 보존회 창립이후부터 줄곧 청호동 출신이자 이상의 심층면담에서 'A아바이'로 언급된 풍물단원 A가 맡아왔다. 양반의 경우 역할배정에 몇 번의 변화가 있었지만 꺽쇠는 보존회 창립부터 지금까지 A만이 연기

# 속초 북청사자 놀음 대본

**제 1과장 - 길놀이**

길놀이 형태로 마을 입구를 들어오는 형상으로 3열로 입장한다.
악사 - 무용 - 마을 주민의 순서로 자리를 잡으면

양반 : 꺽쇠야!
꺽쇠 : 에! 양반 아바이. 어째 그럼메?
양반 : 도데체 어디를 가려고 갈지자 걸음인게냐?
꺽쇠 : 아이, 양반 아바이. 당최 우리가 어데를 가는지 모릅메?
양반 : 아니 이놈봐라. 아니 도데체 우리가 어디를 간단 말이냐?
꺽쇠 : 양반 아바이. 거저 우리가 일사후퇴 때 피난을 와가지구 서리, 어저 여기서 살고 있지 않슴메?
양반 : 그래 이놈아, 그러니 어쩌란 말이냐?
꺽쇠 : 아바이! 이제 이짓가 우리의 고향이지 않슴메? 기래 우리가 이짝에 도청을 짓고 좀 폐난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슴메?
양반 : 아이 꺽쇠야! 그럼 여기가 우리가 살기 좋을 만한 곳이란 말이냐?
꺽쇠 : 옳슴메! 양반 아바이 저짝에 산과 들이 보이지 않슴메? 금강산이 줄기차게 뻗어오다가, 설악산이 우뚝 솟았지비! 학무정, 영금정, 영랑호가 보이지 않슴메? 저짝 한복판으로 청초호가 유유히 흐르고, 시퍼런 동해 바다를 끌어안고 돌고 있지 않슴메? 거저 여기는 산, 바다, 호수가 있는 우리 북청과 가장 비슷한 속초라는 고을임메!
양반 : 옳거니! 니놈 말이 백번 옳구나. 간만에 꼭쇠가 바른 소리를 하는 구나.
그런데 꺽쇠야!
꺽쇠 : 아. 어찌 그럼메?
양반 : 어찌하여 이런 날에 사자가 보이지 않는게냐? 이런 날 액과 귀신을 쫓고, 복을 불러들인다는 사자가 한 바탕 놀아야 되는거 아니냐?
꺽쇠 : 옳슴메! 사자를 한 번 불러 보겠슴메! 자, 삼라만상, 백수의 왕 사자가 들어간다!
사자춤 : 초장을 중심으로 논다

양반 : 꺽쇠야! 사자의 기운이 과연 남 다르구나!
꺽쇠 : 그렇슴메. 이 고을을 폐난하게 하고, ~~도청 관람을 할없게 만드는 바로~~ 그 사자임메!
양반 : 꺽쇠야!
꺽쇠 : 어찌 그럼메?

**<그림 V-4.> 속초북청사자놀음 대본**

속초북청사자놀음의 연행자는 대본의 단어 · 억양 · 발음 등을 지속적으로 수정하며 연행에 어울리는 '함경도 말'을 찾아나간다. 이상의 대본에 표기된 메모들은 연행자에 의해 기록된 것이다.

하고 있다.

A가 꺽쇠 연기를 전담하기까지는 다음과 같은 결정과정이 있었다. 꺽쇠를 맡고 있는 A는 청호동 출신의 전문국악인으로 그의 아버지는 함경남도 북청군 출신의 피난 1세대다. A는 결혼 전까지 거의 대부분의 생애를 청호동에서 보낸, 청호동 2세대 사이에서는 드문 생활경험을 가지고 있다. 사실 A의 주 전공은 타악이며 보존회가 설립될 당시에도 그는 대사를 외움으로써 용이하게 연기할 수 있는 꺽쇠가 아니라 장시간의 훈련이 필요한 퉁소 연주역할을 먼저 맡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의 출생지와 가족이력을 아는 관계자와 다른 보존회 동료들에 의해 그는 꺽쇠 역을 배정받았다. A를 제외한 보존회 관계자들은 A가 꺽쇠 역할을 맡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고 설명한다.

<사례 Ⅴ- 5.>

**연구자:** 그럼 꺽쇠를 전문적으로 담당을 하시게 된 거는 얼마나 된 거예요?
**A:** 아…… 여기 박물관 들어오기 박물관 들어와서나? 2004년돈가? 예.
**연구자:** 2004년도?
**A:** 예. 뭐 그거는 저기 그…… 전문적으로 꺽쇠를 한다는 거 보다도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된 거야.
((심층면담이 이루어지는 방으로 아이들이 수업을 듣기위해 들어온다.))
**C:** ((교실로 들어오며)) 뭐 자연스럽게 돼 아바이가 2세대니까 당연히 함경도 말을 쓸 줄 아니까 당연히 이…….
**A:** 아하하
**C:** 자연스럽게 됐다고 하면은 곤란하지.

2013. 10. 29 심층면담 중

청호동 출신인 A에 의한 꺽쇠 연행은 전통을 강조하는 속초북청사자놀음 보존회 내 개인 화자의 출신과 태생을 그의 언어 구사 능력과 동일시하는 믿음에 의해 정해졌다. 특히 속초북청사자놀음보존회의 언어이데올로기는 출신과 관련한 연행자의 신변적 정보를 연행의 효과적 전달을 위해 적극적으로 이용한다.[60] A와

60) A의 출신에 대한 강조는 연행 외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보존회 회원들은 A에 대한 호칭어로 청호동에 거주하는 남성을 의미하는 '아바이'를 쓰곤 한다.

같은 국악단에 속해있는 C가 말하듯이 보존회의 회원들은 청호동 출신이자 함경남도에서 온 피난 2세대로서 A가 '당연히 함경도 말을 쓸 줄' 안다고 평가하며 보존회 설립부터 그에게 꺽쇠 역할을 전담하였다. 보존회 내에서 A의 함경도 말은 곧 A에게 부여된 사회적 정체성을 통해 보증된다. 청호동 출신이며 함경도 출신 가족의 자제인 A가 청호동으로 대표되는 실향민 정체성을 대표하는 것으로 통용되며 A가 연행 중 사용하는 말은 함경도 말로 이름 붙여질 수 있는 것이다. 속초북청사자놀음 보존회의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청호동 사람인 A를 실향민으로 상정하고, 실향민 정체성의 이데올로기적 정의에 의존하여 실향민인 청호동 사람과 함경도 말을 결합하는 언어이데올로기를 통해 속초북청사자놀음의 전통과 정당성을 구축해나간다.

한편 꺽쇠를 맡은 단원 A는 오히려 자신의 출신에 의존한 언어 구사 능력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를 통한 함경도 말에 대한 보존회의 신임을 부적절하게 여긴다. A는 부친이 함경남도 북청군 출신의 피난민이었던 청호동 1세대였지만 청호동에서 나고 자란 생활경험을 함경도 말의 구사능력으로 환치하기는 어렵다고 여긴다. 다른 단원들이 언어능력을 A의 출신을 통해 평가하고 단언하는 것과 달리 A는 자신의 언어능력보다는 전문국악인으로서의 극을 이끌 수 있는 연행능력이 꺽쇠를 맡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 말한다.

<사례 V- 6.>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게 굉장히 부담이 돼. 그렇진 않은데 잘 하진 않는데 에 단지 모나면은 내가 청호동에 살았다는 그 하나 그리고 내가 그나마 그래도 솔직히 말해서 나가 아니고 뭐 김○○ 아버님이나 아님 청호동에 살고 있는 누가 꺽쇠를 하면은 그 말이 안 나오겠냐 그거야 내말은. 그 말투가 안 나오겠어? 당연히 다 나오는거야. 다 나오는데, 더 잘 할 수도 있지! 더 많은 사투리를 알고 있으니까 사항 어떤 그 사항[상황]에 대해서 치는 게 근데 모나면은 어떻게 연출적인 거 연극적인 그런 것들. 고론 거는 내가 좀 하니까 에 사람들이 에 잘한다 그러지만은 나는 내 스스로는…… 전혀 뭐…… 내가 잘 하는 것도 아니고 부담 돼. 난 딴 거 하고 싶어 꺽쇠 말고.

2013. 10. 29 심층면담 중

A는 2세대인 자신보다 더 나이가 많고 윗세대에 속하는 청호동 사람이 사투리를 잘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함경도 말이 보존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의 출신과 사회적 정체성이 보증하는 진짜 함경도 말이라기보다는 함경도 말처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 모방되었다고 밝힌다. 보존회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함경도 말이 청호동 사람으로서 생득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아니라 자신의 후천적인 학습과 연습을 통해 습득했다는 것이다. A는 연행 중 자신이 사용하는 말에 대하여 억양은 비슷하게 따라하지만 어휘 등의 면은 부족하다고 자평하였다.[61] 실제로 A는 연행 중 함경도 말은 물론 자신이 익숙한 청호동 말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례 V- 7.>

**A:** 함경도 사투리에 아사시리는 내가 청호동 식으로 발음을 한 건데 원래 오시럽다라고 해 오시럽다라고. 거기(함경남도 방언 사전) 나와있더라고. 함경도 사투리에 오시럽다는 게 애잔하고 서글프고 애잔한…… 애원성 춤에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오시러운 춤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또 정랑이니 바탕이니 그런 것들은 부엌을 바탕이라고 그러고 아 부엌을. 아 부엌을 정랑이라 그러고. 아아아 측간을 정랑이라 그러고. 측간 변소나 그 다음에 부엌을 바탕이라 그러기도 하고. 정랑이라는 말이 청호동에선 정구지라 그랬어 정구지. 그기 저기 모나 비슷한 말 인데 뜻은 틀려요. 정구지는 저기 모나 아궁이 부싯돌로 뭐 이기 하는 거 있잖아.[62] 그거를 얘기한다고. 정구지 뭐 그런 그 청호동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연구자:** 아 그것도 대본에 있는 말이에요?

**A:** 내가 넣어 놨어요. 내가 대본 써놨는데 다 있는데 응. 그리고 아슴쳄메라든가 썽씨나게 에 이런 말들은 함경도 사투리에요. 청호동 사투리는 아니에요. 청호동 말은 그게 없어요. 그 마알~:이 없다고. 물론 그 저 아버지 때라든가 그 말을 했을 수는 있겠지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청호동에서는 뭐 아슴쳄메 뭐 썽씨나

61) **A:**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버지랑 계속 청호동에 있다 보니까…… 말투가 그런 건 내가 의식적으로 여기 나와 살면서도 그 말투는 내가 지킬려고 노력을 했었어. 말투는. 근데 이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도 몰라 잘. 잘 모르고 그래서 있다 보니까 뭐 북청사자놀음의 꺽쇠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뭐…….”

2014. 1. 16 심층면담 중

62) 아궁이 주변의 조리대를 의미한다.

게…… 아 썽씨나게는 한 거 같다 썽깔나게 썽씨나게 에 그런 말…… 했던 말도 있고 안 했던 말도 있고…….

2014. 1. 16 심층면담 중

A는 속초북청사자놀음에서 쓰이는 함경도 말에 대하여 함경도 방언의 어휘에 그가 임의로 함경도식 혹은 청호동식 발음을 택하여 쓰고 있다고 밝혔으며 '청호동 말'과 '함경도 말'이라는 명칭을 함께 사용하였다. 이처럼 연행 내의 '함경도 말'은 청호동 2세대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언어 지식 하에서 그리고 그가 기억하는 언어사용 내에서 선택되고 편집된다. 하지만 속초북청사자놀음 보존회가 강조하는 전통 민속의 기원 그리고 '전통'으로서의 청호동 말에 의해 A에게는 그의 출신에 근거한 실향민 정체성이 부여되며 A가 임의로 추출하는 청호동 말과 함경도 말의 혼용 역시 '정통 함경도 말'이라는 평가를 듣게 된다.

### 2) 함경도 말 사용과 속초 연행의 차별화

속초북청사자놀음 보존회가 주장하는 연행 언어인 함경도 말의 정통성은 연행자가 청호동 사람이라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언어이데올로기는 청호동 사람 내부의 다양성 및 청호동이 겪어온 연대기적 변화는 삭제하고 청호동 말을 곧 이북 민속, 함경도 문화와 연결한다. 이것은 서울에 위치한 보존회와의 차별을 위해서이다. 또다른 청호동 출신의 보존회 회원인 D는 속초북청사자놀음을 기타 보존회의 연행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사례 V- 8.>

거기(서울의 보존회) 말투부터 틀리더라고. 말투가 그냥 거기는 서울 사람들이 하는 공연이야. 우리 꺽쇠는 아주 걸판지잖아. 그런 맛이 없어. 그 몰라 악기나 그런 쪽으로는 특별하게 차이를 모르잖아 일반인들은, 그런 그 대화에서 꺽쇠가 꺽쇠하고 양반하고 하는 대화에서 차이가 많이 나더라구 말이……. 그 사람들은 꺽쇠가 나이가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는데 돼봤자 우리 또래나 우리보다 쪼끔 더 많거나 그렇겠지. 그 사람은 여기 사람도 아니거니와 거기 사람이 대화를 하는 게 그 너무 어색하고 되게 어색해. '자 갑세.' 우리는 '갑세!!' 그러는데 걔

네 말은 되게 어색해. 하여간 서울사람이 사투리 쓰는 응 그런 형태더라고. 고런 면에서는 좀 우리가 좀 낫지 않나 악기……에 대한 미세한 부분들은 물론 그 사람들이 월등하지. 근데 그 우리 꺽쇠가 잘 해갖고 대화를 마당을 이끌어나가는 그 맛은 우리가 더 낫다고 봐.

2013. 11. 21 심층면담 중

이상은 서울과 속초의 북청사자놀음을 구별하는 속초북청사자놀음 보존회 회원의 설명이다. 보존회 관계자와 회원들은 무대화된 연행으로서 사용되는 청호동 말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위 사례에 등장하는 관계자는 연주의 미세한 기교를 인식하지 못하는 일반 관객들을 언급하며 대사를 통해 단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함경도 방언의 사용이 더 인상 깊게 다가올 수 있다고 설명한다.

사실 북청사자놀음의 대사는 인물들의 연기를 통해 줄거리를 진행시키는 일반극의 진행과 무관하다. 북청사자놀이의 대사는 등장인물 상호간의 대화를 통하여 갈등을 표출하거나, 등장인물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내용이 아니라 대부분 놀이의 진행을 위한 말이거나 춤을 해설하는 내용이다(전경욱 2001: 60). 함경도 말로 대사를 하게 될 때 발생되는 연행자와 관객 사이의 의사소통의 부재는 극중 대사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경도 말에 의한 불가해성(unintelligibility)은 북청사자놀음의 전통을 더욱 견고히 한다고 속초북청사자놀음 보존회 측은 믿는다. 이러한 믿음은 연행의 언어를 전담하는 꺽쇠 연행자인 A에게서도 발견된다.

<사례 Ⅴ- 9.>

**연구자:** 이게 아저씨께서 공연 중에 말을 해도 사람들이 거의 못 알아들을 거 아니예요?

**A:** 백프로 난 못 알아 듣는다고 봐. 알아듣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뭐 고향이 그런 분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알겠지. 당연히 알겠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끔가다가 '야 너 함경도 말 잘 한다!' 칭찬도 해주고 그래. 그 어떤 사람들은 '야 고향 말 들으니까 좋다!'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 그렇지만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지.

**연구자:** 그러면 그런 말을 넣으신 그 의도는 뭐예요? 편집을 하시면서?

A: **북청사자놀음**이기 때문에 **북청**의 말을 하잖니. 함경도의 말을 하는 거야. 알아듣든 못 듣든. 오히려 알아 못 듣는 게 ((말없이 엄지손가락을 치켜든다)) 응 효과……. 그게 더 오리지널이라는 얘기야 응. 알아듣게끔 해주는 게 그게 서울 전수회관에서 하고 있는 그거란 말이야. 일반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표준말화 되어있는 그 대본, 그 대사가 바로 서울이고 우리는 알아듣지 못해도 된다 이거야. '아 분명 쟤네 뭐 이거 얘기했는데? 저기 저기 뭘까?' 하고 사람들이 신경 쓰고 찾아볼 거 아니야. 오히려 그게 더 나아. 그러니까 **오리지널**로 가잔 얘기지.

2013. 10. 29 심층면담 중

속초북청사자놀음 내에서는 함경도 방언의 사용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연행자와 관객 사이의 의사소통 불능의 가능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위의 심층면담에서 A는 연행 중 함경도 방언의 어휘 사용 혹은 사투리 억양에 의해 발생되는 불가해성은 민속예술로서 속초북청사자놀음의 원형성을 보장하며 연행 중 관객들의 주의를 더욱 집중시킨다고 설명한다. 또한 이러한 함경도 방언의 사용은 기존 북청사자놀음으로부터 속초의 민속 연행을 차별화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속초북청사자놀음에서 양반을 연기하는 B 역시 함경도 말을 통해 나타나는 민속예술의 원형성을 강조한다.

<사례 V- 10.>

저는. 그건 그냥 그대로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 뭐 어떤 공연의……. 예를 들면 판소리에 적벽가 같은 경우는 한자말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풀어서 하지 않아요.** 한자말을 그대로 고수를 하는 거죠. 고수할 건 고수를 하고 뭐. 책자나 홍보물을 통해서 그 말들을 풀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보조 자료를 활용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연희본 자체가 해설이 되어 버리면. 원형성이나 아니면 원래 말이 가지고 있는…… 어감 어투 그리고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들이 훼손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바탕**에서' 라고 할 때 그 바탕이 있는 거지, '부엌에서' 라고 하면 말 하는 사람도 그 정서가 부엌이 아니고 바탕인데. 음 그런 것들이 변질되지 않을까? 전 일단 그렇게 생각해요.

일상적 말하기에서 청호동 말은 그것이 가지는 상이한 이북 방언의 특수성에 의해 지양되고 거부되며 소멸되지만, 연행적 말하기에서 청호동 말과 이북 방언과의 유사성은 더욱 극대화되어 강조된다. 더 나아가 청호동 말의 특징은 연행의 성격을 새로이 규정하고 연행의 전통성을 보장하는 데 이용되기도 한다.[63] 속초 보존회 내부에서 속초북청사자놀음의 연행에 사용되는 함경도 방언은 북청사자놀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북청의 민속예술의 원형성을 보여주므로 고수되어야 할 가치로 여겨진다. 속초북청사자놀음의 꺽쇠 연행자의 연행에 대한 호평과 그의 외부 공연 사례는 함경도 말에 의한 속초북청사자놀음의 상품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중적 언어이데올로기의 작용은 동일한 언어에 대하여 다른 해석과 평가를 불러 일으킨다. 청호동 말의 경우 역시 그렇다. 일상적 말하기 상황에서 청호동 말과 이북 방언과의 유사성은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청호동 말의 대외적 사용은 청호동 말을 사용하는 화자들을 이타적 집단으로 연상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에 위험하다. 하지만 북청사자놀음과 같은 연행 상황에서 나타나는 언어이데올로기를 통해 청호동 말이 가지는 이북 방언의 특징들은 연행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연행의 희소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일상적 영역에서 위협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북 출신'의 실향민 정체성은 청호동 출신 이외의 대중을 대상으로 연행되며 전통을 보증하는 긍정적인 가치로 바뀐다. 이처럼 언어이데올로기는 대상과 언어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미시적 맥락인 말 상황과 거시적 맥락인 사회적 세계 사이에서 상이한 의미를 발생시키며 언어와 가치관의 관계를 다각도에서 구성한다.

63) 이러한 사례는 일상적 말하기에서 상대적인 약자의 말하기로 여겨지는 여성의 언어(women's language)의 특징을 특정 연행 상황에서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Hall의 연구에서도 발견된다(Hall 1995).

# Ⅵ. 결론

본 연구는 월남인 정착촌에서 기원한 속초시 청호동의 역사와 문화에 밝고 청호동에 대한 소속감을 바탕으로 자신을 '청호동 사람'으로 여기는 이들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그들이 주장하는 청호동 말과 그것의 문화적 의미를 내부자적 시각을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청호동은 한국전쟁 중 남하한 이북 출신의 피난민들에 의해 형성된 마을이다. 청호동을 이룬 피난민들의 역사는 청호동과 청호동 사람을 설명하는 문화적 줄기 중 하나이다. 청호동 사람들 사이에서 청호동 말은 전쟁과 분단이라는 청호동 사람의 특수한 경험 그리고 그를 견디며 살아남은 청호동 사람의 정신을 대변하는 집단 내부의 중요한 가치로 여겨져 왔다(김귀옥 1999). 하지만 시간의 경과와 함께 피난을 직접 경험한 1세대가 현저히 줄고 청호동 전반이 관광지화되며 청호동 말의 위세 역시 달라진다. 3세대 이후의 청호동 후속 세대들은 속초 시내에서 주로 거주하며 청호동 말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 청호동 말에 익숙한 1세대와 2세대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청호동 말의 사용은 점점 줄어든다. 청호동 사람 사이에서도 청호동 말을 사용하는 것이 부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이북에서 직접 피난을 나온 청호동 1세대와 청호동에서 태어나고 자란 청호동 2세대를 중심으로 청호동 내 세대에 따라 달라지는 청호동 말의 사용상의 특징 그리고 청호동 말에 대한 청호동 사람들의 가치관과 평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이를 청호동 말의 언어적 특징과 실제 말 사용 양상, 언어이데올로기, 언어와 정체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주제어를 통하여 살펴보았으며, 이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청호동 말의 언어적 특징으로는 기존의 연구가 지목한 성조 유지, 구개음화의 현저한 진행, 'ㅂ, ㅅ' 불규칙 용언의 규칙 활용 등(김무림 2000: 273)은 오늘날 청호동에서 고령의 청호동 1세대들에게서나 들을 수 있는 말로 여겨진다. 마을 내 표준어 사용이 확대되며 청호동 말의 특징이 전면적으로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호동 말은 형태론, 통사론, 어휘 및 존댓말 사용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구분된다. 하지만 청호동 사람들이 가장 먼저 언급하며 강조하는 언어적 특징은 '악센트가 있다', '끝이 높다', '말소리가 크다', '억양이 세다' 등으로 지목되는 청호동 말의 음성학적 차원이다. 그 중 '쎈 억양'으로 대표되는 청호동 말은 문장 내 강세가 문장 후반부 동사영역 중 어간에 얹히면서 리듬 패턴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처럼 들리게 된다. 이러한 청호동 말의 독특한 강세 위치는 말이 빠르고 높으며

발음을 세게 한다고 느껴지게 한다.

청호동 말은 ‘청호동 말’, ‘이북말’, ‘북청말’, ‘함경도 말’, ‘아바이 말’ 등의 민간 명칭으로 불리며 외부의 언어와 구분된다. ‘이북말’은 청호동에 정착하여 청호동을 만든 이북출신 1세대들로부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명칭이다. ‘이북말’은 ‘청호동 말’의 동의어로 사용되며 피난민들로부터 시작한 청호동의 역사를 강조한다. 하지만 ‘청호동 말’이라는 명칭을 ‘이북말’과 혼용하여 쓰거나 ‘이북말’의 문화적 의미를 아는 청호동 사람들은 점차 줄어들며 ‘이북말’ 명칭의 사용 역시 감소한다.

2) 청호동은 청호동 말 이외에도 서울말, 속초말 등이 사용되는 다중방언사회이다. 일상생활에서 청호동 말은 말 상황 내 특정 요인들을 고려하여 선택된다. 청호동 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① 대화참여자들의 집단 정체성 ② 대화상황의 성격(공식 대 비공식) ③ 대화참여자들의 사회적 거리 등으로 정리되며, 언급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청호동 말 선택에 영향을 준다. 관념적으로 청호동 사람들은 청호동 말과 서울말이 각각 상층어와 하층어로 구분되어 다르게 사용된다고 믿는다.

청호동 사람들에게 서울말은 외부 사람들에게 비공식적 상황에 주로 사용하는 말 혹은 사회적으로 친밀하지 않은 상대에게 사용하는 말이다. 반면 청호동 말은 청호동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비공식적 상황 내 대화에서 쓰이며 그들 사이의 친밀함을 표현한다. 한 가지 특징은 청호동 사람들이 속한 세대에 따라 내부 집단에 속하는 청호동 사람들 사이에서도 청호동 말 사용이 가능한 상대가 달라진다는 점이었다.

청호동 1세대들에 비해 청호동 2세대들은 내부자들의 연령 지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청호동 말은 평등한 대화참여자들 사이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청호동 1세대들 사이에서는 대화참여자들 간의 넓은 연령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대한다’고 일컬어지는 청호동 말의 말단계가 상호적으로 사용된다. 1세대들은 이에 대하여 높이지도 않고 낮추지도 않는 한국사회에서 전통적인 의미로 통용되던 반말로 설명하고 대화상대자와의 사회적 거리에 따라 충분히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청호동 2세대들은 ‘하대’하는 청호동 말을 상대방을 낮추는 말, 즉 오늘날 쓰이는 반말로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가까운 청호동 사람일지라도 지위의 차이, 특히 연령 차이에 유의해서 사용해야 하는 말이라고 주장한다. 젊은 청호동 사람이 무분별하게 청호동 말을 쓴다면 그것은 이전과 달리 대화상대와의 친밀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례함을 사회적으로 공표하는 행위로 받아들여

진다. 이와 같은 젊은 청호동 사람의 인식 변화는 청호동 말의 비상호적 사용과 표준어 중심의 일상 언어로 나타나고 있다. 청호동의 세대에 따른 청호동 말에 대한 상이한 의미화는 언어이데올로기에서도 나타난다.

3) 청호동 사람들이 청호동 말을 설명하는 방식은 그들 내부의 언어이데올로기의 경향성을 통해 드러난다. 청호동 말에 대한 언어이데올로기는 세대에 따른 변이를 보인다. 청호동 말에 대한 지식과 그것의 이용을 절대적 가치인 '핏줄'로서 받아들이는 청호동 1세대의 언어이데올로기 그리고 상황에 따른 청호동 말의 적절한 사용과 화용론적 의미를 중시하는 청호동 2세대의 언어이데올로기가 바로 그것이다. 청호동 2세대의 경우 청호동 말과 사용에 대하여 대화참여자 간의 관계, 대화 수행의 사회적 목적 등을 재고하여 말 사용에 의한 특정 화용론적 효과를 기대하는 일종의 상황변이어(register)(Agha 2004: 23)로 받아들인다.

이북에서 태어났으며 피난을 내려와 청호동 자리에 정착하여 남한사회에 적응한 청호동 1세대들에게 청호동 말은 청호동 사람들을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이다. 청호동 1세대들에게 청호동 말은 바꿀 수 없으며 바꿔지지도 않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여겨지기에 '핏줄'로 비유되며 그들의 자손들에게도 그 중요성이 그대로 전해진다고 말한다. 청호동 말을 중시하는 청호동 1세대들은 청호동 사람이라면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구별 없이 청호동 말을 사용한다고 주장하며 청호동 말과 청호동 사람의 정체성 사이의 관계를 공고히 한다. 하지만 이는 앞선 청호동 1세대의 청호동 말 선택 사례와 대치되는 관념적 주장이다.

청호동 1세대의 언어이데올로기에서는 얼바인과 갈의 언어이데올로기의 기호학적 모델(Irvine and Gal 2000)의 '삭제(erasure)'과정과 '아이콘화(iconization)' 과정이 나타난다. 청호동 1세대들은 청호동 말의 억양과 어휘의 측면만을 청호동 말의 특징으로 강조하고 다른 언어적 특징들은 묵과한다. 이러한 삭제과정을 통해 청호동 말의 특징으로 지목된 억양과 어휘를 청호동 사람들의 "억세고 강한" 기질을 반영하는 것으로 설명하는데 이는 '아이콘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청호동의 "쎈" 말소리 그리고 "거친 말의 사용"은 청호동 사람들 특유의 기질을 반영한 것이라고 여겨지며, 그러한 기질을 통해 남한사회에서 정착하고 살아나갈 수 있었던 것으로 긍정적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오늘날 청호동 1세대들의 언어이데올로기와 청호동 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약화되고 있다.

한편 청호동 2세대들은 '핏줄'과 무관하게 청호동 사람이라면 청호동 말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한다. 여기서 2세대들이 말하는 청호동 사람이란 이남 · 이북 출신과 관계없이 청호동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을 말한다. 청호동 2세대들에게 청

호동 말은 과거의 기억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자 청호동에서 자라며 자연스럽게 몸에 밴 기억 그리고 그러한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로 설명된다. 즉 청호동의 세대에 따라 '진짜' 청호동 사람의 범주가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호동 1세대가 말하는 청호동 말의 중요성은 몇몇 청호동 2세대들에 의해 강조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표준어 사용이 확대되면서 청호동의 말 사용은 점차 줄고 있으며 이는 청호동 2세대들의 말 사용에서도 드러난다. 외부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사용된다고 여겨지는 서울말이 청호동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거리 혹은 대화 상대에 대한 존경의 정도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러한 2세대들의 말 사용 경향은 서울말과 청호동 말의 대립적 관계가 청호동 사람들 사이의 말 사용으로 투영되는 상이한 차원의 순환성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청호동 2세대들에게서 발견되는 청호동 말 사용의 축소와 그들이 설명하는 청호동 말의 상징적 중요성 사이의 괴리는 상황에 따른 청호동 말 사용에 따라 청호동 말에 대한 양가적 평가를 불러일으킨다. 청호동 말에 대한 청호동 2세대들의 상이한 평가는 화용론적 사용에서 나타난다.

청호동 2세대들은 청호동 말 사용의 해석에 말 상황의 적절성을 중시하며 따라서 이들에게는 청호동 말에 대한 사회문화적 지식이 중시된다. 즉 청호동 2세대들 사이에서는 청호동 말에 대한 지식의 유무를 떠나서 사회적 · 상황적 맥락 내 청호동 말의 적절한 사용이 동반될 때 우리 집단에 속하는 청호동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청호동 말의 화용론적 측면의 중요성은 청호동 사람들 사이의 호칭어 사용에서도 드러난다.

예를 들어 '간나', '아새끼'로 대표되는 청호동의 호칭어들은 연상자를 제외한 친척 및 비친척 내 동연배 및 손 아래 남녀에서 모두 쓰이며, 이러한 호칭어의 비격식성은 내부자들 사이에서 애정과 친밀감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2세대들은 말한다. 하지만 실제 사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관념적인 문화지식에 상응하지 않는다. 이들 호칭어는 상대를 낮추는 것이므로 호칭어를 무분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곤란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러한 2세대들의 청호동의 호칭어 사용 양상의 변화는 청호동 말이 특정 조건, 즉 말 상황의 세부적 조건–대화의 배경과 대화참여자와의 사회적 거리 및 친밀도 등–들을 만족할 때에만 나타나는 언어사용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청호동 2세대들 사이에서 이상의 호칭어가 적절하게 사용되는 경우 어휘가 가지는 지시적 의미의 비속 정도를 수용할 정도로 대화참여자들의 사이가 가까움을 보여준다. 반대로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되는 청호동 말은 대화참여자들 사이의 갈등을 유발시키

거나 청호동 말 사용자에 대한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릴 위험성을 가진다.

청호동 사람들의 세대에 따른 언어이데올로기의 변화는 청호동 말에 대한 상이한 의미화를 보여준다. 청호동 2세대들의 말에 따르면 다음 세대에서는 청호동 말에 대한 부정적 평가만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한다. 일상적 말하기에서 청호동 말은 그 사용이 점점 줄어들 것이며, 실제 사용에서 유리되어 우리 집단의 기원과 그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화석화된 문화적 상징으로 남을 것이다.

4) 이러한 일상적 말하기의 상황과는 달리 연행과 같은 특수한 말하기 상황에서 청호동 말은 여전히 청호동 사람을 이루는 문화적 근간으로 여겨지며 청호동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자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외부의 청자를 대상으로 청호동 사람을 다룬 방송, 청호동 내 관광업의 상호 등에서 나타나는 연행의 상황에서 청호동 말은 청호동 사람들의 '실향민' 정체성과 연결되며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용될 수도 있다.

청호동 말 사용을 통한 정체성의 연행이 가장 잘 보이는 말 상황은 속초북청사자놀음이다. 속초북청사자놀음 보존회 측은 함경남도에서 전해진 사자놀음의 전통을 강조함으로써 속초북청사자놀음의 당위성을 강조하려 한다. 보존회가 강조하는 민속의 전통은 무엇보다 속초북청사자놀음의 연행에서 쓰는 함경도 말을 통해 잘 드러난다고 생각된다. 청호동 사람들을 '실향민', '피난민'으로 강조하고 함경도 말이 연행에서 쓰인다는 점은 속초보존회가 주장하는 민속의 전통을 근거하는 요소로 설명된다. 속초보존회가 그들의 연행에서 사용되는 함경도 말을 '진짜' 청호동 말로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해당 연행자가 청호동 출신이라는 점이다. 여기서 청호동 출신 연행자가 사용하는 '함경도 말'은 사실상 연행자가 임의적으로 편집한 청호동 말과 함경도 말의 혼용이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진짜" 함경도 말이라고 생각한다.

속초북청사자놀음보존희의 언어이데올로기는 그들의 민속의 전통을 증명하기 위해 청호동 사람에게 이북 출신 실향민의 정체성을 강조하여 연행의 전면에 내세운다. 그리고 연행 내에서 사용되는 함경도 방언은 다른 보존회와 속초 보존회를 구별하는 가장 큰 특징으로 지목되며 속초 보존회의 연행의 진정성을 부각시킨다. 특히 속초 보존회 측은 연행 내 함경도 말에 의해 발생하는 불가해성은 속초 측 연행의 정통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여긴다.

본 연구는 청호동 말의 주요 특징들과 청호동 사람들의 사회문화적 가치와 연결을 매개하는 언어이데올로기의 탐구에 집중하였다. 언어이데올로기는 연구대상집단이 특정 언어 및 그것의 사용에 대하여 제공하는 설명 혹은 논리적 합의, 도덕

적 · 정치적 믿음(Silverstein 1979, Irvine 1989, Woolard 1998 참조)이며 사회적 세계 내에서 그 내부에 위치한 개인 혹은 집단이 특정 말 행위에 대하여 지니는 의미 발생을 보여준다. 청호동 말의 언어이데올로기 역시 청호동 말에 투영된 청호동 사람들의 경험 및 청호동이 겪어온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다. 청호동 사람들에게 청호동 말은 그들 자신을 상징하는 문화적 중요성을 지닌다고 평가되어 왔다. 하지만 청호동 사람들의 세대 변화와 함께 청호동 말 사용을 해석하는 '우리' 집단의 정서가 부정적으로 바뀌며 청호동 말 사용은 점점 줄어든다. 말과 말 사용 그리고 말에 대한 관념을 연구하는 언어이데올로기는 특정 집단 혹은 개인의 사회적 경험에 기반을 두어 말 사용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 가치관은 다시 사회적 세계를 수식하는데 쓰이며 말과 사회, 관념과 실제를 연결하는 순환성과 연속성을 드러낸다. 언어이데올로기 개념의 입체성과 불연속성은 언어적 차원, 사회적 차원, 정치적 차원 등 맥락의 교차 내에서 생성되어 말과 담화, 정체성과 같은 주제의 복합적인 결합을 보여준다.

언어이데올로기를 통해 발현되는 말에 대한 평가와 수식은 말 행위로 나타나는 정체성을 상징하기도 한다. 특히 청호동의 경우 청호동 말이 언어이데올로기의 변이에 따라 다른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언어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우리 집단을 달리 정의한다. 언어이데올로기에 의해 나타나는 정체성은 균일하고 고정적이기보다는 말 상황에 따라 변하여 특정 부분을 강조되거나 간과하는 재현적 성격을 가진다. 언어이데올로기가 보여주는 말과 정체성의 연결은 특수한 사회적 정체성을 지목하고 그것의 부차적 작용으로 말 사용을 전제하기보다는 화자들의 실천적 말 사용을 통해서 상황적 맥락 내에서 정체성의 강조됨을 보여준다. 언어이데올로기를 통해 돌아본 말과 정체성의 관계는 상황성에 의존하고 있기에 가변적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청호동 말의 언어적 특징과 언어 사용을 둘러싼 세대 변이를 말 사용, 언어이데올로기, 정체성을 중심으로 미시적 언어 사용과 거시적 사회 세계 간의 연계 내에서 탐구하였다. 본 연구에는 몇몇의 연구 한계가 존재한다. 청호동 말의 음성학적 특징이 연구 대상 집단 내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단히 표기 · 정리하는데 그쳐 깊이있는 탐구로 발전하지 못했다. 또한 청호동 사람들, 특히 다양한 이북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는 청호동 1세대들이 상정하는 청호동 말과 그것의 사용상의 특징에 대하여 보다 세밀하게 분류하지 않고 그들이 전반적으로 주장하는 청호동 말의 공통점에 집중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음성학과 방언학의 후속 연구를 통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중심적 주제와 관련되는 장래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사회에서 '표준말' 혹은 '서울말'이 대부분의 지역 방언보다 높은 사회문화적 위세를 차지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그에 대항하여 지역 방언 사용자들은 내부자적 집단의 결속력과 성원권을 중심으로 언어이데올로기를 생성해낸다.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 내 다양한 지역 방언에 대한 언어이데올로기적 접근은 물론 사회언어학적 연구조차 극히 드문 실정이다. 전통적인 방언학이 집중하는 '구제 중심'의 정체적인 연구관에서 벗어나 세대 및 언어 변화, 언어 변화와 사회적 변화를 함께 조망하는 현상 이면의 언어이데올로기를 살핀다면 방언학 전반에 더욱 풍성한 연구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어이데올로기 및 정체성 연구에 관련하여 한국사회의 주변적 언어공동체(탈북민, 청각장애인, 조선족 등)가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그 언어를 통해 연구대상들이 표방한다고 '주장'하는 정체성에 대하여 너무나 고정적인 시각에서 연구대상자들의 발화를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연구가 대부분이다(김석향 2005, 민은주 · 윤병천  2011, 박경래 2002, 전태현 · 이주행 · 박경래 2005 등). 언어공동체 그리고 말과 정체성의 결합을 그대로 수용하기 보다는 상황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면 언어를 통해 드러나는 정체성과 정체성 재현의 동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논저


강옥미

2003 『한국어 음운론』, 태학사.

강윤희

2004 “주변화에 따른 전통구술장르의 변화와 언어이데올로기 – 인도네시아 쁘딸랑안 부족의 사례”, 『한국문화인류학』 37(2), pp. 23-48.

2010 “제주 사회의 두 방언 사용”, 왕한석 엮음, 『한국어 한국 문화 한국 사회』, 교문사, pp. 365-420.

2012 “언어이데올로기”, 한국사회언어학회, 『사회언어학사전』, 소통, pp. 146-147.

곽충구

1992 “함경도 방언 연구의 전개 과정과 그 전망”, 김영배 편, 『남북한의 방언 연구: 그 현황과 과제』, 경운출판사, pp. 365-404.

1998 “동북 · 서북 방언”, 서태룡 등 편, 『문법 연구와 자료: 이익섭선생 회갑 기념논총』, 태학사, pp. 985-1028.

구현옥

2010 『국어음운학의 이해』, 한국문화사.

국립민속박물관

2014 『도시민속조사 보고서13 민속지 모래 위에 세운 터전 청호동』, 국립민속박물관.

김귀옥

1999 『정착촌 월남인의 생활경험과 정체성-밑으로부터의 월남인 연구』, 선인.

2009 “글로벌 시대 한국 이산가족의 정체성과 새로운 가능성”, 『사회와 역사』, 81: 131-168.

김덕호

2012 “놈(Norm)”, 한국사회언어학회, 『사회언어학 사전』, 소통, pp. 38.

김무림

2000 “속초시 거주 피난민의 언어”, 장정룡 외 저, 『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 속초문화원, pp. 239-274.

김미형

2005 『생활음운론』, 한국문화사.

김석향

2005 “남북한 언어 이질화 정도에 대한 집단별 인식의 차이 고찰: 남북관계 전문가 집단과 새터민(북한이탈주민) 비교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8(2), pp. 85-124.

김영배 편

1992 『남북한의 방언 연구: 그 현황과 과제』, 경운출판사.

민은주, 윤병천

2011 “제 2 언어로서의 수화가 농청년의 정체성형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론과 실천』 12(3), pp. 41-60.

민현식

1991 “제3장 속초의 방언”, 『속초시지』, 속초시.

박경래

2002 “중국 연변 조선족들의 언어 태도”, 『사회언어학』 10(2), pp. 59-86.

방상묵

1977 “속초시 도시성장의 지리학적 고찰”,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속초문화원

2000 『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 속초문화원.

2013 『제25회 강원민속예술축제용 속초북청사자놀음 안내문』, 속초문화원.

속초시 박물관

2011 『속초사자놀음 보존 · 전승체계 연구용역』, 속초시 박물관.

속초시

2013 『시정 50년사』, 속초시.

속초시 · 속초시 박물관

2007a 『속초지역 실향민 구술조사 보고서』, 속초시 · 속초시 박물관.

2007b 『2007 속초문화유산 속초의 모습 제대로 알기Ⅱ』, 속초시 · 속초시 박물관.

이상규

1991 『남북한의 방언 연구』, 경운출판사.
이호영
1996 『국어음성학』, 태학사.
1999 “국어 핵억양의 음향음성학적 연구”, 『말소리』 38, pp. 25-39.
이홍식
2007 “새터민의 언어에 대한 연구”, 『사회언어학』 15(2), pp. 141-161.
왕한석
1996 “언어· 사회· 문화: 언어 인류학의 주요 조류”, 『사회언어학』 4(1), pp. 3-50.
2010a “한국어 존댓말의 사회언어학적 기술”, 왕한석 엮음, 『한국어 한국 문화 한국 사회』, 교문사, pp. 233-272.
2010b “의사소통의 민족지학 연구: 한국 학계에의 소개와 앞으로의 연구 과제”, 『*사회언어학*』 18(2), pp. 61-78.
장정룡 · 김무림
1998 『속초 청호동의 민속과 언어』, 속초문화원.
전경욱
2001 『북청사자놀음』, 화산문화.
전상인
2000 “한국전쟁과 속초”, 장정룡 외 저, 『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 속초문화원, pp. 33-48.
전학석
1993 『함경도 방언의 음조에 대한 연구: 회령, 경성, 함주 지방말의 음조를 중심으로』, 태학사.
전태현, 이주행, 박경래
2005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인과 중국 조선족 언어 사용 양상”,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제1권, pp. 85-105.
정용호
1988 『조선사회과학학술집 180: 함경도 방언 연구』, 사회과학원 출판사.
제1군단사령부
1981 『부대사 1950년 7월 5일~1979년 12월 11일』 제1집. 제1군단사령부.
정재국
2000 “속초시 거주 피난민의 주거환경”, 장정룡 외 저, 『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 속초문화원, pp. 303-320.
조헌
2006 "팔개 군에 둘러싸인 북청고을과 그 방언에 대한 영향 조사(부록)", 『겨레어문학』 37, pp. 423-429.
청암 김영태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1998 『방언학과 국어학: 청암 김영태 박사 환갑기념 논문집』, 태학사.
최승기
2000 "속초 청호동의 방언 연구: 함경남도 북청출신을 중심으로", 강릉대학교 국어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진숙
2005 "과테말라 마야정체성의 이데올로기적 형성: 코드 전환에 의한 언어적 편견의 재생산", 『한국문화인류학』 38(2), pp. 3-28.
2010 "언어인류학의 이론적 동향—코드 스위칭(code switching) 분석을 중심으로",『언어사실과 관점』 26, pp. 67-95.
한국사회언어학회
2012 『사회언어학 사전』, 소통.
본빌라인, 낸씨(Bonvillain, Nancy)
2004[2002] 『문화와 의사소통의 사회 언어학 *Language, Culture, and Communication: The Meaning of Messages*(4th edition) (한국사회언어학회 역)』, 한국문화사.
사빌-트로이케, 뮤리엘(Saville-Troike, Muriel)
2009[2003] 『언어와 사회: 의사소통의 민족지학 입문 *The Ethnography of Communication: an Introduction*(3rd edition)』, 한국문화사.
앤더슨, 베네딕트
2002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윤형숙 역. 나남출판사.(Benedict Anderson, 1991,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Verso.)
제넥 쌀즈만
2006[2003] 언어, 문화, 사회 : 언어 인류학 입문, 김형중 역, 온누리. (Salzmann, Zdenek, 2003, "Language, culture, and society : an introduction to linguistic anthropology, 3rd edition, Westview.)
Agha, Asif

2004 "Registers of Language", *A Companion to Linguistic Anthropology*(1st edition), eds. by Alessandro Duranti, Malden, MA: Blackwell Publishers, pp. 23-45.

2007 *Language and Social Relatio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Austin, John L.

1962[1970] *How to Do Things with Words : the William James Lectures Delivered at Harvard University in 1955*,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Basso, Keith H.

1979 *Portraits of the Whiteman: Linguistic Play and Cultural Symbols among the Western Apach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oas, Franz

1911 "Introduction". in F. Boas (ed.), Handbook of American Indian Languages(1-83). Bulletin of the Bureau of American Ethnology, vol. 40.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Brown, Roger and Marguerite Ford

1964(orig. 1961), "Address in American English," in Dell Hymes (ed.), *Language in Culture and Society: A Reader in Linguisticss and Anthropology*, pp. 234-244. New York: Harper & Row.

Brown, Roger and Albert Gilman

1960 "The Pronouns of Power and Solidarity," in Thomas A. Sebeok(ed.), *Style in Language*, pp. 253-276, Cambridge, Mass.: The M. I. T Press.

Bucholtz, Mary

1999 "You da Man: Narrating the Racial Other in the Production of White Masculinity", *Journal of Sociolinguistics*, 3(4), pp. 443-460.

2003 "Sociolinguistic Nostalgia and the Authentication of Identity", *Journal of Sociolinguistics*, 7(3), pp. 398-416.

Bucholtz, Mary and Kira Hall

2004 "Language and Identity", in Alessandro Duranti (ed.), *A Companion to Linguistic Anthropology*(1st edition), Malden, MA: Blackwell Publishers, pp. 369-394.

2005 "Identity and Interaction: A Sociocultural Linguistic Approach",

*Discourse studies*, 7(4-5), pp. 585-614.

Choi, Jin Sook

2002 "The Role of Language in Ideological Construction of Mayan Identities in Guatemala," in 10th Annual Symposium about Language and Society. Austin, TX. Retrieved from http://studentorgs. utexas. edu/salsa/proceedings/2002/papers/choi. pdf.

Errington, Joseph J.

2000 "Indonesian (' s) Authority", in Paul V. Kroskrity (ed.), *Regimes of Language: Ideologies, Polities, and Identities*, Santa Fe, NM: School of American Research Press, pp. 205-227.

Ferguson, Charles A.

1959 "Diglossia," *WORD*, 15(2), pp. 325-340.

Fishman, Joshua A.

1967 "Bilingualism with and without Diglossia; Diglossia with and without Bilingualism," *Journal of Social Issues*, 23(2), pp. 29-38.

Gumperz, John J.

1982 *Discourse Strategie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Hall, Kira

1995 "Lip Service on the Fantasy Lines," in Kira Hall and Mary Bucholtz (eds.) Gender Articulated: Language and the Socially Constructed Self, New York : Routledge, pp. 183-216.

Hymes, Dell

1974 *Foundations in Sociolinguistics: An Ethnographic Approach*, Philadelphia :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Irvine, Judith T.

1989 "When Talk Isn't Cheap: Language and Political Economy", *American Ethnologist*, 16(2), pp. 248-267.

Kang, Yoonhee

2012 "Singlish or Globish: Multiple Language Ideologies and Global Identities among Korean Educational Migrants in Singapore", *Journal of Sociolinguistics,* 16(2), pp. 165-183.

Kroskrity, Paul V.

2000a *Regimes of Language: Ideologies, Polities, and Identities*, Santa Fe, NM : School of American Research Press.

2000b "Regimenting Languages: Language Ideological Perspectives", in Paul V. Kroskrity (ed.), *Regimes of Language: Ideologies, Polities, and Identities*, Santa Fe, NM: School of American Research Press, pp. 1-34.

2000c "Language Ideologies in the Expression and Representation of Arizona Tewa Identity", in Paul V. Kroskrity (ed.), *Regimes of Language: Ideologies, Polities, and Identities*, Santa Fe, NM: School of American Research Press, pp. 329-359.

2004 "Language Ideologies", in Alessandro Duranti (ed.), *A Companion to Linguistic Anthropology*(1st edition), Malden, MA: Blackwell Publishers, pp. 496-517.

Kuipers, Joel C.

1998 *Language, Identity, and Marginality in Indonesia: The Changing Nature of Ritual Speech on the Island of Sumba* (No. 18), Cambridge University Press.

Mendoza-Denton, Norma

2002 "Language and Identity", in *The Handbook of Language Variation and Change* (2nd edition), eds. by J. K. Chambers and Natalie Schilling, Hoboken, New Jersey: Wiley-Blackwell, pp. 475-499.

Mertz, Elizabeth

1998 "Linguistic Ideology and Praxis in US Law School Classrooms," In Bambi B. Schieffelin, Kathryn A. Woolard, and Paul V. Kroskrity (ed.), *Language Ideologies: Practice and The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 149-162.

Mesthrie, Rajend and Andrée Tabouret-Keller

2001 "Identity and Language", in *Concise encyclopaedia of Sociolinguistics* (eds.) Rajend Mesthrie, Oxford: Elsevier, pp. 165-168.

Silverstein, Michael

1979 "Language Structure and Linguistic Ideology", in Clyne, Paul R., William F. Hanks and Carol L. Hofbauer (ed.), *The Elements: A Parasession on Linguistic Units and Levels Including Papers from the*

*Conference on Non Slavic Languages of the USSR*, Chicago Linguistic Society, pp. 193-247.

1981 "The Limit of Awareness," Working Papers in Sociolinguistics, no. 84. Austin, TX: Southwest Educational Development Laboratory. [Reprinted in A. Duranti (ed.), *Linguistic Anthropology: A Reader,* pp. 382-402. Malden, MA: Blackwell, 2001.]

1998 "The Uses and Utility of Ideology: A Commentary," In B. B. Schieffelin, K. A. Woolard, and P. V. Kroskrity (eds.), *Language Ideolog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 163-188.

Woolard, Kathryn A.

1998 "Introduction: Language Ideology as a Field of Inquiry", in Bambi B. Schieffelin, Kathryn A. Woolard, and Paul V. Kroskrity (ed.), 1998, *Language Ideologies: Practice and Theory*,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pp. 3-50.

Woolard, Kathryn A. and Bambi B. Schieffelin

1994 "Language Ideology",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23(1), pp. 55-82.

## 2. 인터넷 자료 및 기타 자료 (검색일: 2014년 12월 29일)

속초시, "2009년 47회 속초통계연보".
http://www.sokcho.gangwon.kr/hb/section_executive/sub03_01?mode=readForm&boardCode=BDCCCC01&articleSeq=431432

설악신문, "새누리당 지도부 청호동 아바이마을 방문".
http://soraknews.co.kr/renewal/kims7/bbs.php?table=news&query=view&uid=30642

KBS 1TV <고향극장> 58회 나의 살던 고향은 (방송일시: 2014. 6. 21 (토) 저녁 7시 10분)

## <abstract>

### Father's Language and My Language
### : Language Use and Language Ideology in Chŏngho-dong, Sokcho-si



**Kim, Seong-in**
Department of Anthropolog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language use and its cultural value within two generations in Chŏngho-dong, Sokcho-si, especially among the 1st generation born in North Korea and 2nd generation, their descendants born in South Korea. Chŏngho-dong is a village built by North Korean refugees during the Korean War. As refugees settled in Chŏngho-dong, their own language, so called *"Chŏnghodong-mal"* referred to central value of residents. However, as a truce was declared and generations changed, in-group awareness of *"Chŏnghodong-mal"* also chang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language attitude, language ideology and its relation between language ideology and identity found in Chŏngho-dong.

The main research questions are: 1) How do residents in Chŏngho-dong describe their own language and what cultural signification is given to it? 2) What is the characteristic and inner variation of language ideology found in using *"Chŏnghodong-mal"*? 3) How do residents in Chŏngho-dong connect *"Chŏnghodong-mal"* and their identity?

*"Chŏnghodong-mal"* has distinct features in morphology, syntax, vocabulary, honorifics, etc. Above all, residents mostly emphasize phonetic features as the biggest difference. *"Chŏnghodong-mal"* is told to have strong intonation, which can be distinguished from other dialects.

Residents have several folk terms referring to the local dialect in Chŏngho-dong including *"Chŏnghodong-mal"*, *"Ipuk-mal*(the language of North Korea)", *"Pukchŏng-mal*(the language of Pukchŏng, a village in North Korea)", *"Hamkyŏngnamdo-mal*(the language of Hamkyŏng-namdo, a province

in North Korea)", *"apai-mal*(father's language)". These folk terms differentiate *"Chŏnghodong-mal"* from other dialects and also mirror residents' cultural value and life experiences. A resident would choose a different folk term for the local dialect in accordance with his/her generation and social experience.

These days Chŏngho-dong is a multidialectal society in which *"Chŏnghodong-mal"* and other dialects including standard Korean (also called *"Sŏul-mal"*) and Sokcho dialect are spoken. The residents' language choice of *"Chŏnghodong-mal"* is affected by situational constraints like group identity of speech participants, formality of speech situation and social distance between speech participants. The residents' language use would be characterized as multidialectal, but they insist that its pattern is diglossia. It shows that residents think each dialect is separated from speech setting and speech situation: Standard Korean for formal speech situation and unfamiliar participants and *"Chŏnghodong-mal"* for informal speech situations and intimate participants.

The generational difference among residents is especially emphasized in using local dialect's honorifics. The 1st generation says in-group participants can mutually use a low speech level in spite of a wide age gap. However, the 2nd generation doesn't accept these patterns of honorifics use, because they think it might be considered disrespectful. The change in younger generation's awareness brings about a decrease of local dialect usage.

The change in using *"Chŏnghodong-mal"* is directly related to the change in language ideology, what projects the internal value of their language. To 1st generation, *"Chŏnghodong-mal"* means residents' originality which compares to 'blood'. To 2nd generation, *"Chŏnghodong-mal"* is a register which can deliver in-group intimacy in specific condition including speech setting, speech situation and participants. The younger generation usually connects local dialect with negative evaluation, so using local dialect in everyday dialogue will tend to decrease.

However, in performative speech, *"Chŏnghodong-mal"* still has a

strong cultural symbol which stands for Chŏngho-dong and its people. Sometimes the residents deliberately use *"Chŏnghodong-mal"* to represent certain identity. "Sokch-Pukchŏng Sachanollŭm (Sokcho-Pukchŏng Lion Mask Dance)" is a case of identity representation through language use. The language ideology found in Lion Mask Dance gives diasporan identity to a performer born in Chŏngho-dong and it evaluates his words as authentic Hamkyŏng-do dialect. The language used in the Lion Mask Dance is internally regarded as a positive value which differentiates Sokcho's performances by revealing its tradition.

Key words: Language Use, Language Ideology, Identity, Generation, Language Variation, Performance, the Division of Korea
Student Number: 2012-20092

# 감사의 글

본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신 강윤희 선생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관심과 애정으로 부족한 점들을 채워주신 왕한석 선생님과 최진숙 선생님, 그 밖에 인류학과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응원해 준 선배님들, 학우님들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연구의 실현을 도와주신 분들 덕분에 이 글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귀한 자료를 선뜻 제공해주신 속초 시청 · 속초시박물관 · 속초문화원 · 속초북청사자놀음보존회 관계자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자신의 아픈 개인사를 공유해주신 속초시 청호동 아바이마을 내 노인회관 관계자 및 주민 여러분, 함경남도 도민회를 비롯한 속초 내 이북도민회 관계자 및 회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항상 연구자를 반겨주시고 아껴주신 아바이마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분들께 특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외지인인 연구자를 가족처럼 보듬어 주신 북청의 김 할머니와 가족 분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 내외에 걸친 그분들의 도움과 지원을 통해 청호동 사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